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 연구진 ==

연구책임 호은지 (서울시복지재단 지역공동협력팀 주임)

== 자문위원 ==

<자문위원>

홍현미라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경희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한상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화진 (마포 시소와그네 센터장)

<현장자문위원>

김성윤 (주민활동가)
설현정 (마포희망나눔 어린이·청소년 인권센터장)
안기덕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백석대학교 강사)
이정호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선임과장)
이창열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주임)

연구 요약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지역사회와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추세**
 - 시장과 국가역할 보완, 신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려는 복지정책의 중심에 지역사회와 시민참여를 강조함
 - 복지, 경제, 문화 등을 포괄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역할에 대한 논의 활성화됨
 - 서울시 중점과제 중 하나로 마을공동체 육성을 채택함

-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혼란 가중**
 - 마을에 대해 물리적 실체 공간인 도시계획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음
 - 마을공동체 지원정책이 개발되는 현 시점에서 혼란을 감소시키고 방향성 수립을 위해 마을공동체 정의 및 가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마을공동체 형성에 대한 사회복지 조망의 필요성**
 - 주민주도형 실천 이끌며, 사회복지 3대 방법론 중 지역사회조직화(CO) 방법론 계보 강화하며 자원제공 환경의 변화와 강화를 가져옴
 - 자생적 역량을 키워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어, 지역사회 기반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사회복지문제 예방과 해결의 중점적 역할 수행 가능함

-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형성 실태를 조사하고, 욕구를 반영하여 복지영역에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복지영역에서의 마을공동체 관련 개념 검토 및 방향제시
 -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운동 개념 검토함
 - 마을공동체 개념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형성 방향 제시함
-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형성 실태조사, 기초자료 마련
 -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복지관 실무력, 관심도, 참여도, 욕구 등 결과 도출함
 - 현장조사로 설문조사 뒷받침 함
 -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사회복지관 거점 마을공동체 형성 주체별 결과 도출함
-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방향 설정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실태조사 결과 반영하여 주체별, 지역특성별, 발전단계별 방안 도출함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기초조사(설문조사, 현장조사)
-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자문 및 실무회의

3. 연구의 기대효과

-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관련 정체성 확립 및 관점변화 유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공
- 서울시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기반과 욕구 현황자료 제공, 활성화 전략과 액션플랜을 위한 토대 구축
- 시정핵심과제인 마을공동체 육성 종합계획 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정책적 아이디어 제공

II.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

1.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적 분석

■ 마을공동체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등의 정의
 -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의미하여 물리적 공간을 강조함
 - 마을공동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응한 관계 속 주민자치 공동체로 관계를 강조함
-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
 - 마을공동체란 주민들을 조직화하여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강화시키며, 물리적 사항 뿐 아니라 주민의식 개선에 이르기까지의 총체적인 과정 및 결과물임

■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 지역사회 내부 연대 의식을 강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장기적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공하는 조직 구성이 지역사회발전
 - 이는 사회적 자본 형성과 마을공동체 형성과 의미 상통함
 -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실천 방법은 지역사회조직(CO), 지역사회구축(CB), 지역사회개발(CD), 포괄적지역사회변화운동(CCI)이 있음

■ 지역사회복지실천(community practice 또는 intervention)

- 지역사회복지와 같은 의미로서, 사회복지의 대상이 지역사회이거나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방법, 실천수단이 지역사회임을 의미함
 - 로스만 3유형의 확장으로 지역사회 역량개발을 주방식으로 활용하는 계획적 역량 개발, 역량중심적 개발, 정체성 행동주의가 있음

■ 지역사회운동(community movement)

- 지역과 복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운동으로, 단순히 개인의 문제해결과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가 문제와 변화의 핵심단위가 되어 공동체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함
 - 지역사회 주민운동, 지역사회 주민참여운동, 지역사회 교육운동이 있음

■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 관련 개념들의 관계

- 상기한 4개의 개념의 공통 기반 도출함
 -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단위 주체가 지역주민들, 주민조직들, 정부나 기구들로 나눌 수 있음
 - 실천전략은 주민들의 직접운동, 정보교환 및 협의, 네트워크 구성, 교육 진행 등이 있으며, 이들은 상호복합적으로 활용됨

2. 사회복지 관점 마을공동체 가치

■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의의

- 사회복지관 정의 및 원칙에서 모두 지역사회, 마을을 강조함
- 사회복지관의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으로 마을공동체 관점 견지가 어려움
- 하지만 3기능으로의 변화로 지역사회조직기능 비중이 높아졌으며, 마을공동체를 관점과 원리로 생각한다면 사회복지관의 모든 사업에 적용가능함

■ 사회복지관 거점 마을공동체 의의

- 실천주체 중 외부체계는 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로 나뉘지만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들이 있음. 특정한 기능과 전문성, 독립된 공간까지 포함하여 거점이 될 수 있음
 - 전문적 프로그램, 인력, 공간을 기본적으로 갖추며 개별적이지 않고, 단단히 연관됨
 - 거점은 마을의 생활체계 안에 존재하여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음.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관계망의 연결점과 중심 역할 수행함

Ⅲ.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실태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모집단은 서울시 사회복지관 전수 96개이며, 87개 기관의 응답으로 응답률 90.6%임. 이메일을 통한 설문지 배포 및 수합함
- 조사표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및 수행 전반 내용,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사항,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의향 등으로 구성됨

2. 설문조사 결과

1) 사업 및 수행 전반

-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역량강화 관련 기본사항
 - 지역특성(영구임대아파트지역 29.9%, 일반주택지역 47.1%, 혼합지역 23.0%), 지역사회 역량강화 비전이나 목표 명시여부(명시안함 14.9%, 명시함 85.1%), 지식이나 정보 공유직원(중간관리자 96.6%, 사업담당자 88.5%, 최고중간관리자 85.1%, 기관장 83.9%, 타직원 34.5%) 지역사업(평균 4.2개), 교육(평균 3.5개), 외부지원사업(1.3개)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역량의 주관적 단계 인식은 기초토대구축단계가 51.7%, 성장발전단계가 26.4%, 시작전단계 17.2%, 강화단계 4.6%로 나타남. 이는 외부사업 참여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관적 지역사회 역량단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사회복지관의 중점사업을 3기능으로 신설된 것에 대입하면, 서비스제공기능이 62.8%로 가장 많음. 지역조직화기능은 31.6%로 나타남
- 사회복지관 주민조직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
 - 기관당 주민조직은 평균 5.1개였으며, 봉사조직 3.0개, 자조모임 0.8개, 동아리 0.7개, 마을조직 0.5개로 나타남. 유지기간은 41.0개월이었으며, 모임빈도는 일주일에 0.8회였음. 인원은 27.4명이었으며, 외부로 독립한 주민조직은 0.4개로 나타남

- 네트워크의 경우, 한 기관당 네트워크 수 평균 4.2개였으며, 네트워크 당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의 수는 9.5개였음. 네트워크의 유형은 정기적 공동사업의 경우 76.4%였으며, 정보교류 및 공유(76.1%), 일회성 공동사업(37.8%), 기금 외 자원공유(36.6%), 기금지원(21.0%) 순으로 나타남. 참여적극성과 도움정도는 모두 높음

2) 사업 진행 예상

■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추진시 예상문제

- 문제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 그렇다 또는 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이 50%가 넘는 사항은 주민참여와 리더십 문제, 기관 인력과 예산,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행정주도형 공모사업방식, 업무과중이었음
- 예상문제 순위를 파악한 결과, 타사업의 업무과중문제(19.2%), 기관인력부족(17.6%), 주민참여와 주민리더십의 문제(16.5%), 예산부족(13.4%), 공모사업방식(11.1%)순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추진시 개선 필요

-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그렇다 또는 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이 50%가 넘는 사항은 네트워크의 정기적인 모임 추진, 자료 개방 및 교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기관장의 협조, 사회복지사 교육, 지역사회 자원량 증가, 친분관계 강화, 업무량 조절, 민관거버넌스 구축, 주민교육이었음
- 개선 필요 사항 순위를 파악한 결과,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17.2%), 민관거버넌스 구축(16.5%), 업무량 조절(14.6%), 네트워크 통합관리체계 마련(11.5%), 지역사회 전체 자원량 증가(8.0%)순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추진시 지원 필요

- 홍보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이브 구축 및 모델보급, 재정지원, 갈등조정 및 중재, 네트워크 구축 모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50% 이상을 차지함
- 지원 필요 사항 순위를 파악한 결과, 실무자 역량강화(26.1%), 재정지원(25.7%), 아카이브 구축 및 모델보급(19.5%),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13.4%), 홍보지원(12.6%) 순으로 나타남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의향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여부 의향

- 87개 사회복지관 중 79개기관(90.8%) 참여의향 있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희망 대상

- 일반층(최저생계비 150% 초과)의 경우가 55.7%, 차상위층(100% 초과~150% 이하)이 29.5%, 국민기초생활수급층(100% 이하)이 14.9%로 나타남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희망 내용

- 취약계층긴급지원사업(21.1%), 지역주민주체 평생교육사업(17.0%), 주민일자리사업(10.1%), 환경·에너지·재활용사업(8.1%), 공동육아돌봄사업(8.1%) 등으로 나타남
- 이를 대분류 할 경우, 복지영역이 39.7%로 가장 높으며, 문화(23.5%), 경제(16.6%), 환경·생태(10.9%), 기타(9.3%) 순으로 나타남

3. 현장조사 개요

- 모집단은 서울시 사회복지관이며, 자치구별 1개소 이상, 눈덩이 표집하여 25개 기관을 방문함. 조사기간은 약 6주간이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인터뷰를 진행함
- 조사표는 마을공동체 개념정의, 지역의 사례, 사업참여 희망정도, 사업수행시 어려운 이유, 바라는 점으로 구성됨
- 녹음, 전사, 범주화하여 분석함

4. 현장조사 결과

1) 마을공동체 관련 개념들

- 관련 개념들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음

- 마을은 삶터, 일터처럼 터전으로, 또는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곳으로 정의함
- 마을공동체는 거버넌스, 주민참여과정, 자치, 품앗이, 공생 등으로 정의함
- 지역사회복지는 방법, 활동, 실천, 지역사회 역량강화는 사람 힘 키우기로 정의함
- 주민조직화는 주민과 함께하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 엮어가는 과정으로 네트워크는 신뢰, 동일 목표, 상호호혜성, 소통 등으로 정의함

2)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례

■ 지역특성별 지역사회 역량강화 주요사업

- 형성전(영구임대아파트 12.5%, 그 외 지역 47.1%, 전체 36.0%), 주민조직화(영구임대아파트 75.0%, 그 외 지역 35.3%, 전체 48.0%), 네트워크(영구임대아파트 0.0%, 그 외 지역 17.6%, 전체 12.0%), 혼합(영구임대아파트 0.0%, 그 외 지역 5.9%, 전체 4.0%)로 나타남

3)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의향 및 정도

■ 참여 조건

- 사업을 위한 사업수행이 아니어야 함. 상의하달식 형식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제가 있어야 함. 자생적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함
- 지역특성에 따라, 기관의 상황에 따라 참여할 것임

■ 참여 형태

- 주민의식 개선 교육, 기존 사업 연계시키거나 확대하는 형태로 참여하고자 함

4)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시 어려움

■ 사회복지관 내부의 특성

- 사회복지관의 구조
 - 인력부족, 예산부족, 업무시간 부족
- 사회복지관 내 조직 환경
 - 지역중심 관점이 없음, 지역사회 기관 내 공유 부족, 담당자 잦은 이직, 프로그램 중심 사업 진행, 수퍼비전 상충, 기존사업과 마을사업의 중복

● 기 형성된 주민조직

- 자조모임에서 주민조직으로 변하기 어려움, 주민조직 리더들 간의 갈등, 활동가 간 관계 유지 어려움

● 사회복지사

- 실무자 역량에 의존, 주민과 실무자 간 소통 어려움

■ 행정기관의 특성

- 조직대응 경직성, 기관 실적 및 성과 제시 어려움, 행정주도형 탑다운 방식 사업 전개, 주민주도 사업이 아닌 거점기관으로 쏠림, 파트너십 관계 형성의 어려움

■ 기초기반의 특성

● 지역사회 특성

- 지역 공동 의제 개발 어려움, 정주율 낮음, 주민욕구와 복지관 방향 상충, 사회복지관 접근성 떨어짐

● 주민조직 형성 및 유지

- 주민 점점 부족, 주민 모집 어려움, 주민 인식 개선 어려움, 인식개선을 위한 과정 부족

●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

- 시민단체 부족, 직능단체 관계 형성 어려움, 단체 간 정치성향 차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사회복지관 소외됨

5)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을 위한 제언

■ 주체별 제언

● 사회복지관

- 지역복지에 대한 정체성 공유 및 확산, 기관장의 이해 선행, 탄력근무제 등 직무 문화 변화,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 서울시복지재단

- 실무자, 기관장, 주민, 공무원 교육 제공, 평가척도 개발 및 보급, 주민 홍보 강화, 지역복지관련 사업 통합, 지역복지 종합안내게시판

- 서울시
 - 전담인력 및 예산 지원, 과정중심적 질적 평가방식 도입,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행정부서별 중복 해소 및 행정절차 통합
- 자치구
 -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 모임 형성, 유희공간 개발
- 공통
 - 마을공동체 정의와 필요성 인식, 장기적인 관점 견지

IV.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FGI 결과

1. FGI 개요

■ 조사대상자

- 지역특성과 외부관점을 반영하여 4개 그룹 형성
 - ①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 실무자
 - ② 그 외 지역 소재 사회복지관 실무자
 - ③ 사회복지관 외 유관기관 실무자
 - ④ 사회복지관 마을사업 참여주민

■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가변성 허용한 인터뷰 진행함. 녹음과 전사하여 반복적 비교분석법으로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을 진행하여 분석함

■ 조사표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및 수행 전반 내용,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사항,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의향 등으로 구성됨

2. FGI 결과

■ 그룹별 공통질문

- 마을공동체 정의
 - ①그룹 ④그룹 유사함. 주민과 소통 강조, ②그룹 ③그룹 유사함. 관계강조
- 마을공동체 형성에의 강점

- ①그룹의 경우 소소한 교류가 더 많고, 관심사 수합이 쉽다는 강점 있으며, 사회복지관 공통적으로 강한 행정력과, 복지관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 인식이 강점임

● 어려움

- 그룹별 상관없이 유사함. 현장조사 결과와 유사함
- 사회복지관(인력부족, 공간개방 어려움, 잦은 이직, 목적 상충, 장기적 투자 힘듦, 복지관 소외 등)
- 행정기관(실적 중요시, 일괄적 압박, 역할분담 부재, 행정기관 분할, 평가 경쟁, 성과 중심, 사업중복, 척도 부재 등)
- 지역사회(어르신 조직화 힘듦,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역사회 실망), 주민조직(자발성 부족, 토착주민 관변화, 주민쏠림 등)
- 네트워크(형식적 네트워크, 실행력 차이, 선입견, 소수 복지관 쏠림 등)
- 기타(교육부재, 역할혼란, 운동관점 반감, 후배 인계 부족 등)

● 바라는 점

- 그룹별 상관없이 유사함. 현장조사 결과와 유사함
-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언급 많음. ①그룹은 주민조직 중심임. ②그룹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의 관계 언급 많음. ③그룹은 사회복지관이 매개자의 역할을 강조함. ④그룹은 고유 공간 마련과 행정과 홍보의 도움을 사회복지관에 바람
- 서울시복지재단에는 사업정리, 사례발굴, 평가를 개발, 주민교육
- 서울시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과 인력지원
- 자치구에는 민관거버넌스 파트너십과 역할분담

V. 제언 및 결론

1. 사회복지관 거점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방안

■ 실천단위 주체별 활성화 방안

● 기저 관점

- 모든 주체가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성, 장기적 시각 필요함

● 제도 및 환경

- 서울시 및 자치구는 마을공동체 전담인력 지원, 예산지원, 과정중심 질적평가, 마을공동체 수준 및 특성별 지원, 행정부서별 중복해소 및 절차 통합, 민관 파트너십 공조를 마련해야 함
- 서울시복지재단은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을 총괄하며, 시민과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를 홍보하고, 평가척도를 구축하며 지역복지 관련 사업을 통합해야 함

● 사회복지관

- 제도 및 환경의 형성 위에서 전직원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확산 조직문화가 필요함. 탄력근무제 등 마을공동체 사업지향의 조직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수집가와 분석가(마을육구 파악 및 분석), 조력자와 촉진자(주민조직 형성 및 활성화), 매개자(관-시민단체-주민 연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지역특성별 · 발전단계별 활성화 방안

- 지역특성은 2종류인 ① 영구임대아파트지역과 ② 그 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발전단계는 3단계(Ⅰ, Ⅱ, Ⅲ)로 분류해서 총 6개 유형이 가능함

Ⅰ-① : 주민의식 및 자원조사, 취약계층 욕구조사, 다주체 연계시작 가능

Ⅰ-② : 실태 및 의식과 자원조사, 의제개발 모임 개최, 연합사업 경험 공유

Ⅱ-① : 주민 특성에 맞는 자원 시스템 구축, 의제별 주민조직 활성화

Ⅱ-② : 주민지도자 양성과 역량강화, 기존 민관네트워크 강화

Ⅲ-① : 조직간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확립, 단지 내 분쟁조정, 관계증진프로그램

Ⅲ-② : 마을 내 주민조직들 간 네트워크와 지원체계 확립, 자립 가능 기반 조성

2. 결론

■ 지속적 현장 의견 수렴 필요

■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관 노력은 정체성 논란 대안이 됨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1) 연구내용	6
2) 연구방법	8
3. 연구의 기대효과	10
4. 추진절차	10

제2장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

1.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적 분석	13
1) 마을공동체	13
2) 지역사회개발	15
3) 지역사회복지실천	18
4) 지역사회운동	21
5)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 관련 개념들의 관계	22
2. 사회복지 관점 마을공동체 가치	24
1)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의의	25
2) 사회복지관 거점 마을공동체 의의	27

제3장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실태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31
1) 조사목적 및 대상	31
2) 조사표 구성	32
2. 설문조사 결과	32

1) 사업 및 수행 전반	33
2) 사업 진행 예상	43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의향	57
3. 현장조사 개요	61
1) 조사 목적 및 대상	61
2) 조사표 구성	63
4. 현장조사 결과	63
1)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	63
2)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례	65
3)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의향 및 정도	69
4)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시 어려움	69
5)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을 위한 제언	76

제4장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FGI 결과

1. FGI 개요	85
1) 인터뷰 목적 및 대상	85
2) 인터뷰 및 분석 방법	87
2. FGI 결과	90
1)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 실무자	90
2) 그 외 지역 소재 사회복지관 실무자	96
3) 사회복지관 외 유관기관 실무자	102
4) 사회복지관 마을사업 참여주민	108
5) 소결	112

제5장 제언 및 결론

1. 사회복지관 거점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방안	119
1) 마을공동체 실천단위 주체별 활성화 방안	120
2) 마을공동체 지역특성별·발전단계별 활성화 방안	127
2. 결론	128

참고문헌 131

부록 137

- 지역사회 역량강화 기초조사 설문지 139
- 지역사회 역량강화 현장방문 인터뷰지 148
- 지역사회 역량강화 현장방문 사례 요약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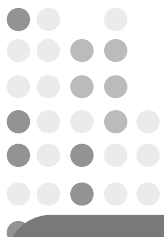
표 목 차

〈표2-1〉 로스만 모델의 확장	19
〈표2-2〉 지역사회 역량개발 유형의 확장	20
〈표3-1〉 설문조사 개요	31
〈표3-2〉 설문조사 내용	32
〈표3-3〉 서울시 사회복지관 특성	33
〈표3-4〉 외부사업 참여여부별 지역사회 역량단계	36
〈표3-5〉 중점사업(소분류)	37
〈표3-6〉 중점사업(대분류)	38
〈표3-7〉 중점사업(신분류)	39
〈표3-8〉 주민조직	40
〈표3-9〉 네트워크	42
〈표3-10〉 사업 추진 시 예상문제	44
〈표3-11〉 사업 추진 시 예상문제 정도 차이	45
〈표3-12〉 지역특성별 기관 및 단체 부족 문제예상 정도 차이	46
〈표3-13〉 지역사회 역량강화 명시여부별 기관 및 단체 부족 문제예상 정도 차이 ..	47
〈표3-14〉 외부지원 사업 참여여부별 행정과의 소통 부족 문제예상 정도 차이	48
〈표3-15〉 지역특성별 주거공동체 해체 문제예상 정도 차이	49
〈표3-16〉 사업 추진 시 예상문제 순위	50
〈표3-17〉 사업 추진 시 개선필요	51
〈표3-18〉 사업 추진 시 개선필요 정도 차이	52
〈표3-19〉 지역사회 역량강화 명시여부별 민관거버넌스 구축 필요 정도 차이	53
〈표3-20〉 사업 추진 시 개선필요 순위	54
〈표3-21〉 사업 추진 시 지원필요	55
〈표3-22〉 사업 추진 시 지원필요 순위	56
〈표3-2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의향	57

〈표3-2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희망 대상	58
〈표3-25〉 서울시 마을공동체 희망 사업 내용	59
〈표3-26〉 지역사회 역량강화 명시여부별 민관거버넌스 구축 필요 정도 차이	61
〈표3-27〉 현장조사 개요	62
〈표3-28〉 마을공동체 개념 정의	63
〈표3-29〉 지역특성별 지역사회 역량강화 주요사업 분야	65
〈표3-30〉 주요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례 :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	67
〈표3-31〉 주요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례 : 그 외 지역 사회복지관	68
〈표3-32〉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시 어려움	70
〈표3-33〉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시 어려움 : 사회복지관 내부 특성	73
〈표3-34〉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시 어려움 : 행정기관 특성	74
〈표3-35〉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시 어려움 : 기초기반 특성	75
〈표3-36〉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을 위한 제언	76
〈표4-1〉 조사대상자 기준	85
〈표4-2〉 인터뷰 대상자 분포	86
〈표4-3〉 개방형 질문	88
〈표4-4〉 FGI 결과 비교 · 대조	113
〈표5-1〉 마을공동체 발전단계	127
〈표5-2〉 지역특성별 · 발전단계별 활성화 방안	128

그림 목 차

[그림1-1] 서울시 마을공동체 현황	4
[그림1-2] 연구 모형	7
[그림1-3] 연구 추진 절차	10
[그림2-1]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실천 방법	16
[그림2-2] 지역사회복지운동 유형 구분	22
[그림2-3] 마을공동체 실천 주체	23
[그림3-1] 지역사회 역량단계	35
[그림3-2] 사회복지관 내부 특성 구분	72
[그림4-1] 반복적 비교분석법 절차	89
[그림5-1] 마을공동체 주체	121
[그림5-2] 사회복지관 거점 마을공동체 활성화 체계	123



01 | 서론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여 신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려는 복지정책들의 중심에 지역사회와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추세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학자들과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논의되어왔다(이광모, 2012; 이봉주, 2005; 홍현미라 외, 2010; 김종일, 2012; 오정수·류진석, 2004;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연구기획팀, 2010).

동시에 복지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전반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민간차원의 활동을 넘어서 정부 각처¹⁾와 지자체²⁾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방증하듯이 마을에 관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홍현미라 외, 2012; 강병덕, 2012).

특히 서울시는 민선 5기 박원순 시장 재임 이후, ‘마을공동체 육성’을 1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으며, 약 725억원을 투입하여 토대마련, 경제, 복지, 문화 4개 시책 아래 주민주도가 가능한 35개 사업 추진이 진행 또는 예정 중이다(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2012; 서울시청 보도자료(2012.5.4)). 하지만 마을공동체의 레토릭(rhetoric)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방의 이야기로 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김보영, 2012) 대도시 서울에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요원하게 들릴 가능성이 크다.

1) 행정안전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2006~2009), ‘희망마을 만들기’ (2009~2011), 국토해양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2007~2009), ‘아름다운 해안마을 만들기’ (2010~201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2004), ‘가고 싶은 섬 만들기’ (2006),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마을미술프로젝트’ 농림수산부 ‘농촌마을 종합개발’ (2006), ‘전원마을 만들기’ (2006), 건설교통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2006) 등(국가균형발전위원회 <http://balance.pa.go.kr>, 홍현미라 외(2012) pp.172-207 참고)

2) 세계도시정보 <http://ubin.krihs.re.kr/> 국내도시정보-마을만들기에 따르면 총 160개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서울특별시(36), 부산광역시(14), 대구광역시(6), 인천광역시(6), 광주광역시(3), 대전광역시(4), 경기도(30), 강원도(12), 충청북도(11), 충청남도(7), 전라북도(10), 전라남도(9), 경상북도(2), 경상남도(12), 제주도(4)

2012년 2월에 각 자치구에서 수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성미산 마을, 재미난 마을 등 85개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돌봄과 문화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하는 240여개의 초보적인 공동체 활동이 파악되었다(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2012:7). 다음은 2012년 2월 기준 85개 마을공동체 형성 지도이다.



[그림1-1] 서울시 마을공동체 현황

마을공동체 형성의 시너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위해서는 복지분야를 포함한 각 영역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상(像)이 존재해야 하며, 각 분야의 마을공동체 형성실태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복지영역에서의 마을공동체에 관한 논의와 실천은 시발단계로서, 대부분의 마을 관련 선행연구들은 ‘마을’에 대해 물리

적 실체 ‘공간’ 인 도시계획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마저도 마을공동체의 개념, 관점, 가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한 실정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단적으로 ‘복지’와 ‘마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연구 제목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연구는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형 복지마을 모형개발과 추진전략’ 연구와 보건복지부와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로 두 연구를 포함한 몇몇 소수의 연구들만이 복지 관점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해 논하였다. 따라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복지영역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홍현미라 외(2012)는 마을공동체 형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조망이 필요한 이유를 지역사회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과 연결시켜 서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본래의 지역사회복지의 목적을 잃고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만 한정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강했다. 사회복지관에서의 마을공동체 형성 노력은 주민주도형 실천을 이끌어 3대 방법론 중 하나인 지역사회조직화(CO) 방법론의 계보를 강화하고, 자원제공 환경의 변화와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사회복지실천의 일회적 서비스 제공과는 달리 마을공동체 형성 노력은 지역 내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자생적 역량을 키워주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의 고유한 목표인 지역사회 기반의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사회복지문제 예방과 해결의 중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복지 주체인 사회복지관에서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복지 영역에서의 마을공동체 형성 실태에 대한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슈가 촉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연구원(구 시정개발연구원)은 주민자치실현,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고령자 친화형 마을만들기 등의 주제로 거시적으로 복합적인 현상 중심의 조사연구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서울연구원, 2012 자체연구현황), 서울시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풀뿌리단체, NGO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조사를 수행하여(서울연구원, 2012 기본계획 마을공동체위원회자문회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마을공동체 형성실태를 나타내는 유일한 자료인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40개의 마을활동 중 15개의 활동만 사회복지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회복지관이 여러 개의 마을활동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총 8개의 사회복지관만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그림1-1]에서 나타난 85개의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제한하면, 사회복지관이 포함된 마을공동체 활동은 3개뿐이며 2개의 사회복지관만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2012.9.5). 하지만 이 자료는 각 25개의 자치구에서 수합된 것으로서, 자치구의 역량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통된 지표로써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형성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 관련기관들 간 상호작용, 참여자들의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지영역에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실태와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서울시의 복지영역에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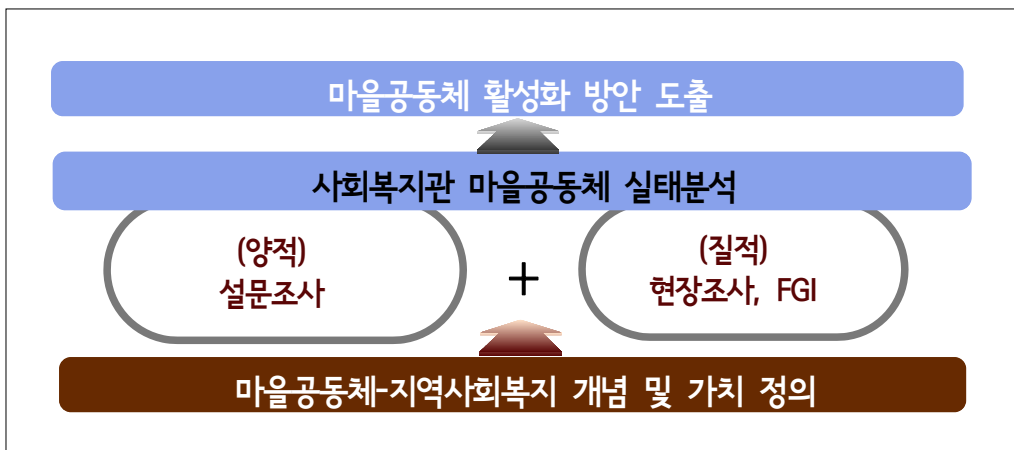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형성 정체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특성에 적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복지영역에서의 마을공동체 관련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복지영역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마을공동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복지영역의 마을공동체 형성 실태를 조사하여 복지영역에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략 및 대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특히 기존연구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마을 형성 실태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마을만들기전국대회조직위원회, 2012),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가능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조사로써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도시 서울의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실무력, 관심도, 참여도, 욕구 등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소재 지역의 유형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가능 유관조직들인 사회복지관 외의 다른 조직들과의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인식 및 욕구를 파악한다.

셋째, 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방향을 설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구체적인 전략도출을 위해서 주체별, 지역특성별·발전단계별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정리하여 연구의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1-2] 연구 모형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 문헌조사, 기초조사(설문조사, 현장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활용하였다.

(1) 문헌조사

연구의 방향설정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복지영역의 마을공동체에 관한 개념 정의를 위해 기존의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각종 개념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한 분석틀(frame)을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2) 기초조사(설문조사, 현장조사)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형성실태와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진행하였다.

기초조사는 설문조사와 현장조사가 병행되었다. 서울시 사회복지관 전수 96개소에 대해서 기관의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및 수행 전반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관련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결과는 SPSS 19.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변수의 특성(연속변수, 비연속변수)에 따라 교차분석, 독립검정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장조사의 기관 선정 기준은 서울의 25개 자치구로서, 각 구 1개소 이상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서울시 전반의 마을공동체 상황을 알아보자는 목적을 세웠다. 인터뷰 과정에서 다른 기관을 추천받는 표집방법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방문기관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비확률 표집인 눈덩이 표집을 활용하여 총 25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개방형의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고, 녹음 내용은 전사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3) 포커스그룹인터뷰

사회복지관 특성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소재지역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 경우와 그 외 일반 및 혼합지역인 경우로 분류하여 각 지역 소재 사회복지관 지역복지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의 특성상 타조직과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외부의 마을공동체 유관 조직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그룹을 조직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네트워크 가능 유관조직의 마을공동체 관련 실무자로 인터뷰 그룹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관점을 견지하여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형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로 인터뷰 그룹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사회복지관 외부로 독립하여 인큐베이팅 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참여주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발언을 수합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자문 및 실무회의

자문 및 실무회의는 연구의 원활한 진행 및 연구방법과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하였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3인과 현장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였고, 총 2회 실시하였다. 실무회의 위원은 다양한 현장(사회복지관 지역사회 중간관리자 이상, 풀뿌리주민조직 사무국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실무자 총 6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방향 및 구성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및 마을공동체 관련 개념정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3.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시행하여, 마을공동체 형성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갖는다.

첫째,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회복지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 및 관점 변화를 유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둘째,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기반과 욕구의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활성화 전략과 액션플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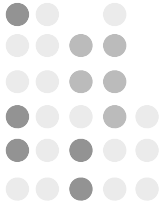
셋째, 시정 핵심과제인 마을공동체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측면에서 제공하여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4. 추진절차

연구의 수행기간은 2012년 6월 ~ 12월이며, 월별 세부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추진내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마을공동체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사회복지관 기초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					
포커스그룹인터뷰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세미나 개최						■	
연구보고서 평가						■	
연구보고서 발간							■

[그림1-3] 연구 추진 절차



02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



제2장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

1.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적 분석

마을공동체는 무엇이며, 이는 지역사회복지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복지영역에서 왜 마을공동체를 논해야만 하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필요성과 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상기했듯이, 이에 대한 명확한 상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적합한 이론적 배경 또한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헌검토를 통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 그리고 ‘마을’이란 공간적이고 관계적인 지역사회의 경계(local boundary) 안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형성과 유사개념인 ‘지역사회’에 집중하여 지역사회 변화나 발전을 다루는 주요개념인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에 대해 검토한다. 이어서 복지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의 3대 방법론 중 하나인 ‘지역사회복지실천(community practice 또는 intervention)’과 ‘지역사회운동(community movement)’에 초점을 맞추어 마을공동체와의 개념적 접점을 찾아볼 것이다.

1)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는 ‘마을’과 ‘공동체’의 합성어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마을공동체라는 단어의 사용이 복지영역 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건축, 도시계획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석(1999)은 ‘마을’이라는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며, 물리적 측면의 ‘생활환경’인 거주지를 비롯한 일터와 쉼터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생활환경을 공유하는 ‘마을사람들(주민, 시민, 이용자)’과 이들이 이루고 만들어내는 ‘마을공동체’와 ‘마을문화’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2012년 3월 15일 제정되고 시행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

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마을과 공동체는 완전하게 동일한 개념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 제2조1항에 따르면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의미하여 ‘물리적 공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마을공동체’란 조례 제2조2항에 따라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의미하여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3항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리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마을이란 한 지역에 모여 함께 만들고 나누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지역공동체이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 혹은,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이다(박현찬, 2012). 그 외에도 마을에 대해서 개인과 사회적 접근으로 나누어 정의를 내리면, 마을은 호혜적 관계망을 복원하는 생활 커뮤니티로서,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마을은 도시지역의 생활문화관계망 마을살이이며, 사회적 차원에서의 마을은 크고 작은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다(마을공동체풀뿌리 TFT, 2012).

‘마을공동체’와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맥락을 가진 ‘마을만들기’라는 의미는 마을의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며,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마을만들기라는 단어가 처음 태동한 일본³⁾의 학자 다무라 아키라(2008)는 마을만들기는 종래의 가치관을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유연한 단어이지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마을만들기를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지탱하며 편리하게 하고 보다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공동의 장을 만들어 가는 방법 및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의 차이는 특히 도시 서울에서 두드러진다. 대도시 서울⁴⁾

3) 마을만들기는 일본어 ‘마치즈꾸리’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1962년 일본의 나고야시 에이토 지구의 도시 재개발 시민운동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서태성, 2002).

4) 마을이 일터와 삶터, 쉼터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김구 외, 2007), 각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극명하게 다른 서울의 경우에는 지역의 공간을 강조하는 ‘마을’이라는 단어보다는 ‘마을공동체’라는 수식이 더 어울린다(정성훈, 2012).

에서는 특히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마을에는 공동체적 관계가 없거나 미약하고, 공동체적 관계의 재생산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탈장소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 과정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인 ‘마을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보다는 마을공동체라는 단어가 서울의 환경에서 논의되기에 더 적합하다.

이밖에도 다양한 연구들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마을공동체란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보다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 가는 과정을 포함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고 이를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해가는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과정 전반을 포함한다. 또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될 때에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며, 이를 지지해주고 조력해줄 수 있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신주혜, 20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조직화하여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강화시키며 물리적 사항 뿐 아니라 주민의식 개선에 이르기까지의 총체적인 과정 및 결과물을 마을공동체라고 정의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communitiy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학문적·실천적 맥락에서 다양한 의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느슨하고 모호한 개념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지역사회개발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물리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부수고 세우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development를 발전이라는 말로 접근하였다(김종일, 2012).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지역사회개발을 지역사회발전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서술하고자 한다.

사회복지학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지역사회 내부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장기적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공하는 조직들을 구성할 때, 지역사회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Rubin & Rubin, 2007). 즉,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커지는 현상이 지역사회발전이며, 이는 상기한 마을공동체 형성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사회발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Hess(1999)의 구분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형성의 전략으로도 활용가능한 4가지의 실천전략을 분석한다.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ing), 지역사회구축(community building),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포괄적 지역사회변화운동(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홍현미라 외, 2012; 강병덕, 2012).

	CO	CB	CD	CCI
지역 및 공공 이슈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내 이슈들의 갈등	지역사회 내 자원 존재하며, 다양한 이슈들 조화 가능	지역 외부포함 수렴가능한 이슈존재하며, 실질적 개발과 경제적 자본 제공에 집중	지역 외부포함 다양한 이슈들 존재하며, 부문화된 지역개발 탈피
사회적 자본 형성 방법	정치적 활동	지역사회 내 관심공유	지역내외 파트너십 강화	CB+CD
지역사회 변화방법	쟁점 이슈화하는 시민참여	리더십으로 관계망 형성 및 발달	지역 내외부 다양한 주체들 전문성	CB+CD
∴	지역주민을 조직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변화	소수집단의 리더십으로 자발적인 지역사회변화	지역내외부 전문성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으로 지역사회 진단 및 대응	외부자원을 적극적 활용, 지역기관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과 역량강화

자료: 강병덕(2012) pp.7-10 재구성; Hess, D.(1999) Community organizing, building and developing: their relationship to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그림2-1]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실천 방법

지역사회조직(CO)은 지역사회 내 여러 이슈들은 갈등관계에 있으며, 모든 이슈들이 쟁점화 되지 못하므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주민조직을 결성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며, 지역 리더의 역할보다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더 중요한 핵심가치로 본다.

지역사회구축(CB)은 지역사회 내의 이슈들이 갈등관계가 아닌 조화가 가능한 쟁점들이라고 보며, 시민참여의식을 전제로 두고 소수집단의 리더십으로 자발적인 지역사회의 변화를 협력적인 모습으로 이루어간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슈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내부적 관계형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증대시키는 실천이 필요하다(Rubin & Rubin, 2007).

하지만 지역사회조직의 지역사회발전 방법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키우는 점이 아닌 정치적 활동에만 집중을 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조직과 지역사회구축 모두 지역외부를 간과하고 지역 내부에만 초점을 두어 지역 외부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홍현미라, 2012).

지역사회개발(CD)은 지역사회조직과 역사적 맥락을 같이 하지만 지역 내외부 모두 포함하는 자원 제공자들 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그리고 지역사회구축 방법처럼 쟁점화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든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의사소통을 통해 지역의 통합과 자조를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을 핵심가치로 지역사회 내의 자산이나 문제 등 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행동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지역사회변화운동(CCI)은 빈곤과 같은 복합적인 지역문제는 다부문의 종합적 상호협력의 접근이 아니면 다루기 어렵다는 공감대에서 생긴 것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지역 내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력들을 통합한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상호간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며 지역 내에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리더들을 키워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 방법은 상기한 지역사회구축과 지역사회개발을 혼용하는 것으로 지역공동관심이 협력적 관계의 다양한 주제들로 표현되거나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하나의 주제로도 표현된다. 다주체 협력으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며, 이 협력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 형성으로 연결된다.

4개의 방법이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방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지역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발전 전략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회복지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복지실천과 마을공동체 연관성을 도출하였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은 큰 틀에서 지역사회실천(community practice 또는 community intervention)이라고도 해석되며(Weil & Gamble, 2009; 김종일, 2012:39 재인용),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ing)과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라는 단어의 협소성으로 인해 파생되었다(김종일, 2012). 미국의 1960년대 빈곤퇴치를 위한 지역사회조직 활용의 붐으로 인해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지역사회조직이라는 대명사로 부르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조직은 지역사회를 개입수준으로 한 미시적 사회사업실천 방법론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유동철, 2012). 한국에서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회복지 3대 방법론의 하나로 논의되다가 이는 점차 지역사회복지라는 단어로 대체되었다. 지역사회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실천 영역으로 지리적인 지역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오정수·류진석, 2009). 이는 목표와 방법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회복지의 대상이 지역사회이거나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방법, 실천수단이 지역사회임을 뜻한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라는 단어는 영어권 국가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를 대신하여 폭넓은 의미로 지역사회실천 또는 지역사회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지역사회복지실천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지역사회복지학에서 지역사회복지실천 유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실천모델은 로스만의 3유형⁵⁾이며, 이는 이상적 유형(ideal-types)으로 실재를 기술하거나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현실적용성을 고려하여 기존 3유형은 교차결합하여 9가지 개입방식으로 발전하였다(Rothman, 2007; 김종일, 2012, p.106 재인용).

5) 지역사회개발(locality development), 사회계획(social planning/policy), 사회행동(social action)이 그것으로 로스만의 3분류 방식은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가장 전형적인 모형으로 인식된다(오정수·류진석, 2009).

<표2-1> 로스만 모델의 확장

부방식 \ 주방식	① 계획 및 정책실천 (planning and policy practice)	② 지역사회 역량개발 (community capacity development)	③ 사회적 옹호 (social advocacy)
① 계획 및 정책실천	합리주의적 계획	계획적 역량 개발	사회적 개혁
② 지역사회 역량개발	참여적 계획	역량중심적 개발	연대성 조직화
③ 사회적 옹호	정책 옹호	정체성 행동주의	사회 행동

자료: 김종일(2012) pp.108-116 재구성; Rothman, Jack.(2007). Multi Modes of Intervention at the Macro Level.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5(4):11-40.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역량개발 유형에 집중한다. 주요사회문제 해결에서 주민의 참여보다 기술적 과정과 전문성을 가진 계획자의 역할을 강조한 ‘계획 및 정책실천’ 과 지역사회 문제의 근원인 사람과 제도 등에 대항하여 압력을 행사하여 사회정의의 실현을 촉진시키는데 주력하는 ‘사회적 옹호’ 는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 지역사회 문제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갖추고 역량이 강화될 때 지역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견지한 지역사회 역량개발 유형을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주된 방식으로 사용한 3가지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1) 역량중심적 개발(capacity-oriented development)

가장 순수한 의미의 지역사회 역량강화 방식이며, 비지리적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임파워먼트를 구현하는 핵심목표를 바탕으로 실천가는 주민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격려하고 돕는다.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개입 방식으로 시급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지역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모든 지역사회실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의 가치는 유효하다.

(2) 계획적 역량 개발(planned capacity development)

이 전략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획의 기법을 함께 활용한다. 하지만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하며,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 결정할 때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법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3) 정체성 행동주의(capacity-oriented development)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결하고자 할 때, 지역사회 자체가 동질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화되는 주민들의 수동적이고 방관적인 태도가 나타나며, 합의를 강조하다 보면 갈등 요소를 억누르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천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유념하고 주민들의 역량 제고에 노력하여 지배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역량 개발 접근방식과 옹호 전략요소를 혼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 역량개발은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참여자들의 성격으로도 구분된다. 주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타단체로 확대되어 연결되는지에 따라서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유동철, 2012).

<표2-2> 지역사회 역량개발 유형의 확장

지역내부 지향형	수평적 연결형	수직적 연결형
전형적인 지역 개발 유형	지역단체의 연합	정부나 기구의 지원

자료: 유동철(2012).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성개발모형의 탐색. 2012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7

지역내부 지향형은 지역사회 역량개발 유형에 충실한 것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결정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소집단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직되며 활동을 펼쳐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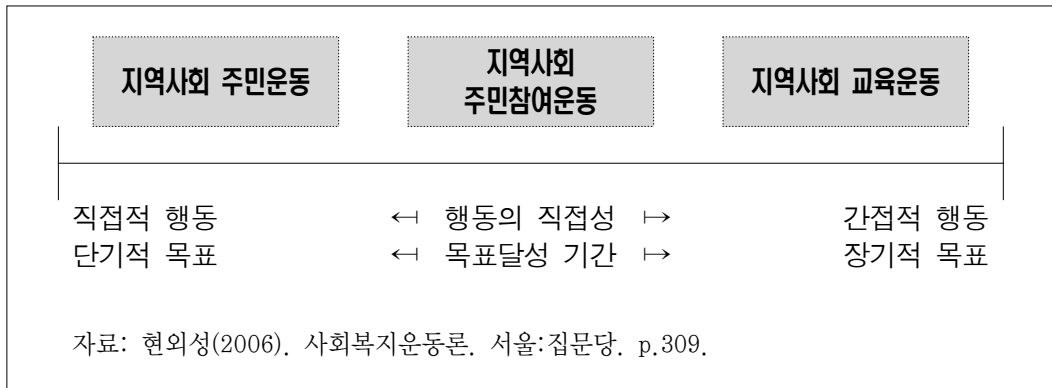
수평적 연결형은 지역내부 지향형에서 활동하는 소집단들이 함께 연결되어 지역단체끼리 연합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공통된 관심사와 동일한 욕구를 가진 소모임끼리 모여 공동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 형태는 지역축제나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단체들의 연계 등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연결형은 소모임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아닌 지자체나 정부, 또는 보건소와 같이 큰 단위 기구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서,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이 함께 투입되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이 이루어진다.

4) 지역사회운동

지역사회운동(community movement)이란 지역과 복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운동으로서, 사회복지운동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실천적 장소로 지역을 바라보며 단순히 개인의 문제해결과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가 문제와 변화의 핵심단위가 되어 공동체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강병덕, 2012). 이는 곧, 마을공동체 형성과 의미가 상통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능력강화가 필수적이며(이인재, 2004),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 행동의 변화를 넘어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도 함께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행동의 직접성과 목표달성의 기간을 기준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현외성, 2006).



[그림2-2] 지역사회복지운동 유형 구분

지역사회 주민운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달성시간이 비교적 짧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있어 직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한다.

지역사회 주민참여운동은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협의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문제를 감안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지역사회에 맞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은 증진되며, 이 과정을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사회 주민운동에 비해 더 길다.

지역사회 교육운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이나 태도를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이루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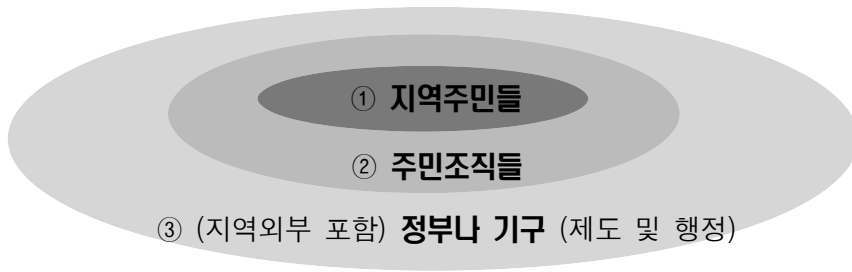
5)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 관련 개념들의 관계

마을공동체의 정의와 지역사회발전, 지역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운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결과, 이 개념들은 조금씩 상이한 점이 있지만 그 기반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지역사회발전, 지역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운

동 실천방법에서 공통으로 도출되는 전략들을 논의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틀을 구성할 수 있다.

각 개념들을 설명하는 13가지 실천방법들의 스펙트럼을 나열하고 마을공동체 형성과의 접합점을 찾았다. 범주화 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범주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기준은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단위주체다. 마을공동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논의되는 개념들의 전략들에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들은 크게 3가지로 정리가능하다.



[그림2-3] 마을공동체 실천 주체

전략들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활동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 주민조직들을 포함하고 지역 외부까지 확대하여 정부나 기구, 기타 기관들의 지역변화를 위한 역할도 언급한 경우가 있다. 주체 및 대상이 명확히 나뉘지는 않지만 위 그림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함의를 준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입장에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 3가지의 주체들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범주기준은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실천전략이다. 이는 실천주체와도 맞물릴 수 있다. 실천주체를 크게 ①+② 지역주민들 및 그들이 조직한 주민조직 ③ 주민조직의 외부 지역사회체계라고 나누어 봤을 때, 각각의 실천전략이 도출된다.

지역주민 및 주민조직의 실천전략은 첫째, 주민들의 직접운동이다. 자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등의 직접운동을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역에 직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성

미산의 공동육아 사례가 있다. 둘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개선되었지만 주민조직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질적 참여는 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지역현안에 대해서 정보교환 및 협의를 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전략이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정책 모니터 및 복지예산분석 등을 통해 복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주민조직 외부 지역사회체계들도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몇 가지 실천전략이 있다. 외부 지역사회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정부나 서울시, 각 자치구, 각 동의 자치센터와 같은 행정기관이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나 관변단체, 각 민간재단, 지역사회 관련 대학 교수 등도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 실천의 전략은 첫째, 네트워크를 조직할 수 있다. 네트워크 목적은 다양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집중을 한다면, 지역 내외부에 전문성을 공유하는 소집단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문제나 욕구가 발견되면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원을 공유하거나,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즉, 이슈를 발굴하고, 자료수집과 최적의 합리적인 행동조치를 결정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선후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면, 전문성을 발휘하여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식과 태도 개선, 방법 공유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마을공동체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실천전략들은 각기 독립적이지 않으며, 상호 중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실천전략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힌트가 되며, 상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5장에서 후술할 것이다.

2. 사회복지 관점 마을공동체 가치

상기한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의 유사성을 유념하고, 2절에서는 사회복지관 내부의 입장에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논해야 하는 이유인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한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외부의 입장에서 마을공동체 실천주체의 하나로 사회복지관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다.

1)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의의

보건복지부(2012)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서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관 운영의 제1원칙은 ‘지역성(locality)의 원칙’이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즉, 사회복지관의 정의와 원칙 모두에서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으로 ‘지역사회’, 즉 ‘마을’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복지관에서는 마을공동체 관점으로 활동을 하는 것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복지관의 준공공적 성격 때문이다. 즉,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공공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의 조직 성격이 순수 민간기관 이라기 보다는 준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황성철, 2003). 사회복지관은 특성상 외부의 과업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재정적 측면에 있어서 정부 의존도가 높아 사회적 약자의 옹호적 입장을 반영하여 주민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대변자, 옹호자 역할 등을 하는 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김세진, 2010). 또한 민간기구로서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사회에 풀뿌리주민조직 등 새로운 복지활동 조직들의 등장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불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기반 활동을 하기 위한 명확한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더욱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정무성, 2002).

하지만 최근 사회복지의 기능변화에 주목하면, 주민조직화와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조직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단적으로, 마을공동체 지향적인 관점이 사업으로 발현되는 지역조직화사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기존 사회복지관 5대 사업의 하나의 꼭지로 포함되어있던 것이, 대상이나 사업 영역이 아닌 사회복지관이 수행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2012년 4월 1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⁶⁾ 지역기반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3기능 중 하나로 지역사회

회조직기능⁷⁾이 당당히 포함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이 추구해야 할 마을공동체 형성은 기존에 사회복지관에서 해 오던 사업과 동일한 것인가? 사업의 외연으로 보면 기존에 했던 지역조직화사업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른 사업에 비해 비중도 작지 않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사회복지관 기능정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1차년도 실태조사⁸⁾를 실시하였다(정무성 외, 2010). 이를 활용하여 단위사업군별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하여 사업분야별 연간 실적을 도출한 결과, 146개의 총 단위사업 개수 중, 지역사회조직사업이 총 32개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가족복지사업 33개, 지역사회보호사업 37개, 교육문화사업 17개 등과 견주어 봤을 때, 복지관의 사업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민조직강화 및 교육이 7개, 복지네트워크 구축이 9개, 주민복지 증진사업이 8개였다.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조직의 역할은 기존 사회복지관에서 간과했던 부분이 아니다.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단순히 사업이 아닌, 관점으로 파악한다면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은 지역기반 중심이라는 본 정체성에 가장 합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6) 2012년 8월 5일 자로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관련)이 개정되었다. 기존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은 '서비스제공기능'으로 재편되었으며,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가 '사례관리기능'으로 신설되었고, 기존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가 '지역조직화기능'으로 재편되었다(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177호).

7) 사회복지관 기능은 기관이 존재하는 지역 성격과 문제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3대 기능 중 하나로 지역조직화 기능은 3가지 하위 사업을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12). ① 복지네트워크 구축(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육구조사, 실습지도) ② 주민조직화(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③ 자원개발 및 관리(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후원자 개발 및 관리)

8) 전국 사회복지관 총 414개소 중 시군에서 직영하는 26개소를 제외한 388개소를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55.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정무성 외, 2010).

2) 사회복지관 거점 마을공동체 의의

[그림2-3] 마을공동체 실천 주체에서 언급했듯이 지역주민들, 주민조직들, 그 외 외부체계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시키는 주체이다. 외부체계 중 하나로서 사회복지관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 외부체계를 구성하는 주체 또한 상당히 다양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참여주체는 크게 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로 나뉘며(최영 외, 2012; 박현찬, 2012; 김기호 외, 2012; 마을공동체플뿌리 TFT, 2012), 마을공동체 형성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frame)으로서 참여주체의 고유한 역할과 권한은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라도삼 외의 연구결과(2012)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관을 매개로 한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기관 중 사회복지관은 공간과 인력을 갖춘 ‘거점기관’ 으로서의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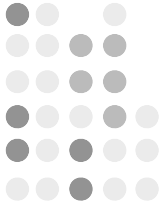
거점이라는 단어로 개념화 될 수 있는 예로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지역도서관 등이 있다. 이들은 기존 4가지 주체 프레임에 대입하기가 쉽지 않다. 주체가 어떤 역할을 주되게 하는 행위자를 의미한다면, 거점은 거기에 더해 특정한 기능과 이에 따른 전문성, 독립된 공간까지 함께 일컫는다.

거점의 특징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프로그램, 인력, 공간을 기본적으로 갖추며 이것들은 개별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단단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인력은 그들이 축적한 정보와 관계망,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이는 마을공동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독립공간은 주민들의 일상적 교류나 친교장소 등으로 요긴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들의 총체성으로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거점의 활동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다. 즉, 거점은 주민들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생활세계(Life world)’ 안에 존재한다. 이를 근거로 마을공동체 형성 주체를 새롭게 분류한다면 거점은 마을 바깥에서 섭외되는 ‘전문가’ 와 ‘시민단체’와는 다른 ‘내부자’ 인 동시에, 같은 내부자인 주민과도 구별되는 마을 구성원이다(김기호 외, 2012). 이러한 특징에서 비롯되는 거점의 가장 큰 특징이 주민들과 자연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

아가 전체적인 관계망의 연결점 또는 중심 역할까지도 한다는 것이다. 즉, 거점은 그저 본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적인 사회적 접촉이 일어나고 이것이 모여 공적 신뢰의 관계망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관계가 그 자체로 결속력과 행동을 갖거나 마을에 큰 변화를 불러오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마을공동체 형성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Jane Jacobs(2010)도 주민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작고, 사소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회적 접촉(public contact)’ 들이 모이면 자원이 된다고 하면서 사회적 접촉이 잘 일어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물(public character)’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 및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주민들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사회적 접촉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관계망을 만들거나 연결점 역할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들이 마을 안에서 간혹 한시적으로 거점을 만들어 주민들과 교류하고자 시도하더라도 깊이와 지속성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은 생활세계의 내부자이며, 그저 본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적 사회적 접촉이 일어나고 이것이 모여 마을공동체 형성의 기본인 공적 신뢰의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행동하는데 굳건한 중심이 되거나,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하는 등, 타 주체와 함께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03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실태조사 결과



제3장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실태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아직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논의점도 상당히 상이하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전제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실태에 대한 양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목적 및 대상

조사의 목적은 사회복지관 거점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계량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공동체 형성 욕구 등을 확인하여 사회복지 영역에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3-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서울시 사회복지관 전수 96개 ⁹⁾
조사응답(유효수)	87개 사회복지관(응답률 90.6%)
조사방법	이메일을 통한 설문지 배포 및 수합
조사기간	2012. 7. 2 ~ 2012. 7. 13 2주간 (복지관 평가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8월 7일 수합종료)

설문조사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전수 96개소의 최고중간관리자(부장) 또는 중간관리자(지역복지팀 팀장 또는 과장¹⁰⁾)가 기관을 대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메일

9)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원기관 주소록(2012.1.3)을 기준으로 하였다. 단종복지관은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사회복지관'은 단종복지관을 제외한 사회복지관을 의미한다.

10) 팀명이 명확히 '지역복지팀'이 아니더라도 지역운동이나 주민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팀의 팀장 또는 과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90.6%로 상당히 높았으며, 총 87개소의 정보를 취합하였다. 조사 실시 기간은 2012년 7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예정되었지만, 사회복지관 평가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8월 7일까지 약 6주간 설문을 진행하였다.

2) 조사표 구성

조사표는 서울시 사회복지관들의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및 수행 전반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의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부문별 조사내용은 <표 3-2>와 같으며,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본 연구보고서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3-2>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기본사항	① 기관명 ② 기관주소 ③ 기관연락처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④ 지역특성 ⑤ 총 직원수 ⑥ 총 사업비 ⑦ 응답일시
사업 및 수행 전반	① 지역사회 역량강화 명시여부 ② 기관 중점사업 ③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④ 관련 교육 ⑤ 관련 지식 정보 공유 직원 ⑥ 외부지원 관련사업 참여경험 ⑦ 주관적 지역사회 역량 단계 ⑧ 주민조직 현황 ⑨ 네트워크 현황
사업 추진 시 예상	①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 ② 사업 추진 시 개선 필요 ③ 사업 추진 시 지원 필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의향	① 사업 참여 의향 ② 희망 사업 대상 및 사업 내용

2.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기본특성과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및 수행 전반,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사항,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의향에 관한 기초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및 수행 전반

①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역량강화 관련 기본사항

〈표3-3〉는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배경 및 상태를 나타낸다.

〈표3-3〉 서울시 사회복지관 특성

비연속변수		(n=87)		
구분	세부분류	n	%	
지역특성	영구임대아파트지역	26	29.9	
	일반주택지역(비영구임대)	41	47.1	
	혼합지역	20	23.0	
명시여부	명시안함	13	14.9	
	명시함	74	85.1	
지식정보 공유직원	기관장	73	83.9	
	최고중간관리자(부장급)	74	85.1	
	중간관리자(팀장급)	84	96.6	
	사업담당자	77	88.5	
	담당자 외 타직원	30	34.5	
연속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지역사업수 /개	4,2414	3,61832	17	0
지역사업담당자수 /명	1,3023	0,62621	4	0
지역사업예산 /만원	933,3180	1377,21576	8216	0
지역사회역량강화 교육수 /개	3,4943	5,35023	26	0
지역사회역량강화 교육횟수 /번	2,8373	6,44654	40,67	0
교육참가자수 /명	2,5418	3,74583	25	0
외부지원사업참여(n=38, 43.7%)				
외부지원사업수 /개	1,2874	2,54681	13	0
외부지원사업 예산액 /만원	1730,4988	3689,72142	19150	0
외부지원사업 기간 /개월	6,7783	10,54138	42	0

첫째, 사회복지관 소재 지역특성을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영구임대아파트에 속해 있는 경우는 총 26개로 약 29.9%의 비율을 보였으며, 비영구임대단지 지역소재 복지관이 47.1%, 혼합지역의 복지관이 23.0%였다.

둘째,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복지관의 비전이나 사업목표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74개소(85.1%)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지역중심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묻은 결과, 중간관리자인 팀장의 경우 87개소 중 84개소(96.6%)의 팀장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거의 모든 지역복지관련 팀장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최고중간관리자와 기관장, 사업담당자의 경우에도 모두 85%가 넘어서 관련 지식과 정보가 대부분의 직원에게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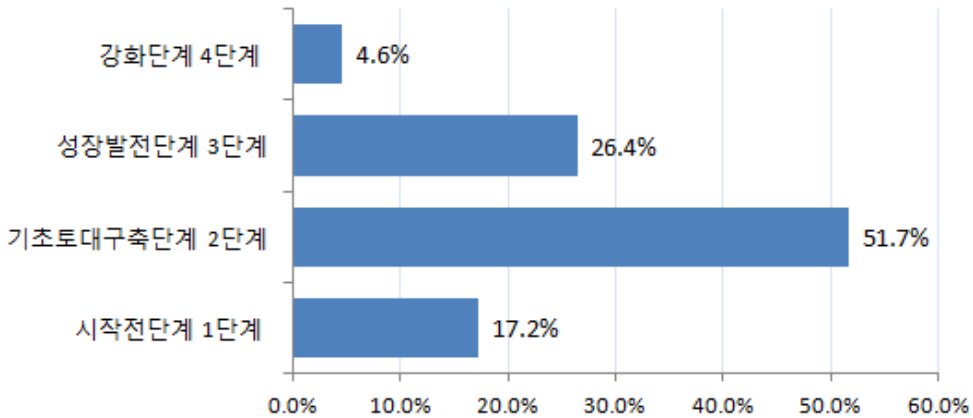
넷째, 마을공동체 사업의 외연을 갖춘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관련된 복지관 사업의 수는 평균적으로 4.2개였으며, 담당자는 1.3명, 예산은 933.3만원이었다. 여기에서의 지역사회 역량강화 관련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관점을 담은 모든 사업을 의미하며, 꼭 주민조직화 사업과 네트워크 사업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족복지사업 중 가족기능 보완사업을 진행할 때, 저소득 방과 후 아이들과 함께 벽화그리기 사업을 한다면 이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관련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은 기관당 평균 3.5개가 진행되었으며, 횟수는 교육당 2.8번, 참석자는 2.5명씩이었다.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가치와 관점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상태는 마을지향복지관을 지향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 기타 민간재단 등¹¹⁾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한 사회복지관은 전체 87개 기관 중 38개 기관으로 43.7%가 참여경험이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1.3개의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예산액은 평균적으로 1730.5만원이었으며, 지원기간은 6.8개월이었다. 하지만 외부사업의 개수, 예산액, 기

11) 중앙정부나 서울시, 각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공동모금회, 기타 중부재단 등과 같은 민간 재단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간의 표준편차는 모두 평균값보다 약 2배가 더 컸으며, 기관 간 외부사업의 경험정도의 편차도 상당히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3-1] 지역사회 역량단계

[그림3-1]은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지역사회 역량의 단계를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자체평가 하도록 한 결과이다. 2단계인 기초·토대 구축단계가 51.7%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성장발전단계인 3단계(26.4%), 시작전단계인 1단계(17.2%), 강화단계인 4단계(4.6%) 순으로 나타났다.¹²⁾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약 70%가 주민조직이나 기관 간 네트워크 시작 전이거나 시작 초기라고 밝혀서 사회복지관에서는 아직 지역사회 역량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주민조직이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지역 내에서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주관적인 지역사회 역량단계는 사회복지관의 특성¹³⁾ 중에 유일하게 상기한 외부사업의 참여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2) 시작 전 단계는 활동가나 주민리더, 주민조직이 부재하며, 민관협력네트워크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기초·토대 구축단계는 주민조직 형성이 이제 막 시작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상과 유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성장·발전단계는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조직 간 상호작용과 활동을 확대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강화단계는 주민 중심의 지역복지가 정착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경제적인 연대성과 자족성이 확보되는 단계이다(송대원·정순주(2012). 서울 마을공동체만들기 기초조사 설문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 사회복지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는 조사 결과 도출된 3가지로 구성하였다. ① 지역특성 - 임대단지, 일반, 혼합 ② 명시여부 - 명시안함, 명시함 ③ 외부사업 참여여부 - 참여안함, 참여함

<표3-4> 외부사업 참여여부별 지역사회 역량단계

구분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df	t	p
참여안함	49	1.9592	.76265	85	-2.641	.010
참여함	38	2.4737	.68721			

이를 보면, 참여했을 경우에는 지역사회 역량의 단계를 대략 2.5라고 한 반면에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관련된 외부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2.0 단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호은지(2011)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초반의 강한 자극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이어서 사회복지관 5대 사업구분 및 소분류 기준으로 기관의 중점사업을 조사하였으며, 이로써 마을공동체 사업의 외연을 가진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조직사업 비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소분류 단위사업 기준으로 2012년 전체 사업 중 사회복지관의 중점사업 1위~5위와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합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사업이 다양한 단위사업의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구분을 2개 이상으로 복수응답한 결과는 가장 앞에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표3-5> 중점사업(소분류)

세부분류	1위		2위		3위		4위		5위		1~5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가족관계증진사업	5.8	5	10.5	4	7.1	6	5.8	8	8.1	3	7.5	4
가족기능보완	15.1	3	19.8	1	15.3	2	12.8	3	15.1	2	15.6	2
가정문제해결치료	16.3	2	14.0	3	15.3	2	14.0	2	7.0	4	13.3	3
부양가족지원	1.2	12	0.0	19	0.0	17	0.0	17	0.0	20	0.2	23
급식서비스	8.1	4	1.2	12	8.2	5	0.0	17	7.0	4	4.9	7
보건의료서비스	2.3	9	2.3	8	1.2	14	2.3	12	2.3	11	2.1	11
경제적지원	1.2	12	0.0	19	0.0	17	1.2	13	2.3	11	0.9	17
일상생활지원	1.2	12	0.0	19	3.5	9	3.5	11	1.2	15	1.9	12
정서서비스	4.7	8	4.7	7	9.4	4	8.1	4	5.8	7	6.5	5
일시보호서비스	0.0	20	1.2	12	0.0	17	0.0	17	0.0	20	0.2	23
재가복지봉사서비스	0.0	20	2.3	8	2.4	12	1.2	13	2.3	11	1.6	13
주민조직화및교육	24.4	1	18.6	2	16.5	1	16.3	1	19.8	1	19.1	1
복지네트워크구축	5.8	5	8.1	5	4.7	7	5.8	8	7.0	4	6.3	6
주민복지증진	1.2	12	2.3	8	0.0	17	7.0	6	5.8	7	3.3	10
자원봉사자양성및후원자개발조직	2.3	9	2.3	8	3.5	9	7.0	6	5.8	7	4.2	9
아동청소년기능교육	1.2	12	1.2	12	0.0	17	4.7	10	1.2	15	1.6	13
성인기능교실	1.2	12	1.2	12	0.0	17	0.0	17	0.0	20	0.5	20
노인여가문화	1.2	12	7.0	6	4.7	7	8.1	4	3.5	10	4.9	7
문화복지	0.0	20	1.2	12	1.2	14	1.2	13	1.2	15	0.9	17
직업기능훈련	0.0	20	1.2	12	1.2	14	0.0	17	0.0	20	0.5	20
취업알선	0.0	20	0.0	19	0.0	17	1.2	13	1.2	15	0.5	20
직업능력개발	1.2	12	1.2	12	2.4	12	0.0	17	1.2	15	1.2	16
자활공동체육성	1.2	11	0.0	19	0.0	17	0.0	17	2.3	11	0.7	19
사례관리	4.7	7	0.0	19	3.5	9	0.0	17	0.0	20	1.6	13
n	86		86		86		86		86		435	

2위를 제외한 모든 순위에서 주민조직화 및 교육 사업이 사회복지관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이 밝혀졌다. 2012년 기준 전체 사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수

행하고 있는 사업 1위를 기준으로 하면, 각 기관이 생각하는 중점사업은 주민조직화 및 교육사업이 24.4%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가정문제해결치료(16.3%), 가족기능보완(15.1%), 급식서비스(8.1%), 가족관계증진사업(5.8%) 순이었다.

사례관리는 현 사회복지사업법의 기준에 소분류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조사 결과 기존 소분류 사업으로는 분류될 수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였다. 이를 5대 사업분야로 재분류할 경우¹⁴⁾, 사회복지관의 중점사업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3-6> 중점사업(대분류)

세부분류	1위		2위		3위		4위		5위		1~5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가족복지사업	36.0	1	41.9	1	32.6	1	30.2	2	26.7	2	33.5	1
지역사회보호사업	15.1	3	11.6	3	26.7	2	15.1	3	19.8	3	17.7	3
지역사회조직사업	32.6	2	30.2	2	26.7	2	34.9	1	33.7	1	31.6	2
교육문화사업	3.5	6	10.5	4	4.7	4	14.0	4	5.8	5	7.7	4
자활사업	2.3	7	2.3	6	3.5	5	1.2	6	4.7	6	2.8	6
사례관리	4.7	5	0.0	7	3.5	5	0.0	7	0.0	7	1.6	7
혼합	5.8	4	3.5	5	2.3	7	4.7	5	9.3	4	5.1	5
n	86		86		86		86		86		435	

1위로 응답한 중점사업을 기준으로 서술하면, 가족복지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생각하는 복지관은 총 31개로 36.0%였으며, 이어서 지역사회조직사업 32.6%, 지역사회보호사업 15.1% 순이었다. 혼합영역은 단위사업이 하나의 영역으로 수렴되지 않는 것으로 전체 5.8%의 기관이 다양한 사업의 영역을 넘나드는 단위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1위를 기준으로 할 때와는 달리 1위에서 5위까지 전체 중점사업을 통합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 가장 비중이 높게 나온 중점사업은 가족복지사업이었다. 435개

14) 각각의 단위사업들은 영역별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보완, 가정문제해결치료, 부양가족지원이 '가족복지사업'이며,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는 '지역사회보호사업'이다. 주민조직화및교육,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복지증진, 자원봉사자양성및후원자개발조직은 '지역사회조직사업'이며, 아동청소년기능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여가문화, 문화복지는 교육문화사업이고, 그 외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육성은 '자활사업'으로 분류된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2), 2012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

의 중점사업 중에서 33.5%가 가족복지사업을 기관 내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단위사업의 항목수가 가족복지사업이 가장 많이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3기능으로 재분류 하면 <표3-7>와 같다.

<표3-7> 중점사업(신분류)

세부분류	1위		2위		3위		4위		5위		1~5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사례관리기능	4.7	3	0.0	4	3.5	3	0.0	4	0.0	4	1.6	4
서비스제공기능	58.1	1	68.6	1	68.6	1	61.6	1	57.0	1	62.8	1
지역조직화기능	32.6	2	30.2	2	26.7	2	34.9	2	33.7	2	31.6	2
혼합 ¹⁵⁾	4.7	3	1.2	3	1.2	4	3.5	3	9.3	3	4.0	3
n	86		86		86		86		86		435	

가장 많은 기존 단위사업들이 통합된 기능인 서비스제공기능이 58.1%로 가장 많았으며¹⁶⁾, 지역조직화기능 영역이 32.6%였고, 최근의 사회복지관의 중요기능으로 언급되어 신설된 사례관리기능이 4.7%였다. 1위에서 5위까지 통합한 결과도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② 사회복지관 주민조직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

2장 2절에서 상술했듯이,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 중 외연적으로 가장 유사한 것은 ‘주민조직화’와 ‘복지네트워크 구축’이다.

먼저 기존 사회복지관의 사업 중 마을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관

15) 혼합이란 현재제로 분류시 서비스제공기능-지역조직화기능, 지역조직화기능-사례관리기능 등으로 둘 또는 세 영역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6) 서비스제공기능에는 가족기능강화(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등 이용자 특성 반영사업), 지역사회보호(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교육문화(아동청소년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여가문화, 문화복지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기타 특화사업) 등 기존 소분류 사업의 대부분은 서비스제공기능 안으로 수렴되었다.

에서 운영하거나 인력 또는 재정적 도움을 준 주민조직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8> 주민조직

(n=87)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대
기관당 주민조직수 /개	5.1379	6.04859	4.0000	47
종류				
동아리 /개	0.7391	1.84981	0.0000	11
자조모임 /개	0.8161	1.26241	0.0000	7
봉사조직 /개	3.0230	4.79820	2.0000	37
마을조직 /개	0.5057	0.83351	0.0000	4
주민조직 유지기간 /개월	40.9921	30.10740	31.0000	143
주민조직 모임빈도 /주당횟수	0.8108	1.11616	0.5800	9.75
주민조직 인원 /명	27.3861	87.76085	11.8750	657
주민조직 인큐베이팅수 /개	0.3563	1.17114	0.0000	8

동아리, 자조모임, 봉사조직, 마을조직을 모두 포함하여¹⁷⁾ 하나의 사회복지관의 주민조직의 수는 평균 5.1개로 최대 47개의 주민조직이 하나의 사회복지관에서 있었으며, 주민조직이 전혀 운영되지 않는 복지관도 2곳 존재했다. 극단치로 인한 평균값 왜곡을 줄이기 위해 중앙값(median)을 계산한 결과 하나의 복지관에 4개의 주민조직이 있었다.

둘째, 주민조직의 종류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을 경우, 동아리가 한 기관당 0.7개였으며, 자조모임의 경우 평균 0.8개였다. 자원봉사조직이 사회복지관의 주민조직 형태 중 가장 많았는데, 한 기관당 평균 3.0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조직은 평균 0.5개로 가장 적게 존재했다. 따라서 이들 조직을 발전시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씨앗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 주민조직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들의 취미나 기호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예, 기타소모임), 복지관을 거점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조모임(예, 한부모 여성 자조모임), 복지관을 매개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봉사조직(예, 환경미화봉사대), 지역사회 이슈 찾거나 주민조직끼리의 연합활동을 하는 등의 마을조직으로 나뉜다. 마을조직은 동아리, 자조모임, 봉사조직과는 성격이 다른 기준에 없던 개념으로 본 연구 진행을 위해서 새로 조작화하였다.

셋째, 주민조직의 유지기간은 평균 41.0개월로 약 3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30.1개월로 매우 컸다. 최대 유지기간이 143개월로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주민조직도 있었으며, 극단치로 인한 평균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중앙값을 살펴본 결과, 중앙값은 31개월이었다. 그리고 일주일당 주민조직의 모임빈도는 평균 0.8회였으며, 하나의 주민조직에 참여하는 인원은 평균 27명이었는데, 최대값이 평균을 높인 결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총 14개의 사회복지관에서 주민조직들이 복지관을 벗어나 외부로 독립하여 인큐베이팅 되었으며, 하나의 주민조직도 인큐베이팅 되지 못한 86개 사회복지관을 포함하여 한 기관당 평균 0.4개의 주민조직이 독립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앙값은 0.0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주민조직은 사회복지관 밖으로 독립되어 나가지 못하고, 아직 공간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고, 운영 및 회계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두 번째 역량인 사회복지관의 복지네트워크 구축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3-9> 네트워크

구분	세부분류	n	%
네트워크유형 (n=352 네트워크 총개수)	정보교류 및 공유	268	76.14
	기금 지원	74	21.02
	기금 외 자원공유	129	36.65
	일회성 공동사업	133	37.78
	정기적 공동사업	269	76.42
참여적극성 (n=349 결측값 제외)	전혀 적극적이지 않음	2	0.57
	적극적이지 않음	7	2.01
	보통임	43	12.32
	적극적임	150	42.98
	매우 적극적임	147	42.12
도움정도 (n=348 결측값 제외)	전혀 도움되지 않음	5	1.44
	거의 도움되지 않음	5	1.44
	별 영향이 없음	21	6.03
	어느정도 도움이 됨	148	42.53
	매우 도움이 됨	169	48.56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대
기관당 네트워크 수 /개	4.1954	2.96035	4.0000	14
네트워크당 참여기관 수 /개	9.5110	7.90688	7.7778	54

먼저 서울시 87개 사회복지관이 포함되어 운영되는 기관 간 네트워크의 총 개수는 352개로서 한 기관당 네트워크의 수는 평균 4.2개였고, 최대 14개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네트워크별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관(컨소시엄)의 수는 평균 9.5개였으며, 하나의 네트워크에 최대 54개의 기관이 참여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각각 극단치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중앙값을 계산하였을 경우, 기관당 네트워크의 수는 4.0개였고, 하나의 네트워크당 참여기관의 수는 7.8개였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의 유형을 5개로 나누어 사회복지관들이 연계하고 있는 모든 네

트위크의 유형을 중복으로 대답하게 하였을 경우, 정기적 공동사업(예, 정기모임)이 269개(76.4%)의 네트워크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어서 정보교류 및 공유가 268개(76.1%), 일회성 공동사업이 37.8%, 기금 외 자원공유가 36.7%, 기금지원이 21.0%로 나타났다. 호은지(2011)에 의하면 정보교류 및 공유가 사회복지관이 관계맺음을 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네트워크 방식이며, 계약에 의한 정기적 공동사업이 가장 높은 수위의 네트워크 방식인데, 본 연구에서는 정기적 공동사업의 경우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그 이유에 대해 고찰해 본 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가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정기적인 회의 때문에 공동사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참여적극성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이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네트워크가 타사업에 미치는 도움정도 또한 대부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바탕인 네트워크 형성의 정도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강제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협의체, 교육복지네트워크, 재가복지연합회 등이 많아 아직은 자발성이 부족한 네트워크가 구성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강제적인 네트워크를 넘어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2) 사업 진행 예상

①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들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들의 정도와 가장 심각한 문제 항목에 대해 물었다. 각 항목에 대해 사회복지관들이 느끼는 문제들의 정도와 사회복지관의 특성별로 느끼는 문제 정도가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순위에 따라 어떠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지 파악하였다.

<표3-10> 사업 추진 시 예상문제

연 번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 지 않다 %	그렇 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1	주민참여와 주민 리더십의 문제	1,16	6,98	32,56	27,91	31,40
2	기관 인력 부족	1,18	7,06	17,65	32,94	41,18
3	기관의 사업추진 지식과 노하우 부족	3,49	20,93	25,58	30,23	19,77
4	지역사회에서 연대할 기관 및 단체 부족	6,98	34,88	31,40	18,60	8,14
5	지역사회 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보 부족	6,98	32,56	38,37	16,28	5,81
6	행정과의 소통 부족	4,65	18,60	36,05	25,58	15,12
7	행정주도형 공모사업방식의 문제	2,33	8,14	27,91	31,40	30,23
8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거공동체 해체	25,88	22,35	23,53	15,29	12,94
9	기관장(단체장)의 의지 부족	41,86	39,53	11,63	5,81	1,16
10	사업추진 예산 부족	1,16	12,79	29,07	25,58	31,40
11	타사업의 업무과중 문제	0,00	2,33	11,63	41,86	44,19
12	기타	0,00	0,00	0,00	0,00	100,00

* 기타 예상문제에는 '단기, 성과위주의 평가', '지역사회주민과 기관간 갈등' 이 있음.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의 경우 1점에서 5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파악한 결과, 문제라고 느끼는 경우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이 50%를 넘는 사항이 6가지였다. 주민참여와 리더십의 문제, 기관의 인력과 예산,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행정주도형 공모사업방식, 업무과중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높았다. 기타로 언급된 문제는 평가구조와 주민과 기관 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어서 이렇게 문제를 예상하는 정도가 사회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9.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표3-11> 사업 추진 시 예상문제 정도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지역특성	명시여부	참여여부
주민참여와 주민 리더십의 문제				
기관 인력 부족				
기관의 사업추진 지식과 노하우 부족				
지역사회에서 연대할 기관 및 단체 부족				
지역사회 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보 부족				
행정과의 소통 부족				
행정주도형 공모사업방식의 문제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거공동체 해체				
기관장(단체장)의 의지 부족				
사업추진 예산 부족				
타사업의 업무과중 문제				
기타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결과는 음영처리함(Pearson $\chi^2 < .05$).

독립변수별로 사업추진시 예상문제의 정도(5점 리커트 척도)의 차이에 유의미한 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더니, 모든 예상문제들이 사회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몇몇의 사회복지관 특성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3-12> 지역특성별 기관 및 단체 부족 문제예상 정도 차이

지역사회에서 연대할 기관 및 단체 부족	영구임대 아파트지역		일반주택지역		혼합지역		전체	
	n	%	n	%	n	%	n	%
전혀그렇지않다	0	0.0	4	9.8	2	10.0	6	7.0
그렇지 않다	5	20.0	14	34.1	11	55.0	30	34.9
보통이다	14	56.0	9	22.0	4	20.0	27	31.4
그렇다	4	16.0	9	22.0	3	15.0	16	18.6
매우그렇다	2	8.0	5	12.2	0	0.0	7	8.1
합계	25	100.0	41	100.0	20	100.0	86	100.0
통계치	Pereson $\chi^2=16.122$ df=8 유의확률=0.041							

상대적으로 혼합지역의 경우에는 그렇다와 매우그렇다(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것을 더하면 15.0%임에 반해, 영구임대아파트지역은 24.0%, 일반주택지역은 34.2%로 문제로서 연대할 기관 및 단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표3-13> 지역사회 역량강화 명시여부별 기관 및 단체 부족 문제예상 정도 차이

지역사회에서 연대할 기관 및 단체 부족	명시안함		명시함		전체	
	n	%	n	%	n	%
전혀그렇지않다	3	23,1	3	4,1	6	7,0
그렇지 않다	6	46,2	22	30,1	28	32,6
보통이다	2	15,4	31	42,5	33	38,4
그렇다	2	15,4	12	16,4	14	16,3
매우그렇다	0	0,0	5	6,8	5	5,8
합계	13	100,0	73	100,0	86	100,0
통계치	Pereson $\chi^2=9,567$ df=4 유의확률=0,048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미션이나 비전, 사업목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연대할 기관 및 단체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느끼는 것(그렇다, 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이 15.4%인 반면에 명시한 경우에는 23.3%가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는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연대기관의 부족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3-14> 외부지원 사업 참여여부별 행정과의 소통 부족 문제예상 정도 차이

행정과의 소통 부족	참여안함		참여함		전체	
	n	%	n	%	n	%
전혀그렇지않다	1	2.0	3	8.1	4	4.7
그렇지 않다	4	8.2	12	32.4	16	18.6
보통이다	21	42.9	10	27.0	31	36.0
그렇다	16	32.7	6	16.2	22	25.6
매우그렇다	7	14.3	6	16.2	13	15.1
합계	49	100.0	37	100.0	86	100.0
통계치	Pereson $\chi^2=12.087$ df=4 유의확률=0.017					

중앙정부나 서울시, 자치구 등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행정과의 소통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약 32.4%가 그렇다 또는 매우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다. 반면에 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46.9%가 행정과의 소통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정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극을 통한 사업진행의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15> 지역특성별 주거공동체 해체 문제예상 정도 차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거공동체 해체	영구임대 아파트지역		일반주택지역		혼합지역		전체	
	n	%	n	%	n	%	n	%
전혀그렇지않다	13	54.2	6	14.6	3	15.0	22	25.9
그렇지 않다	7	29.2	8	19.5	4	20.0	19	22.4
보통이다	3	12.5	11	26.8	6	30.0	20	23.5
그렇다	1	4.2	7	17.1	5	25.0	13	15.3
매우그렇다	0	0.0	9	22.0	2	10.0	11	12.9
합계	24	100.0	41	100.0	20	100.0	85	100.0
통계치	Pereson $\chi^2=21.891$ df=8 유의확률=0.005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기존 주거공동체 해체에 대한 예상도 사회복지관의 소재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공동체 해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 또는 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은 전체 약 28.2%였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이 응답이 매우 낮게 4.17%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지역나 혼합지역의 경우에는 각각 39.0%, 35.0%로 나타났다. 이 이유에 대해서 추론하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주거이동이 더 낮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조직화를 구성하기가 더 용이하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직장 변동 등에 의해 주거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잦기 때문에 마을이라는 정주공간에 대한 인식이 더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12가지 문제 사항 중에서 문제의 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을 1위, 2위, 3위로 나누어 결과를 도출하였고, 1위에서 3위까지 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사회복지관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진행시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표3-16> 사업 추진 시 예상문제 순위

세부분류	1위		2위		3위		1~3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주민참여와 주민 리더십의 문제	24.4	2	14.0	4	11.6	4	16.5	3
기관 인력 부족	26.7	1	18.6	2	8.1	6	17.6	2
기관의 사업추진 지식과 노하우 부족	7.0	4	8.1	6	11.6	4	8.8	6
지역사회에서 연대할 기관 및 단체 부족	2.3	9	3.5	7	1.2	9	2.3	9
지역사회 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보 부족	0.0	12	3.5	7	1.2	9	1.5	10
행정과의 소통 부족	3.5	7	2.3	9	3.5	7	3.1	8
행정주도형 공모사업방식의 문제	5.8	6	9.3	5	18.6	2	11.1	5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거공동체 해체	7.0	4	2.3	9	3.5	7	4.2	7
기관장(단체장)의 의지 부족	1.2	10	1.2	11	0.0	11	0.8	11
사업추진 예산 부족	3.5	7	19.8	1	17.4	3	13.4	4
타사업의 업무과중 문제	17.4	3	17.4	3	23.3	1	19.2	1
기타	1.2	10	0.0	12	0.0	11	0.4	12
n	86		86		86		258	

문제수준이 높은 항목의 1위로 언급한 대답을 분석한 결과, 기관 인력 부족에 대해서 26.7%의 사회복지관이 염려하고 있었다. 이어서 주민참여와 주민 리더십의 문제(24.4%), 타사업의 업무과중 문제(17.4%), 기관의 사업추진 지식과 노하우 부족(7.0%),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거공동체 해체(7.0) 순으로 나타났다. 2위로 언급한 문제 중,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부족(19.8%)이었으며, 3위로 언급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은 타사업의 업무과중 문제(23.35)로 도출되었다. 1위, 2위, 3위로 언급된 문제 사항들을 통합한 결과도 유사하였다. 타사업의 업무과중 문제가 19.2%, 기관 인력 부족이 17.6%, 주민참여와 주민 리더십의 문제가 16.5%로 나타났다.

②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추진시 개선이 필요한 점들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와 유사하지만, 문제의 수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었다. 개선방안들의 필요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사회복지관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표3-17> 사업 추진 시 개선필요

연 번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 지 않다 %	그렇 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1	네트워크 가능 기관과 단체 수 증가	2.30	13.79	43.68	27.59	12.64
2	각 네트워크 정기적인 모임 추진	1.16	4.65	22.09	47.67	24.42
3	각 기관 간 자료 개방 및 교환의 원활한 수행	0.00	2.30	22.99	42.53	32.18
4	공통 전산망 구축	4.65	19.77	36.05	26.74	12.79
5	네트워크 통합 관리 체계 마련	1.15	6.90	26.44	34.48	31.03
6	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4.60	4.60	17.24	37.93	35.63
7	교육을 통한 사회복지사 인식 개선	0.00	5.75	19.54	41.38	33.33
8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자원량 증가	0.00	4.65	22.09	31.40	41.86
9	각 기관 직원들의 개인적 친분관계 강화	0.00	5.75	26.44	49.43	18.39
10	직원의 기관 내 업무 양 적절하게 조절	0.00	2.30	6.90	48.28	42.53
11	협력체계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1.15	1.15	8.05	35.63	54.02
12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0.00	1.16	4.65	33.72	60.47
13	기타	0.00	0.00	0.00	0.00	100.00

* 기타 개선이 필요한 것에는 '지역비전, 의제개발', '시와 구의 지원증대', '복지관 평가 합리적 개선' 등이 있음.

먼저, 각 항목별로 개선이 필요한 정도에 대해 물은 결과, 네트워크의 정기적인 모임 추진, 자료 개방 및 교환, 통합 관리체계, 기관장의 협조, 사회복지사 교육, 지역사회 자원량 증가, 친분관계 강화, 업무량 조절, 민관거버넌스 구축, 주민교육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기타의견으로는 비전 및 의제개발, 시와 구의

지원 증대, 평가개선 등을 내놓았다.

이어서 사회복지관의 특성에 따라서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표3-18> 사업 추진 시 개선필요 정도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지역특성	명시여부	참여여부
네트워크 가능 기관과 단체 수 증가				
각 네트워크 정기적인 모임 추진				
각 기관 간 자료 개방 및 교환의 원활한 수행				
공동 전산망 구축				
네트워크 통합 관리 체계 마련				
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교육을 통한 사회복지사 인식 개선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자원량 증가				
각 기관 직원들의 개인적 친분관계 강화				
직원의 기관 내 업무 양 적절하게 조절				
협력체계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기타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결과는 음영처리함(Pearson $\chi^2 < .05$).

독립변수별로 사업추진시 개선이 필요한 정도(5점 리커트 척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더니,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미션이나 비전, 사업목표에 명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협력체계를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3-19> 지역사회 역량강화 명시여부별 민관거버넌스 구축 필요 정도 차이

협력체계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명시안함		명시함		전체	
	n	%	n	%	n	%
전혀그렇지않다	1	7.7	0	0.0	1	1.1
그렇지 않다	0	0.0	1	1.4	1	1.1
보통이다	0	0.0	7	9.5	7	8.0
그렇다	2	15.4	29	39.2	31	35.6
매우그렇다	10	76.9	37	50.0	47	54.0
합계	13	100.0	74	100.0	87	100.0
통계치	Pereson $\chi^2=10,340$ df=4 유의확률=0,035					

분석 결과, 비전이나 미션, 사업목표에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민관거버넌스가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92.3%의 사회복지관이 응답했으며, 명시한 경우는 89.2%의 사회복지관이 그렇게 응답하였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1위, 2위, 3위 각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개선필요 사항과 1위~3위를 통합한 개선필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3-20> 사업 추진 시 개선필요 순위

세부분류	1위		2위		3위		1~3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네트워크 가능 기관과 단체 수 증가	5.7	7	6	13	1.1	10	2.7	11
각 네트워크 정기적인 모임 추진	10.3	5	11	9	0.0	11	4.6	8
각 기관 간 자료 개방 및 교환의 원활한 수행	6.9	6	6	6	9.2	6	7.3	6
공동 전산망 구축	1.1	13	11	11	0.0	11	1.1	13
네트워크 통합 관리 체계 마련	13.8	2	5	6	14.9	2	11.5	4
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4.6	8	4	11	4.6	8	3.8	9
교육을 통한 사회복지사 인식 개선	4.6	8	8	5	5.7	7	6.5	7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자원량 증가	3.4	10	2	4	10.3	5	8.0	5
각 기관 직원들의 개인적 친분관계 강화	2.3	12	3	8	3.4	9	3.4	10
직원의 기관 내 업무 양 적절하게 조절	12.6	4	1	2	14.9	2	14.6	3
협력체계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13.8	2	9	3	20.7	1	16.5	2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17.2	1	20.7	1	13.8	4	17.2	1
기타	3.4	10	3.4	9	1.1	10	2.7	11
n	87		87		87		261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관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1위를 기준으로 가장 큰 욕구는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으로 17.2%의 복지관이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할 욕구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네트워크 통합 관리체계 구축’ (13.8%), ‘민관거버넌스 구축’ (13.8%), ‘업무량 조절’ (12.6%), ‘정기적 모임’ (10.3%)순으로 응답하였다. 2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 또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20.7%)이었으며, 3위에서는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20.7%로 가장 많았다. 한편 1위, 2위, 3위를 통합한 결과도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17.2%가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이 가장 시급한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어서 ‘민관거버넌스 구축’ (16.5%), ‘직원 업무량 조절’ (14.6%)로 나타났다.

③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추진시 지원이 필요한 점들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시복지재단의 지원이 가능하다

는 것을 가정하고, 사회복지관 현장에서 각각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물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표3-21> 사업 추진 시 지원필요

구분	① 전혀 그렇 지 않다 %	② 그렇 지 않다 %	③ 보통 이다 %	④ 그렇 다 %	⑤ 매우 그렇 다 %	
1	주민들에게 기관 활동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지원	1.15	4.60	18.39	44.83	31.03
2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별 기관 교육과 컨설팅, 연수를 통한 기관 및 실무자 역량강화	1.10	0.00	3.45	39.08	56.32
3	지역사회 역량강화 현황조사 및 연구를 통한 마을공동체 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모델보급	0.00	1.15	14.94	36.78	47.13
4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0.00	0.00	4.65	29.07	66.28
5	사업추진과정의 갈등 조정 및 중재	1.15	5.75	37.93	48.28	6.90
6	민관협력을 위해 공동워크숍, 정기회의를 통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1.15	2.30	17.24	49.43	29.89
7	기타	0.00	0.00	0.00	50.00	50.00

* 기타 지원이 필요한 것에는 '지역활동가 포상제도', '주민역량강화 강사풀 구축' 이 있음.

서울시복지재단의 지원을 가정했을 때, 각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서 대부분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특히 교육을 통한 실무자 역량강화와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을 합했을 경우 95%가 넘어, 이에 대한 욕구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기타 지원이 필요한 것에는 지역활동가 포상제도, 주민역량강화 강사풀 구축을 지원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회복지관의 특성별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시 지원이 필요한 정도에 차이를 미치는 변수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7개의 독립변수 모두가 7개의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곧 사회복지관의 특성에 상관없이 지원이 필요한 정도가 유사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원이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위, 2위, 3위 나누어 물었고, 이의 결과들을 모두 통합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22> 사업 추진 시 지원필요 순위

세부분류	1위		2위		3위		1~3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주민들에게 기관 활동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지원	14.9	4	11.5	4	11.8	4	12.6	5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별 기관 교육과 컨설팅, 연수를 통한 기관 및 실무자 역량강화	35.6	1	32.2	1	10.6	5	26.1	1
지역사회 역량강화 현황조사 및 연구를 통한 마을공동체 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모델보급	18.4	3	25.3	3	15.3	3	19.5	3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26.4	2	27.6	2	23.5	2	25.7	2
사업추진과정의 갈등 조정 및 중재	1.1	6	0.0	7	1.2	6	0.8	7
민관협력을 위해 공동워크숍, 정기회의를 통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2.3	5	2.3	5	36.5	1	13.4	4
기타	1.1	6	1.1	6	1.2	6	1.1	6
n	87		87		87		261	

서울시복지재단이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가정할 때,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위 모두 가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분은 기관 및 실무자 역량강화였다(각 35.6%, 32.2%). 그리고 두 번째로 응답한 것은 사업비 재정 지원이었다(각각 26.4%, 27.6%). 3위의 경우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36.5%)이었다.

1, 2, 3위를 통합하였을 경우, 지원을 바라는 가장 큰 부분은 기관 및 실무자 역량강화를 가장 큰 욕구로 지목한 사회복지관이 26.1%였으며, 이어서 재정지원이 25.7%, 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모델보급이 19.5%,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이 13.4%, 인지도 향상 홍보지원이 12.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수준, 개선방안, 희망지원 응답결과를 고려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후술할 것이다.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의향

①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여부 의향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의향은 다음과 같다.

<표3-2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의향

(n=87)			
구분	세부분류	n	%
참여의향	참여의향 있음	79	90.8
	참여의향 없음	8	9.2

먼저, 마을공동체 사업에 87개 사회복지관 중 79개의 기관(90.8%)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90.8%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8개소의 이유는 다양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의 자생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기관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외에도 기관의 의지와 역량이 부족해서 참여할 수 없다는 기관도 있었다. 이외에도 과도한 실적 경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업 참여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경우도 있었다.

②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희망 대상

이어서 사회복지관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대상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2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희망 대상

세부분류	1위		2위		3위		1~3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일반층(최저생계비150%초과)	53.1	1	50.0	1	63.8	1	55.69	1
차상위층(150%이하)	29.6	2	36.6	2	22.5	2	29.5	2
국민기초생활수급층(100%이하)	17.3	3	13.8	3	13.8	3	14.9	3
n	81		80		80		241	

1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는 일반 시민이 53.1%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가장 적었다(17.3%). 이 결과는 2위, 3위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1위에서 3위를 통합해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대상은 소득의 기준을 넘어 일반 주민들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③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희망 내용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희망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이는 크게 복지, 경제, 문화, 환경 및 생태, 기타로 나뉘며, 소분류로 나누어 총 15가지 사업내용으로 구분된다. 서울시 사회복지관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할 경우, 희망하는 사업내용의 순위별 내용은 아래 <표3-25>와 같다.

<표3-25> 서울시 마을공동체 희망 사업 내용

	1위		2위		3위		1~3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취약계층긴급지원사업	36.1	1	9.8	5	17.1	2	21.1	1
상담사업	4.8	8	2.4	11	8.5	3	5.3	8
보건의료지원사업	1.2	11	8.5	6	2.4	12	4.0	9
공동육아 돌봄사업	9.6	4	11.0	3	3.7	9	8.1	4
노동 및 인권사업	0.0	14	1.2	12	2.4	12	1.2	15
주민일자리사업	10.8	2	15.9	2	3.7	9	10.1	3
신용 및 지역통화사업	6.0	5	7.3	7	6.1	7	6.5	6
지역주민주체 평생교육사업	10.8	2	17.1	1	23.2	1	17.0	2
지역문화예술사업	6.0	5	4.9	8	8.5	3	6.5	6
환경·에너지·재활용사업	6.0	5	11.0	3	7.3	5	8.1	4
도시공동텃밭사업	1.2	11	3.7	9	3.7	9	2.8	11
조사연구사업	0.0	14	1.2	12	6.1	7	2.4	12
지역주거 지역기반시설 관리운영사업	1.2	11	3.7	9	.0	15	1.6	13
지역안전사업	3.6	9	1.2	12	6.1	6	3.6	10
기타	2.4	10	1.2	12	1.2	14	1.6	13
n	83		82		82		247	
복지	51.8	1	32.9	1	34.1	1	39.7	1
경제	16.9	2	23.2	2	9.8	5	16.6	3
문화	16.9	2	22.0	3	31.7	2	23.5	2
환경생태	7.2	4	14.6	4	11.0	4	10.9	4
기타	7.2	4	7.3	5	13.4	3	9.3	5
n	83		82		82		247	

* 희망사업내용 기타에는 '지역주민 연합 네트워크 구축사업', '청소년카페'가 있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희망하고 있는 소분류 사업내용은 1위를 기준으로 할 때,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이 36.1%로 가장 높았으며, 주민일자리사업(10.8%), 지역주민주체 평생교육사업(10.8%), 공동육아돌봄사업(9.6%), 신용 및 지역통화사업(6.0%), 지역문화예술사업(6.0%) 순으로 나타났다. 2, 3위의 경우에는 가장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이 지역주민주체 평생교육사업(각 17.1%, 23.2%)이었다. 1위에서 3위 응답 결과를 모두 수합하여 %를 계산한 결과,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이 21.1%로 가장 높았으나, 2위는 17.0%로 지역주민주체 평생교육사업이었다. 상기한 <표3-20> 사업 추진 시 개선필요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주민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대분류로 다시 재분류했을 경우¹⁸⁾, 1위를 기준으로 ‘복지’를 마을공동체 사업 내용으로 생각하는 사회복지관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16.1%), 문화(16.1%), 환경·생태(6.9%), 기타(6.9%) 순으로 나타났다. 1위에서 3위를 통합한 결과 또한 유사하게 도출되어서, 마을공동체 사업 대상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업 내용은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 등 기존의 사회복지관에서 행했던 사회적 약자 중심의 사업을 생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희망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의 특성 3가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 한 결과, 대분류 1위에서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관 비전이나 목표를 명시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8)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 상담사업, 보건의료지원사업, 공동육아 돌봄사업, 노동및인권사업을 ‘복지’ 영역으로, 주민일자리사업, 신용및지역통화사업을 ‘경제’ 영역으로, 지역주민주체 평생교육사업, 지역문화예술사업을 ‘문화’ 영역으로, 환경에너지재활용사업을 ‘환경·생태’ 영역으로, 조사연구사업, 지역주거지역기반시설관리운영사업, 지역안전사업, 기타를 ‘기타’ 영역으로 재분류하였다.

<표3-26> 지역사회 역량강화 명시여부별 민관거버넌스 구축 필요 정도 차이

희망 사업 내용(대분류)	명시안함		명시함		전체	
	n	%	n	%	n	%
복지	3	27,3	40	55,6	43	51,8
경제	3	27,3	11	15,3	14	16,9
문화	2	18,2	12	16,7	14	16,9
환경·생태	3	27,3	3	4,2	6	7,2
기타	0	0,0	6	8,3	6	7,2
합계	11	100,0	72	100,0	83	100,0
통계치	Pereson $\chi^2=10,264$ df=4 유의확률=0,036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미션이나 비전, 사업목표에 명시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절대수가 적기는 하지만 복지, 경제, 문화, 환경·생태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사회복지관 현장을 방문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실제 사회복지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실태 및 욕구에 대해 물어보았다.

3. 현장조사 개요

마을공동체 형성 실태에 대한 양적 조사인 설문조사와 더불어 이와는 별개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조사목적 및 대상

조작화와 수량화가 어려운 마을공동체 개념의 특성상 양적조사인 설문조사의 결과

로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양적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3-27> 현장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서울시 사회복지관 전수 96개
표본추출 방법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선정 + 눈덩이 표집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수행여부 및 인터뷰 과정에서 추천)
조사대상	금천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도봉구, 송파구, 중랑구, 강동구, 마포구, 강남구, 영등포구, 중구, 양천구, 성동구, 서대문구, 광진구, 노원구, 구로구 각 1개소 사회복지관 관악구, 강서구 각 2개소 사회복지관 총 25개 사회복지관 ¹⁹⁾
조사기간	2012. 6. 27 ~ 2012. 8. 6 약 6주간
조사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

모집단은 서울시의 사회복지관 전수 96개였으며, 자치구별 다른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 구별로 1개소 이상의 기관을 방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 기준 안에서 주민조직화,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고, 인터뷰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추천을 받아 그 기관을 방문하는 식의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개소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였다.

사회복지관의 여름휴가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서울시복지재단 내 지역공동협력팀 2인이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모두 녹음되었으며, 전사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19) 용산구과 종로구의 사회복지관은 기관의 일정이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현장방문을 거절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조사표 구성

현장조사의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크게 5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현장에서 생각하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의 정의. 둘째, 기관이 속한 지역의 사례. 셋째,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정도. 넷째, 사업을 수행할 때 이를 어렵게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점을 물어보았다. 본 연구보고서 부록에 질문지를 첨부하였다.

4. 현장조사 결과

1)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

<표3-28>은 마을공동체 관련 개념들에 대해 응답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3-28> 마을공동체 개념 정의

마을은 ()다	마을공동체는 ()다	지역사회 복지는()다	지역사회 역량강화는()다	주민조직화는 ()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다
주민들의 삶터	주민의 의지 필요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	-	어렵다	동일한 목표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
하나, 큰집, 삶터	필수, 기초적인사업	사회복지의 두 다리, 복지관 핵심사업	마을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사안	함께하기, 마을의 의사소통, 네트워킹	조직 만들고, 견고히 하는 활동,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시작
그냥 마을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과정	주민에 의해 대안가치를 공동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	사람들-주민, 주민지도력의 역량강화	주민 스스로에 의한 주민, 이웃, 지역사회의 변화를 조직화된 힘으로 만들어가는 운동	응집력, 신뢰관계가 토대

꿈의 터전, 영화세트장	가장 이기적인 행위	행복한 참여와 연대	밑빠진 독에 밀 채우기	1+1>2 수확공식을 정립하는 것	만나서 논의하는 일상을 구축하는 것, 상호호혜성의 임계치를 달성하는 행위
이웃과 인정이 있는 곳	지역사회와 주민이 공생하는 것,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에 의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	지역의 강점과 지역사람들의 강점을 생동시키는 것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만들어가는 힘	소통과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곳	주민자치 공동체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는 활동	상생하도록 돕는 과정	주민이 스스로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	소통과 희망
걸어서 5분 이내 살아갈 수 있는 곳, 희망	품앗이	지역문제 해결의 방법, 소통	마을의 힘	상생하는 길	소통과 협력, 화합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아래로부터의 변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활동	마을공동체 사업의 핵심	주민의 삶을 엮어가는 과정	마을단위 소통
일터	어렵다	어렵다	직원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	연합 사업이다

25개소의 사회복지관 현장방문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개념에 대해 응답한 복지관은 9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어려워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마을에 대해서는 삶터, 일터의 ‘터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웃과 인정,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곳’ 등으로 개념정의하고 있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와 주민참여과정, 자치, 품앗이, 공생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사업으로 풀어낸 경우도 있었으며, 가장 이기적인 행위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공동체적

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것들을 때로는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역사회복지를 방법과 활동, 실천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사회 역량강화는 사람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회복지관에서 외연적으로 드러나는 마을공동체 형성의 형태인 주민조직화와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해 나가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 대답의 수위가 유사하였다. 주민조직화에 대해서는 주민과 함께하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 엮어가는 과정 이라고 하였으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신뢰, 동일 목표, 상호호혜성, 소통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개념 사이에서 차이점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지만, 사회복지관 현장에서 생각하는 각 개념 간 큰 차이는 드러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례

25개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크게 주민조직화와 기관 간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으며, 지역특성인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또는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하여 마을공동체 주요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두 기준을 교차시킨 결과²⁰⁾는 다음과 같다.

<표3-29> 지역특성별 지역사회 역량강화 주요사업 분야

지역사회 역량강화 주요사업 분야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		그 외 지역 사회복지관		전체	
	n	%	n	%	n	%
형성전	1	12,5	8	47,1	9	36,0
주민조직화	6	75,0	6	35,3	12	48,0
네트워크	0	0,0	3	17,6	3	12,0
혼합	0	0,0	1	5,9	1	4,0
합계	8	100,0	17	100,0	25	100,0

20) 명확한 구분지점은 없지만, 최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 외의 외부자도 연구자와의 대화 및 전사자료를 검토하는 분류작업에 참여하였다.

형성전이라고 분류된 경우는 사회복지관의 자발성과는 별개로 상대적으로 외부의 강제성이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이 진행된 경우이거나 아직 마을공동체의 관점으로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25개의 사회복지관중 9개 기관이 이에 속했다.

그리고 주민조직화를 주요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으로 언급한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이나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관 모두 기관수가 6개소로 같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복지관의 경우에는 주민조직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8개소 중 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이에 반해 그 외 지역의 복지관의 경우에는 주민조직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6개소로 가장 많았으나(35.3%), 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3개소, 주민조직화와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1개소였으며, 형성전이라고 분류된 경우가 47.1%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과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관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례를 지역과 대상, 방법별로 정리하였다.

<표3-30> 주요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례 :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방법
중랑	반갑수다 우리마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주민만남과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진행으로 주민 재능을 발견, 지역사회에 필요한 주민에게 나누어주는 사업 - 마을사랑학교, 달인선발대회, 달인 담금질 교육, 나눔 미션 수행, 주민나눔위원회 활동
강서	나눔누리회 등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누리회 : 가양2동 저소득가정 아동 조식지원을 위한 주민조직 지원, 복지관·학교·나눔누리회 조직이 연대하여 진행되며, 1일 찻집을 통해 수익금 배분 - 주·사·위 : 가양4단지 생태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전 세대 홍보를 통해 주민조직화 지원 - 리틀 주·사·위 : 가양4단지 어르신 생신잔치를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조직사업 - 꿈틀꿈틀학교 : 가양2동 보육환경 개선 캠페인 활동을 위해 조직된 사업
강서	마을소담터 등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지역주민 및 강서구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소담터 : 마을도서관 형성을 위한 주민조직화 - 살림장터 : 지역 내 놀이터 문화형성을 위한 살림장터 마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연 4회 운영 - 인문학교육 : 강서 권역 단체간의 연합으로 영역별 인문학 강좌를 통한 참여주민자치 구조화 지원
마포	성산마을 봉사단 등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산마을봉사단 : 임대아파트 지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봉사단 주민조직 운영 - 행복나눔운동 : 저소득지역 아동청소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주민나눔운동 - CI(Community Impact)사업 : 위기청소년 대상 예술활동을 매개로 관계망 확장, 예술단체 및 지역단체와 연계지원

<표3-31> 주요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례 : 그 외 지역 사회복지관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방법
도봉	도봉아이 사랑모임 등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내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봉아이사랑모임 : 방임아동관련 주민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된 주민들이 공부방 운영 지원 - 인문학모임 : 도봉시민회와 연계, 교육수료생들 대상의 분과별 소모임 진행, 소모임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 도깨비 공원 재생위원회 : 근처 유휴공간을 주민과 함께 꾸미고 주민자치공간으로 활용, 도깨비방 개관 - 도봉구시민사회복지네트워크 : 도봉시민단체협의회를 거쳐, 현재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안에 분과가 있어서 다양한 공동행사 기획 및 진행
은평	은평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내 시민단체 18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부터 지역단체 18개가 모여 네트워크 구성→ 2006~2007년에 걸쳐 비전수립→현 2012년에는 영역별 아젠다 설정하여 진행 - 지역내 NGO·NPO 지원센터 구성, 골목도서관 마련, 지역 화폐(e-품앗이 연계) 활성화, 어린이날 행사 공동기획, 은평주민축제 등 기획
구로	구로아동 청소년 네트워크 등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내 시민단체 37개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아동청소년네트워크(37개단체참여), e-품앗이, 부모 커뮤니티 준비, CI사업(아이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
송파	주민사회 복지대학 등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사회복지대학(주부 중심 지역 활동가 양성), 동사모(동화를 사랑하는 모임, 도서관 활용 조직), 주민지킴이(학부모중심의 안전한 마을만들기), 송파주민네트워크(비전워크숍, 공동축제기획), 연초 복조리 나눠드리기

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민조직화와 네트워크의 방식에 뚜렷한 구별점이 없다. 하지만 주민조직화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소재 사회복지관에서 주로 나타나고, 그 외 지역의 사회복지관은 주민조직화와 네트워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의 이유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유추해보는다면 지역사회의 자원의 양, 특히 연대할 수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지역풀뿌리단체 등 연합할 수 있는 기관들의 양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보다는 주민조직화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형

성 노력이 일어난다. <표3-30>, <표3-31>에 언급된 사례를 포함한 현장조사 결과의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례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3)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의향 및 정도

현장방문결과, 25개 복지관 중 18개 기관에서 이에 대해 응답하였다.

상술했던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지역사회 역량강화 정도가 높다고 응답하고, 다른 복지관으로부터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 기관들의 응답 결과는 모두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첫째, 사업을 위한 사업수행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행정적으로 탑다운(top-down)형식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제가 있어야 참여할 것이다.

셋째, 지역에서 필요로 할지라도 자생적인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참여가능하다.

이밖에 다양한 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예. 다문화가족이 많은 지역, 중산층 중심이어서 주민조직화가 어려운 지역 등), 기관의 상황에 따라 관심과 참여의 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그 형태는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부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연계시키거나 확대하는 형태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사회복지관 사업이 5대사업에서 3대 기능으로 바뀌면서 주민조직화가 강조되는 추세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대답한 사회복지관도 있었다.

4)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시 어려움

25개 사회복지관의 지역복지관련 실무자들이 언급한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 즉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을 위한 어려움은 다양하였다. 이것들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복합적이지만, 크게 ① 사회복지관 내부의 특성과 사회복지관 외부 제도 및 환경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외부 특성은 다시 ② 행정기관²¹⁾의 특성, ③ 기초기반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25개 기관의 지역특성(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 그

21) 여기에서의 행정기관이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를 의미한다.

외 지역 사회복지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지역사회 역량단계, 사회복지관 소재 자치구로 구분하여 그들이 언급한 어려움을 상기한 3가지 분류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표3-32>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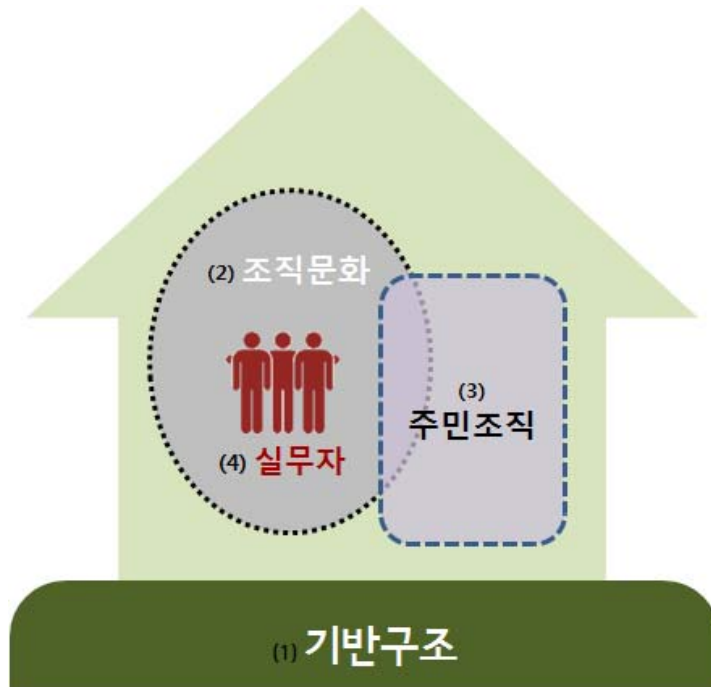
지역	단계	자치구	어려운 점	분류
임대	1	강남구	인력과 예산 부족	1
			기존 주민조직 간의 마찰	1
			주민 모집의 어려움	3
			조직화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3
임대	2	강서구	인력과 업무시간 부족	1
			지역사회 토대 미비	3
			지역공동 의제 개발 부족	3
			주민 참여과정 미비	3
			지역 관점의 조직 환경 부족	1
임대	2	양천구	네트워크 기반미약	3
			인력 부족	1
임대	3	중랑구	조직내 사업 공유 부족	1
			찾은 담당자 변경	1
			주민 교육커리큘럼 부재	3
임대	3	노원구	주민 동기화 접점의 부족	1
			주민 리더들 간의 갈등	1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갈등	3
임대	4	마포구	인력과 업무시간 부족	1
			조직 대응의 경직성	2
임대	무응답	강서구	주민리더 구성의 어려움	1
			참여자의 정치 성향의 차이	3
혼합	1	중구	인력 부족	1
			시민단체 부족	3
			기관내 인식 부족	1
혼합	2	영등포구	예산 부족	1
			별도의 성과지표 미비	2
혼합	2	동작구	주민과의 만나는 접점 부족	3
			프로그램 중심의 지역사업 진행의 한계	1
혼합	2	동대문구	행정력 미흡	1
혼합	2	강동구	주민 인식 개선	3
			주민 접점 부족	3
혼합	2	광진구	자조모임에서 주민조직으로 변하기 어려움	1
			지역특성의 한계(이슈발견 어려움, 정주율 낮음)	3
			인력 및 예산 부족	1
			직능단체 관계 형성 어려움	3
혼합	2	서초구	지역성으로 인해 주민욕구와 복지관의 방향 상충	3

			인력 부족	1
			연계할 시민단체 부족	3
혼합	2	관악구	답다운 방식 사업 전개	2
			실무자 변동	1
			시민단체와의 연대 어려움	3
			관과 파트너십 형성의 어려움	2
혼합	3	관악구	무엇인가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2
			주민을 만나면 행정이 밀림	1
			주민주도 사업이 아닌 거점기관으로 설립	2
혼합	3	도봉구	주민과 실무자간 소통 문제	1
			활동가 간 휴먼네트워크 유지 문제	1
혼합	3	은평구	청년 활동가 수급 문제	3
			네트워크시 단체별 정치성향 상이	3
			조직내 수퍼비전 상층	1
			조직내 사업공유 부족	1
혼합	3	송파구	개인주의 성향의 주민	3
			참여자 모집이 어려움	3
			연대할 유관기관이 부족하고 네트워크 어려움	3
혼합	3	서대문구	지역이슈 발견과정이 어려움	3
			느슨한 네트워크	3
			몇몇 실무자 역량에만 사업 의존	1
			사회복지관의 위치 접근성	3
혼합	3	구로구	네트워크와 마을사업 중복	1
			지역 기초통계 부족	3
			단체간 정치성향 차이	3
혼합	3	금천구	실무자변경으로 네트워크 해체	1
			성과중심 인센티브 중심 사업	2
			마을사업에서 복지관이 소외되는 문제	3
혼합	3	성동구	주민 인식 개선 어려움	3
혼합	4	강북구	시민단체와의 성격 차이로 연대가 어려움	3
			기관 실적 및 성과 제시가 힘들	2
			지역주민 참여독려가 어려움	3
혼합	무응답	성북구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진행의 중복성	1
			마을사업에서 복지기관이 소외됨	3
			인력 부족	1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특성별, 지역사회 역량단계별, 자치구별 느끼는 어려움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모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 어려움들을 상기한 3개의 분류기준으로 범주화하였다.

① 사회복지관 내부의 특성

사회복지관 내부의 특성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의 어려움은 크게 사회복지관의 구조적인 문제, 사회복지관 내 조직 환경의 문제,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형성된 주민 조직과 관련된 어려움²²⁾,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림3-2] 사회복지관 내부 특성 구분

각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어려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주민조직이 인큐베이팅되어 조직 밖으로 독립되어 나간 경우도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상술했듯이 주민조직은 사회복지관 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내부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표3-33>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시 어려움 : 사회복지관 내부 특성

구분	어려운 점
사회복지관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부족 - 예산부족 - 업무시간 부족
사회복지관 내 조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중심 관점의 조직 환경이 아님 - 지역사업에 대한 기관 내 공유 부족 - 지역사업 담당자의 잦은 변경 - 프로그램 중심의 지역사업 진행 - 조직 내 수퍼비전 상충 - 기존 사업과 마을사업의 중복
형성된 주민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모임에서 주민조직으로 변하기 어려움 - 주민조직의 리더들 간의 갈등 - 활동가 간 관계 유지 어려움
사회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의 역량에 의존 - 주민과 실무자 간 소통 어려움

사회복지관 내부의 특성과 관련해서 첫째, 사회복지관의 구조적인 문제로 언급된 것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민을 만날 인력과 예산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둘째, 사회복지관 내의 조직 환경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지역관점의 조직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 언급되었으며, 그 외에도 기관 내에서 지역사업에 대해 공유가 부족하고 일회적인 프로그램 중심의 지역사업이 시행된다는 점도 있었다. 그리고 지역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자주 바뀌거나, 실무자의 수퍼비전이 서로 달라 실무자가 혼동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기존에 수행하던 네트워크 사업과 마을사업이 중복되어 각종 회의와 모임 등이 많아서 구조화가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셋째,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주민조직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관 내에 형성되어 있는 자조모임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 이후 조직화로 전환하고자 할 때 주민 지도력 발굴이나 서비스 지원여부 결정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민조직들 간의 리더들 사이에서의 갈등 또는 활동가끼리의 갈등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역량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진행을 실무자의 역량에만 너무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실무

자의 의견과 활동가의 의견이 달라 합의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어서 사회복지관 외부 제도 및 환경의 특성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먼저, 행정기관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살펴본다.

② 행정기관의 특성

행정기관의 특성에 관해서 총 5가지 세부적인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34>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시 어려움 : 행정기관 특성

구분	어려운 점
행정기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대응의 경직성 - 기관 실적 및 성과 제시가 힘들 - 행정주도형의 탑다운 방식 사업 전개 - 주민주도 사업이 아닌 거점기관으로 쏠림 - 파트너십 관계 형성의 어려움

먼저 행정기관 업무처리의 경직성이 언급되었다. 현 서울시 평가지표에 의하면 네트워크 회의는 공문접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응의 경직성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관만의 실적으로 취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과 제시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 아래로부터의 변화(bottom-up)가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는 행정주도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끼워 맞추기 식의 사업이 진행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중심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시각은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를 사회복지관 등 거점기관에만 한정하고 실적 중심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 민관의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형성이 어렵다고 하였다.

③ 기초기반의 특성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어려움으로서,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기반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초기반의 특성은 크게 지역사회의 특성, 주민조직 형성 및 유지의 어려움,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의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다.

<표3-35>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시 어려움 : 기초기반 특성

구분	어려운 점
지역사회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 의제 개발의 어려움 - 정주율 낮음 - 주민욕구와 복지관 방향 상충 - 사회복지관의 위치 접근성 떨어짐
주민조직 형성 및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점점 부족 - 주민 모집의 어려움 - 주민 인식개선의 어려움 - 인식개선을 위한 과정 부족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부족 - 직능단체 관계 형성 어려움 - 단체 간 정치성향의 차이 -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사회복지관 소외됨

먼저 지역사회의 토대가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개인주의 사회에서 지역의 공동 의제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관 소재 지역의 정주율이 낮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적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고도 하였으며, 중산층 이상의 주거지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기관의 방향성이 상충되어 적극적인 사업을 개진하기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주민조직과 관련해서는 기반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초기에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서부터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며, 교육 및 회의 참석도 낮다고 하였다. 즉, 사회복지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어 주민들과의 공감과 소통이 단기간의 노력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일회적으로 멈추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끄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주민 참여 증대 및 주민지도력 개발 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등의 과정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절대적 수 자체가 적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진행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복지관에 대한 선입견(예. 관변단체로 생각하는 점 등) 때문에 초반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직능단체,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연대할 경우 그들의 정치색과 이해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우며, 기존에 형성되어있던 지역사업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그 안에서 소외되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5)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을 위한 제언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점은 각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 가능하였다. ① 사회복지관 ② 서울시복지재단 ③ 서울시 ④ 각 자치구로 나뉜다. 그리고 모든 주체들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제언은 ⑤ 공통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특성, 지역사회 역량단계, 복지관 소재 자치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3-36>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을 위한 제언

지역	단계	자치구	바라는 점	분류
임대	1	강남구	전담인력 지원	3
			주민조직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2
임대	2	강서구	지역복지에 대한 정체성 확산	1
			마을관련 인력 관점교육	2
			자치구 별도팀을 구성하여 소통의 장 마련	4
			성과 연구	2
			최고 관리자의 이해 선행	1
임대	2	양천구	실무자 네트워크 형성	4
			기관장 교육	2
			재단 지역복지사업 통합 관리	2

			질적 과정 중심적 평가방식 도입	3,4
			일반 시민 홍보 강화	2
임대	3	중랑구	주민대상 교육 커리큘럼 제공	2
			전담인력 지원	3
			예산지원(자치구 상황별)	3
임대	3	노원구	주민대상 교육 커리큘럼 제공	2
			지역복지 사업 수위별 다양한 사례	2
			전담인력 지원	3
임대	4	마포구	지역복지에 대한 정체성 부여	1
			전담인력 지원	3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3,4
임대	무응답	강서구	사회복지 전체 차원에서 설득하고 공감하는 자리	5
			지역주민 시상하고 초청하는 자리	2
			지역복지 사업 관련 연구	2
			전담인력 및 예산지원	3
			행정부서별 중복 해소	3,4
혼합	1	중구	수위별 지원, 권역별 교육 지원	2
			사업모델화 및 보급	2
			현장의견 반영 공청회 개최	2
			민관 파트너십	4
			과정 중심 사업 지원	3,4
혼합	2	영등포구	전담인력 복리후생 지원	3
			즉시 현장 적용가능한 교육 지원	2
			실무 수퍼바이저 지원	2
			인센티브형 성과주의 지양	3
혼합	2	동작구	성과주의 지양	3
			다양한 사례 발굴, 모델 개발 확산	2
			장기적인 관점 필요	5
혼합	2	동대문구	지역사회 유희공간 개발 지원	4
			예산지원	3
혼합	2	강동구	주민대상 교육 커리큘럼 지원	2
혼합	2	광진구	장기적 관점의 사업	5
			주민대상 교육 커리큘럼, 강사 지원	2
			거버넌스 파트너십 관점	4
			과다한 행정 서류 지양	3,4
혼합	2	서초구	지역복지 지식과 노하우 공유	2
혼합	2	관악구	과정중심의 성과평가	3
			교육 지원	2
혼합	3	관악구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정리와 교육	2
			공모방식이 아닌 예산방식 변화	3
			자치구의 협조	4
			담당자 의지, 두려움 없애기 등 개인역량 향상	1
			탄력근무제	1

혼합	3	도봉구	지역복지 사업수위별 다양한 사례 행정절차 통합 필요	2 3,4
혼합	3	은평구	지역복지에 대한 정체성 확산 지역복지 사업수위별 다양한 사례 공유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지원	1 2 2
혼합	3	송파구	지역복지분야 매뉴얼 개발 주민대상 교육 커리큘럼 제공 지역복지 실무자 네트워크 제공 마을사업 주민참여 홍보 활성화	2 2 4 2
혼합	3	서대문구	전담인력 지원 예산지원 사례중심 교육 지원 해외사례 및 이론 연구, 보급	3 3 2 2
혼합	3	구로구	지역주민 시상하고 초청하는 자리 우수사례 시상, 발굴 및 연구, 확대 사례중심 교육 지원 우수사례 현장 보급 마을사업 장기적 관점 필요 마을사업 공무원 대상 교육 지역복지 종합안내게시판	2 2 2 2 5 2 2
혼합	3	금천구	실무도움서 제작 기관장 대상 교육 다양한 사례발굴, 모델 개발 확산	2 2 2
혼합	3	성동구	주민대상 교육지원 중복 사업 정리 네트워크 및 조직지원	2 2,3,4 2
혼합	4	강북구	실무자 대상 교육 핵심사업 방향 제시 가이드라인 제공 홍보강화 주민의식 개선 교육	2 2 2 2 2
혼합	무응답	성북구	실무자 교육 지원 평가 척도 개발 및 보급 인력 및 예산지원 실적과 성과 중심 평가 지양	2 2 3 3,4

분류한 결과, 지역특성과 역량단계, 자치구별로는 바라는 점들이 뚜렷하게 상이하지는 않았으며, 25개 사회복지관에서 총 81개의 제안을 해 주었다. 이를 상기한 주체별로 나누어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실무자들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첫째, 지역복지에 대한 정체성이 공유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복지관 내에서 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이 한때 유행하는 사업이 아닌 진정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사회복지관의 기관장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즉, 핵심리더 관점 및 지향이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과 밀착하여 주민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만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를 인정하는 사회복지관의 직무문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담당자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주민을 만나는 데에 있어 두려움을 없애는 등의 개인적인 역량을 마을지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

② 서울시복지재단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관 실무자가 말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역할은 상당히 다양하였다. 가장 큰 욕구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이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상이 다양한 만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마을공동체 사례집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등을 배포하여 핵심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마을공동체 발전 수위별, 지역특성별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실용성을 띄어야 한다. 이외는 별도로 기관장의 관점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기관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은 사회복지 실무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들의 관점 변화를 위한 주민대상 교육 커리큘럼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공무원들의 관점 변화를 위해서도 관변단체 및 공무원 대상의 교육을 진행하여 마을 안에서 같은 시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관 평가와 관련하여 마을공동체의 발전정도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서울시복지재단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시민들과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주민들을 시상하고 초청하는 자리를 가지며, 현장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복지관련 사업들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디딤돌이나 희망온돌, e-품앗이 등의 사업들을 통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역복지의 종합안내게시판의 역할을 해야함을 제안하였다.

③ 서울시

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이 서울시에 바라는 점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전담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통 지역복지팀의 경우에는 후원, 자원봉사, 홍보 등의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으므로 마을에 직접 나가 주민들을 만나고,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과부하가 있다. 따라서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인력수급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사회복지관 평가와 관련하여 과도한 실적중심의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과정중심적, 질적 평가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산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공모방식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을 위한 제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비슷한 사업이 여러 사업 부서에 걸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행정부서별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④ 자치구

구 단위에서 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은 각 구의 지역성을 담보한 제언을 하였다.

먼저, 자치구에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거버넌스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민관의 파트너십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각 단위의 실무자들이 같은 비전을 갖기 위한 네트워크 모임을 형성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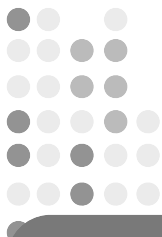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희공간 개발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민회의와 같은 각종 모임을 위해서는 특정 공간이 필요하다.

⑤ 공통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언은 두 가지였다.

첫째, 사회복지 전체 차원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비단 사회복지관에만, 시민단체에만, 행정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을공동체 형성은 단기적인 호흡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하였다. 마을공동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활성화 단계까지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활성화 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04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FGI 결과



제4장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FGI 결과

1. FGI 개요

사회복지관 현장조사 결과,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마을공동체 형성이 상이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공동체는 사회복지관 외 유관기관과 주민들이 함께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FGI를 진행하였다.

1) 인터뷰 목적 및 대상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기준은 상기한 것처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사회복지 현장을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의 실무자와 그 외 지역 사회복지관 실무자로 구분하였다. 사회복지관 외부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관과 연대하여 마을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유관기관의 실무자와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주민조직 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민을 포함하여 FGI를 진행하였다.

<표4-1> 조사대상자 기준

기준	구분
사회복지관 소재 지역특성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 실무자 → ①
	그 외 지역 소재 사회복지관 실무자 → ②
사회복지관 외부관점 반영	사회복지관 외 마을공동체 형성 유관기관 실무자 → ③
	사회복지관 마을사업 참여주민 → ④

다음 <표4-2>는 각 그룹별 선정된 인터뷰 대상자와 사례수를 나타내며, 총 4개의

그룹으로 22명에 대한 FGI를 수행하였다.

<표4-2> 인터뷰 대상자 분포

기준	인터뷰 대상자	사례수
①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 실무자	강서구 복지관 2개소 지역사회조직팀 팀장 중랑구 복지관 사업팀 부장 마포구 복지관 지역조직팀 팀장 노원구 복지관 지역사회운동팀 팀장	5
② 그 외 지역 사회복지관 실무자	금천구 복지관 지역사회조직팀 팀장 강북구 복지관 지역사회조직팀 팀장 은평구 복지관 지역사회조직팀 팀장 동작구 복지관 노인특화·자활팀 팀장 도봉구 복지관 지역복지팀 팀장 관악구 복지관 지역사회운동팀 팀장	6
③ 사회복지관 외 유관기관 실무자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팀장 마을예술창작소 추진단 팀장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팀장 복지시민단체 상임활동가 영유아통합지원센터 팀장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무장	6
④ 사회복지관 마을사업 참여주민	은평구 복지관 네트워크단체 지역이사 강서구 복지관 주민조직 대표 강서구 복지관 주민조직 회장 도봉구 복지관 주민조직 대표 마포구 복지관 주민조직 대표	5

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 역량단계가 높고, 현장조사 결과 타 기관으로부터 높은 인지도로 가진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실무자(이하 그룹①)와 그 외 지역 소재 사회복지관 실무자(이하 그룹②)를 선정하여 그룹을 구성하였다. 대부분은 지역사회조직팀 또는 지역사회운동팀의 팀장이나 부장이었다. 그리고 복지관 외 마을공동체 형성 유관기관의 실무자(이하 그룹③)는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단체들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구의 팀장 과, 마을예술영역의 팀장, 자활영역의 팀장, 시민단체 활동가, 돌봄영역 단체의 팀장,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사무장이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의 마

을사업 참여주민(이하 그룹④)은 그룹 ①, ②의 실무자들이 소개를 시켜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사회복지관 마을사업의 방식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주민조직의 대표나 회장 등 주민을 대표해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2) 인터뷰 및 분석 방법

위와 같은 조사대상자들로부터 본 연구가 알고자 하는 문제는 “왜/어떻게”라는 질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맥락적인 조건과 상호작용을 파악해야 한다. 현장방문으로 수집한 자료는 유사성을 지닌 그룹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배제하며 조금 더 객관적인 상태에서 인터뷰이 1인 대 인터뷰어 다수의 면접으로써, 현 사회복지관이 처한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FGI는 인터뷰어 1인 대 인터뷰이 다수의 형태를 띄며, 동일 그룹 사이에서 생기는 맥락과 상호작용을 의도하여 그룹별 차이로 인해 생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서 질적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조사대상을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뷰의 유형은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자가 인터뷰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하지만 추가적인 질문의 가변성을 어느 정도 허용한다. 즉, 연구자가 우선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던짐으로써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정리, 구성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의 개방형 질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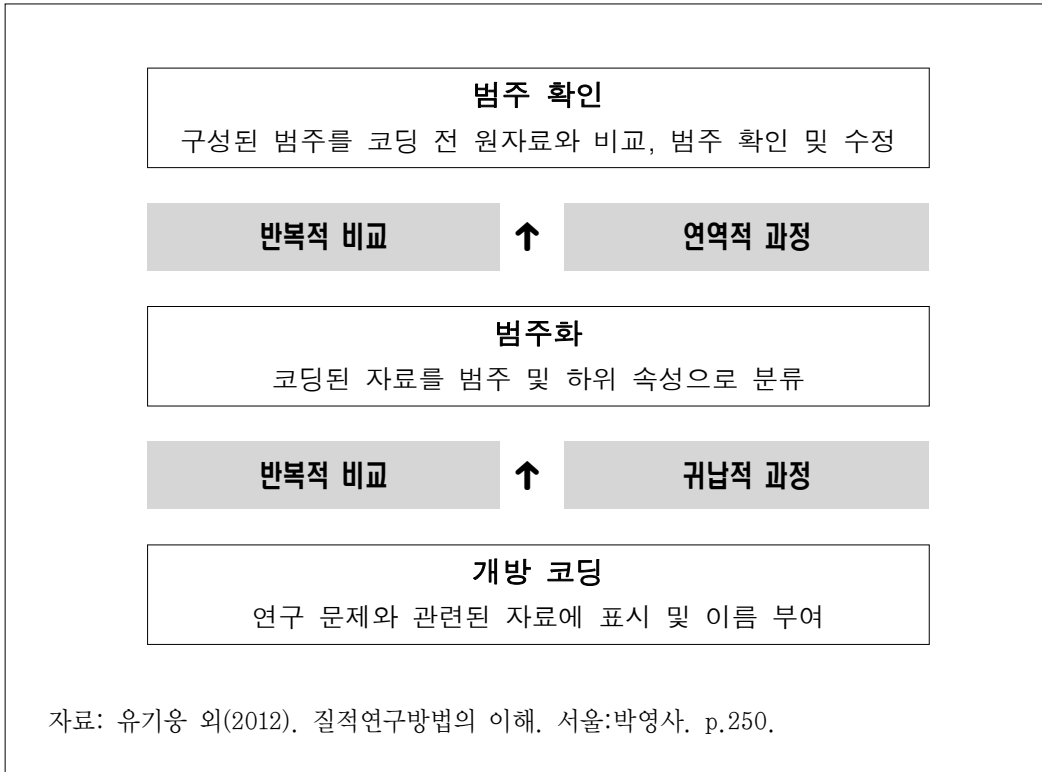
<표4-3> 개방형 질문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정의 - 마을공동체 추구의 이유 - 마을공동체 실태 인식 및 현 상태의 요인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그 룹 별	①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내외 강점, 욕구 및 장애요인 - 기관내외 마을공동체 형성 주체 및 역할 - 입지의 강약점 - 마을공동체 시류로 인한 기회 및 위협
	② 그 외 지역 사회복지관 실무자	①과 상동
	③ 사회복지관 외 유관기관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형성 강점, 욕구 및 장애요인 - 바람직한 사회복지관의 역할 - 사회복지관과 할 수 있는 사업유형
	④ 사회복지관 마을사업 참여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마을공동체 형성 욕구 및 장애요인 - 바람직한 사회복지관의 역할 - 마을공동체 시류로 인한 기회 및 위협

상기한 가이드대로 엄격하게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을 수렴하기보다는 인터뷰 흐름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즉, 연구자가 우선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던짐으로써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구성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목적과 관련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지시어 등을 포함함으로써 연구자가 인터뷰 진행 중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12년 10월에 4회에 걸쳐 수행되었고, 인터뷰 장소 차이로 인한 자료수집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4회 모두 같은 공간인 서울시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모든 인터뷰 대상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조사내용을 연구의 목적에만 이용하겠다는 연구윤리를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인터뷰는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모든 내용은 녹음하는 과정을 거쳐 전사하였다.

FGI를 통해 확보한 22명의 4그룹의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로 분석하였다. 이는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림4-1] 반복적 비교분석법 절차

분석은 자료수집이 모두 끝난 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료 수집 중에 이루어졌으며, 내용을 분석하면서 연구목적에 보다 알맞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정해야 할 인터뷰 질문, 추가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자료를 위한 새로운 인터뷰 질문 등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동시에 분석 작업을 거쳤다.

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중요한 자료에 이름을 붙이고 이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개방 코딩을 함으로써 주제별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에 코딩된 자료를 상위 범주로 분류하는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즉, 비슷한 코딩의 이름으로 분류해 놓은 자료들을 상위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서로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그리고 복수의 주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즉, 개방코딩 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비교하였다.

이렇게 범주화 작업을 마치게 되면 범주가 잘 구성되었는지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발견되면 범주를 수정하였다.

인터뷰 결과의 서술방법은 범주화를 통해 키워드를 뽑아낸 것을 바탕으로 의미부여를 하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대표발언의 녹취부분을 신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2. FGI 결과

1)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 실무자

① 마을공동체 정의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범주화 결과 도출된 키워드는 ‘자치공동체’, ‘주민의 힘’, ‘운동 지향’, ‘주체 묶기’, ‘교감’ 이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 중 하나가 주민참여가 있고, 그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도 가진 것 안에서 나눌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나눔공동체가 **자치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만드는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힘**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웃관계를 넘어서서 **운동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좀 깨어있고 주민들의 힘이 있는 마을. 전체가 힘이 있는 그런 마을을 지향해야 해요.”

“마을공동체가 옛날하고 다르게 공동체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략) 뭔가 공동으로 관심있는 주제가 있거나 이게 꼭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대되고 축소되는 것은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주제에 따라서 묶여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된 의식이나 가치관들을 같이 느끼고 교감**하는 것이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것 같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를 행동하는 것이...”

② 기존사업과의 차이점

기존에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했던 사업들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차이점은 ‘기관전체

사업’, ‘주민욕구 수렴’, ‘보편성, 포괄성’ 이었다.

“조직화 사업은 조직팀에서 했어요. 했다가 **마을공동체사업은 조직팀에서 할 사업이 아닌거예요.** (중략) 복지관 위주로 복지관에서 서비스로 약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더 많았다고 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주민분들 욕구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복지관이 위주의 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더 많았다고 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주민분들 욕구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활동보다, 기관 안에서의 활동보다 외부적인 활동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관에서 해야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지역사회 마을사업을 하는 것이 많이 달라진 점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조직사업은 말 그대로 복지적인 차원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저희 기관도 저소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복지에 맞춰진 조직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략) 마을공동체를 이야기하면 **보편적인 복지, 일반인,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금 더 크게 생각되지 않을까.”

③ 마을공동체 필요성

사회복지관 내에서 마을공동체를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다. ‘요구 복지서비스 양 증대’, ‘자조, 자긍심’ 이다.

“저희의 사정이 무엇이었냐하면 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많은 복지서비스가 투입**되어야 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우리들로 인해 격이 생겼어요.”

“주민들이 **본인들끼리 도와주시는** 게 있더라구요. 그것을 조금더 여러 명이 도와드리는 것이 어떨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노인들이 도와주실 때 이왕이면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재교육이나 역량강화를 해야하지 않겠냐...(중략) 오히려 풀뿌리주민들이 저 이거 잘해요 라고 하면서 왔던 분들이 더 잘하더라구. **자긍심도** 확실히 더 많이 생겼어요.”

④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강점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형성에서의 특이성을 알기 위해서 지역 특성이 갖는 강점에 대해 물어본 결과, ‘소소한 교류 많음’, ‘복지관에 호의적’, ‘공통관심사 수합 쉬움’ 이 도출되었다.

“좁으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고 살아요. 덥고 괴롭고 좁으니까 문을 여는데 그러니까 **소소한 교류들이 조금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조직화된 뭐든 참여하지 않더라도 아는 거죠. 아는 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사회복지관이 단지 안에 있으니까 복지관에서 뭐한다는 것에서 아주 **쉽게 동의**를 하고 참여가 조금 쉽다는 것은 확실히 장점 중에 하나구요. 그리고 아, 이것은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통관심사**가 확 올라와요.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가 넓지 않은 지역이고, 그리고 가깝게 사시니까 공통관심사가 조금 빨리 취합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⑤ 마을공동체 추구의 어려움

어려움은 현장방문 결과와 유사한 범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다. 각 분류에 해당하는 범주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사회복지관 구조 : ‘인력부족’, ‘공간개방 어려움’

“그냥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해**.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존 인력들이 각각 개별적인 사업들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까 조직화사업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전략, 조직화 때문에 참 되게 힘들거든요.”

“막상 복지관은 **개방하기가 어렵죠**. 주말이나 이럴 때 공간을 개방하려고 할 때 누군가는 인력이 있어야 하고, 공간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ii) 사회복지관 내 조직 환경 : ‘선구상, 후조직’

“사회복지관은 필요한 **프로그램들 미리 구상하고 틀을 갖춰놓고 거기에 맞는 주민들을 찾고**,

이것이 한계인 것 같아요. (중략) 태생자체가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 물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인식개선 등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을 도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iii) 행정기관 특성 : ‘실적중요시’, ‘일괄적 압박’, ‘역할분담 부재’, ‘행정기관 분할’

“기껏 만날 수 있는 대상들 열심히 모아도 15~20명이 안되는 거예요. 한번 뭐 교육하자고 하면 100명 모여서 뭔가 해야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중요시**하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는 저거 사업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해가 안되는 것이지.”

“뭔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푸시하니까 그 시기에 그게 아닌데... 모든 기관에 일괄적으로. 어디는 잘 될만한 상황이라서 잘 된 것인데 그것을 다른 기관에 **일괄적으로 뿌린다는** 생각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복지관이 마을공동체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마을공동체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중략) 기본적으로 **관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고, 유연성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것들을 강화해야 하는데...”

“주민조직은 하나인데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렇지 않은거죠. 주택과, 자원봉사센터,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느낌...”

iv) 지역사회 특성 : ‘어르신 조직화 어려움’

“저희 특성은 어르신이 많다보니까 **어르신을 조직해봤더니 역량강화가 너무 어려운** 거죠. 조직화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을 역량강화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잘되어도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v) 주민조직 형성 및 조직 : ‘본인 중심’, ‘자발성 부족’

“처음에 왜 조직하기가 힘들잖아요..주로 동대표들이 나서서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통의 이익보다 본인의 그런 자리매김**.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통장단이 그렇게 건강하시지는 않으니까... 그 분들은 **자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력동원 차원에서 뭔가를 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은 하시는데... 다른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시고 다른 주민분들도 불편해하세요.”

vi) 네트워크 형성 및 조직 : ‘기존의 형식적 네트워크’

“지역복지협의체 같은 이름으로 효율적인 틀을 잡아서 시스템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부작용들이 더 많았고, 정말 주민들의 자발성이나 주민들로 인한 네트워크라기보다는 그냥 **실무적인 관차원에서 기관과 기관의 어떤 부분으로만 의무적으로** 되어왔던 것 같아요.”

vii) 사회복지관 정체성 : ‘운동관점 반감’ , ‘역할혼란’

“복지관에서 해야하는 주민조직화 사업들은 사회에 순기능적 기능을 만드는 방향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지금, 만약에 수급권 때문에 우리가 으쌰으쌰 해서 뭘 한다고 하면 과연 복지관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복지관 존립 자체의 문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할 때 사실 복지관이나 아니냐라는 고민을 해요. 마을공동체라고 한다면 이것이 복지서비스인가 아닌가? 복지서비스를 넘어서 행복추구권? 그것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혼란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우리의 역할인가?**”

viii) 기타 : ‘교육부재’

“학교에서는 사실 마을공동체나 지역에 관한 **교육을 하나도 안 받고** 왔는데, 복지관에서 계속 공동체를 이야기 하니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⑥ 마을공동체를 위해 바라는 점

현장조사 결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점을 분류했던 것처럼 사회복지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역할로 분류하여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i) 사회복지관 : ‘직원 간의 동의’, ‘복지관 전체의 일이라는 동의’, ‘주민들 설득과 교육’, ‘직접 나가 여쭙기’, ‘주민조직 최소예산투여’, ‘기관장 마인드’

“마을이라는 말을 썼던 게 2008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직원들하고 동의를** 되게 많이 구했어요. (중략)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해했고, 한 개 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기관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공통적인 동의를 구하고 마을사업을 시작했어요.”

“주민들이 본인들끼리 도와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더 여러 명이 도와드리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노인들이 도와주실 때 이왕이면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재교육이나 역량강화를 해야하지 않겠냐 라는 것들이 계속 **설득작업**이 되어서...”

“오류가 무엇이었냐면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동네 지저분하고 쓰레기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라고 생각했는데, 열이면 아홉 동네가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책상에서 탁상공론은 아니구나, **직접 나가서 여쭙봐야** 하는구나 처절하게 깨달았죠.”

“처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물론 지금은 회비내서 운영하시는데 결국에는 처음 그 모임 조직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 실무자가. 그래서 저희는 아예 기관에서 원칙을 세운게 **최소의 예산을 투여**하자. 본인들의 회비로 운영할 수 있게끔하자. 주민모임 자체는 주민들 것이지 사회복지사, 기관 것이 아니다.”

“**관장님들의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어... 조직화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실적이 조금 줄더라도 다른 것으로 채우면 되니까...”

- ii) 서울시복지재단 : ‘유사사업 정리로 혼란 사전 방지’

“창구나 자체적인 정리를 통해서 복지관 전체가 되었던, 지역사회조직팀이 되었던.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혼란은 사전에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iii) 서울시 : ‘인력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진행’

“복지관 능력이 되니까 해라가 아니고 여기 할 수 있도록 **뒀받침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역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획일화 시켜서 좋으니까 공동체 사업 짝~ 이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나. 여기에서 잘 되니까 거기도 잘 될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하지 않나.”

iv) 자치구 : ‘1:1 파트너십’

“저소득 단지에서 공동체 운동을 한다고 하면 구에서도 **복지관을 하나의 진짜 이웃관계로 1:1로** 똑같이 보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 그 외 지역 소재 사회복지관 실무자

① 마을공동체 정의

범주화한 결과, 키워드는 ‘가족들이 모인 집’, ‘지역사회의 순화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연결’, ‘관계 맺는 것’, ‘이웃들 관계’, ‘지역성+공동목적’이다.

“마을이라고 함은 **가족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복지관에서 클라이언트를 대면할 때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을 해결하듯이 큰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큰 마을에도 저희 복지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마을의 강점, 약점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도 캐치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복지관으로서 함께 케어해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마을이나 공동체나 뭐 동어반복적인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오히려 지역사회라는 말은 주민분들에게 조금 더 멀게 느껴지는 말일 수 있으니까 좀 쉽게 풀어서 약간 **정감있는 언어**

로 순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마을에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아우르는 그래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으로 개념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을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가장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옛날에 살던 그런 동네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들을 현재에 적용해보았을 때 지금 더 추구해야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그 안에서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중략) 마을공동체라는 것들도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서로 관계 맺고 서로 저녁 먹으면서 자기 집안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관계 맺는 것들이** 마을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서로 관계, 그러한 것들이 서로 **얽히고설킬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이웃들이 모여서 서로 관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정도가...”

“그런 것처럼 약간 뭔가 **지리적인 중첩**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공동의 목적**이라는 어떤 공동체의 목적? 뭐랄까 관심사? 관심거리? 이러한 것들이 두 개가 맞물려야 되지 않나 싶고...”

②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강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강점은 ‘행정력 강함’, ‘복지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분류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맨날 **행정이 부족해** 그러면 **복지관이 서포트** 해줄 수 있고. 활동력이 부족한 것은 시민사회단체랑 서로 상호보완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사실 사회복지관이라는 곳은 공적으로. 주민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소위말해 좋은 것을 하는 곳이라는 기본적인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 활동들을 하자라고 주민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복지관에서 나왔다고 하면 크게 **거부감 없이 일단 받아들이는** 부분도 강점이지 않을까.”

③ 마을공동체 추구의 어려움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 실무자 그룹과 마찬가지로 현장조사 결과의 분류 기준으로 범주화 하였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i) 사회복지관 내 조직 환경 : ‘기관 목적 상충’, ‘찾은 이직’, ‘장기적 투자 어려움’

“복지관에서는 제일 좋은 건 프로포절 잘해서 평가 잘 받으면 좋은 거고. (중략) **후원 많이 따오고 프로포절 많이 따오고** 그러한 것들이 복지관의 최우선이잖아요...”

“1년 동안 정말 네트워크 지역사회 나가서 지역활동가들과 활동하던 사람이 1년 있다가 **이직**을 한다던지 그러면 그 **성과물이 또 제로**. 다시 돌아가서 누군가를 다시 키워야 하는...”

“사업이 복지사들이 한 가지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이거 **결과물 나오기 어려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쓴다는 것 자체가 복지관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ii) 사회복지사 특성 : ‘행정가 마인드’

“복지사들은 거의 **행정가 마인드**가 많죠. 사실적으로 많아요. 활동가 마인드 보다 행정. 왜냐하면 워낙 복지관 평가나 이런 것을 받다보니까 행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활동가 마인드를 갖고서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고....”

iii) 행정기관 특성: ‘평가로 인한 경쟁’, ‘보여주기식 성과’, ‘자생력 떨어뜨리는 구조’, ‘사업중복구조’, ‘척도 부재’, ‘활동가 지원 부재’

“우리도 평가하잖아요. 그 **평가에서 오는 서로 경쟁**? 우리 대상자 안주려고 몇 년 몇 십 년째 쌓아오다 보니까. 복지관들끼리도 교류라는 것도 잘되는 곳은 잘되겠지만 암묵적으로 오픈을 안 하잖아요...”

“평가받는 시점에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저희는 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

놓은 상황에서 나타낼 수 있는 **성과들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보여줘야 하는 상황들도 있고...**"

"재정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자생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없지 않아 걱정이 되고 (중략)그리고 지금 저희 심사하시는 몇 번 심사위원들하고 몇 번 잠깐 얘기 해봤더니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보니까. (중략) 일단 신청해봐 이런 개념이라고 해야 하나?"

"**기존 지역복지 업무와 차별성이 크게 있지 않은 점**. 이런 것들도 이름만 다르지 나눔이웃도 예전에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이나 등등등. 있던 것을 나눔이웃으로 하는 거고. 사실 주민들이 더 헛갈려하죠."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척도 이러한 것들이 참 애매**하다는 거죠. 척도집을 찾아봐도 조직화 라던가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성과정도? 3년치 5년치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가해내기 위한 어떤 기준들이 없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ex.공공예술가 등)에 대한 지원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일자리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발굴. 계속 해라 이런 것이잖아요. 지역사회 내에서. 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자리를 더 늘리고 그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도 같이 들어가야만..."

iv) 지역사회 특성 :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실망'

"대부분 기관에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기관에 대한 실망감**이 있으신 것 같다. 저희 기관은 예전부터 신입직원 교육을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고 밖으로 내보내서 주민 만나라고 일주일동안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간다는 것을 중요시 했었는데. 그런데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활동하는 점이나 주민들을 철저히 프로그램 대상으로 보는 다른 기관이랑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중략) 철저히 주민들을 프로그램 참여자로만 봤지 같이 간다는 생각들이 주민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적극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v) 주민조직 형성 및 조직 : '주민 쏠림', '토착주민들의 관변화'

"한정된 그분들을 데리고 공동체사업을 하겠다는 주체들은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중략) 사업을 하려고 의도도 좋고 주민의 어떤 흐름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주민들과 함께하려다 보니 **이분이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만약에 제가 그분이라면 이게 직업도 아닌데 여기저기 함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주민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지만 마을 **토착리더들, 통장님들** 상당수 인데. 그분들이 인식이나 이런 것이 저희와 많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오신 것들이 있어서. 소통은 되지만 일하는 방식이 이러한 것들이 **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vi) 네트워크 형성 및 조직 : ‘시민단체와 실행력 차이’ , ‘시민단체와 달리 지역주민 아님’

“복지관의 경우 협력 사업을 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공문이 오고가고 진행 과정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풀뿌리단체는 소리 소문 없이 같은 지역에 있는 이런 시민운동가들이 끼리 쉽게 잘 모이거든요? 저녁때도 자주 모여서 술도 많이 마시고 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바로바로 진행되다 보니까 복지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듣는 부분이 느낄 수가 있고 시민단체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나왔던 얘기들을 바로바로 또 다시 그 다음날 모여서 **너무나 프리하게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니까 한계점이 부딪친 부분이...”

“**기관적인 입장에서 참여하느냐 지역주민으로서 참여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주민이자 기관의 입장에서는 직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풀뿌리단체와 이러한 부분에서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복지관 그러니까 복지기관들과 풀뿌리단체들과의 이걸 생각하는 부분이 좀 부딪칠 것이 너무 많다고 해야 할까요?”

④ 마을공동체를 위해 바라는 점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점을 분류한 기준처럼 마을공동체 관련 주체별로 크게 개방코딩을 하고, 범주화하여 키워드들을 도출하였다.

i) 사회복지관 : ‘장기적 관계 맺기’ , ‘장기적인 투자’ , ‘공동체 욕구 조사’ , ‘주민 역량강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천천히 옆에서 보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3년 5년 그렇게 하면서 지금 10년 관계를 맺어 가는데. 이분들(시민단체들)은 지역 안에서 필요하겠다 생기면 서로 안에서 만들어 가는... (중략) **서로를 알아 가야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도 10년 이상 계속해서 걸리는 건 맞는 것 같고...”

“**결과물이 없는 것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야한다는 거예요. (중략) 복지사가 계속 밖에 나가서 지역사회활동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과물이 없을 지라도 예를 들어서 5~6개월, 장기적으로 1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어서 그만두는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3년 5년을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공동체에 대한 욕구들 주민들의 욕구가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지역주민들 문제점 해결되는 등,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교육정도나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더. 이것도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한 **교육 훈련** 쪽으로 해도 힘 들들이면서 더 지역 안에서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ii) 서울시복지재단 : ‘현실에 맞는 마을공동체 정의’, ‘기존사업 사례발굴’, ‘주민 홍보’

“뭐 세대통합형 마을공동체. 무슨 형 마을공동체. 앞에다 뭐 갖다 붙이면...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관** **현실에 맞는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복지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마을공동체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러한 것들을 샘플로 지역에서 활성화 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새롭게 사업을 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사업에서 모델이 될 만한 사례를 발굴**해 나가는 걸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지금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중략) 마을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하나의 유행처럼 되지

않을까 (중략) 저같이 지역에 무관심한 이러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고가 먼저 좀...”

iii) 서울시 :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 , ‘활동가(주민) 지원’

“아파트 단지나 재개발 때문에 일부 들어선 것 빼고는 지금 많게는 5대까지 사시는 지역이 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를 굳이 북적북적 일부러 푸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분위기 자체는 평상 두고 놓고 이런 분위기. (중략) **지역적인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 그 안에서 같이 풀어 가면 좋을 것 같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장이 제도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해요. (중략) 다음을 이어나갈 세대를 준비해야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에 생계유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활동가들에게 활동비 정도는 지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도?**”

iv) 자치구 : ‘복지관과의 역할 분담’

“결국엔 구청에서 잘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을 살려서** 한다면. 이분들을 관리하는 행정적인 부분을 구청에서 다 맡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을 맡는 것은 복지관? 그러면 구청하고는 협력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3) 사회복지관 외 유관기관 실무자

① 마을공동체 정의

사회복지관 외 마을공동체를 함께 이루기 위한 유관기관 실무자가 언급한 마을공동체 정의의 범주화 결과는 ‘상호호혜성’, ‘주민조직의 핵심키워드’, ‘스스로 참여해서 풀어내는 방식’, ‘특별한 목적없이 사람들이 오고가며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동네 안에 있는 것’ 이었다.

“그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호호혜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형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필요를 필요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관계를 맺고 관계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꿔주고 남는 것은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마을공동체 전체적인 행위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동체는 **주민조직의 핵심키워드**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구요. 주민조직을 핵심키워드로 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복지를 했으니까 복지할 때 아주 개론 수준으로 사회적 책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적 책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과 맞물리는 것 같아서 **스스로 참여해서 풀어내는 방식?**”

“삼수변에다가 물을 공유하는, 우물을 공유하는 데에서 동네라고 하더라구요. 그 공동체나 동네나 공동으로 소유하겠다는 개념, 그리고 공동의 문명체를 함께하는. 거기에서 시작했거든요. 요즘의 공동체와는 어떻게 접속할 것인가 고민했어요. 그런데 마을이라는 뜻은 동네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주목을 좀 해봤는데요. 마을이 그냥 주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마을다니다. 좀 마실다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마실다니다라는 말의 표준어가 마을다니다인데. 그니깐 서로 좀 왕래하고 소통하고 다니는 것을 마실다니다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한 목적 없이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 커뮤니티의 개념이 그것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동네 안에 있는 것...**”

② 마을공동체 필요성

유관기관 실무자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은 ‘계속 줘도 불만족스러운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들의 관계망 보완’ 이었다.

“이제는 뭘 줘도 만족스럽지 않다. 돈을 많이 주고 물건을 많이 주고 프로그램을 많이 준다 해도 그 안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공동체가 분명한 화두라는 생각은 들었구요.”

“사회적 약자분들이예요. 예를 들면 엄마들. 아이 하나일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둘 이상 되면 데리고 다니기가 힘들죠. 멀리 다니기가 힘들고. 그러면은 동네에서 찾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마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뭘 수 없는 그런 것에서 이 사람들의 **관계망이 보완되고...**”

③ 마을공동체 추구의 어려움

사회복지관 외 실무자들은 마을공동체를 추구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관 실무자와 비슷한 범주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를 외부자의 입장에서 복지관의 상황, 행정기관의 특성, 특히, 네트워크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i) 사회복지관 특성 : ‘찾은 이직’ , ‘사업 우선순위’ , ‘운동-사업 접합 힘들’ , ‘복지관 소외’

“생활 속에서 녹여나가기에는 워낙 사회복지직은 **이직률도 높고** 그러다보니까 생활공동체 안에 깊숙이 못 들어가는 한계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구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다른 일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하는 부분들을 공동체 안에서 풀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직접지원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는 거구.”

“운동과 사업이 접합이 되어야 같은 애긴데. 근데 여기에서는 **운동성을 가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못만들고 있는 것**이죠. 복지관에서는요.”

“**복지관이 소외**되고 약간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좀 시각을 조금 달리해야 한다.”

ii) 행정기관의 특성 : ‘탑다운 공모사업형식’ , ‘서로 견제하는 상황’ , ‘걸러지지 않는 사업 내리기’

“지역에서 배제되는 분들을 사업으로 묶어내기에는 이게 자발성을 가지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들잖아요. 그 분들을 서포팅하고 지원해주는 것.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돈줄테니 빨리 내라...**”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떨어지니까 20~30년씩 같이 활동을 했던 단체들이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 되는거예요. 저희도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휴카페를 냈고, 저기도 마을 휴카페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모르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마을사업이 비처럼 내려오니까** 이제 이 사업에서 왜 복지관에서는 전향적으로 안 나오냐, (중략) 한 10개가 내려오면 반가운거 2~3개밖에 안돼요. 7~8개는 죽겠죠 아주. 또와요.”

iii) 네트워크 형성 및 조직: ‘선입견과 편견’, ‘몇 개 복지관으로 쓸림’, ‘점점 흐지부지’

“만나는 자세 자체도 저희도 문제가 있겠지만 민간이나 시민단체도 약간의 **선입견과 편견**이 만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고. 물론 그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인터액션하고 네트워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싶어서.”

“마을만들기라고 그동안 논의하고 같이 모였던 단위들은 주로 시민단체들이 많았구요. 그리고 조금 더 지역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자 했던 복지단체 몇 개만 같이 참여하고 있지, 많은 복지단체들이 같이 공동체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 단체들은 계속 복지단체들이 계속 같이 해야 하는 역할들도 있고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몇 개 복지단체에 과부하**가 걸려서요.”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끝나면 뭔가 좀 새로운 지역의 문화를 기획하는 단체를 해보자. 저도 참석했지만 말뿐이에요. 끝나면 각자가.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에 조금 모이죠. 하지만 **점점 흐지부지** 되는 것도 몇 년째예요. 나가질 못하더라구요. 왜냐하면 도봉은 단체중심이 더 강해서. 그것들을 뛰어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죠. 복지관뿐만이 아니죠. 각자 속한 기관에 정체성을 유지하려면은 계속 뭔가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죠.”

vi) 주민조직 형성 및 조직: ‘주민자치위원회 비건강성’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셔갖고 굉장히 원성을 높이고 화를 내셨어요. (중략) 어쨌든간 지역에서 동단위에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그것이 관주변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10년 20년 내가 활동을 해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새로운 세팅만 갖고 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냐.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의 문제를 짚어주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지. 나를 그동안에 지역에서 활동해왔던 부분들을 다 그렇게 저평가하고 새로운 세팅을 만드는 것이 정말 건강한

것이나라고 이야기 하시고 목소리가 높아져서...”

v) 교육부재 : ‘후배들 인계 부족’

“저는 사회복지쪽에서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를 보는 관점에 대한 후배들의 인계에 대한** 그런 것이 거의 끊어졌죠.”

④ 마을공동체를 위해 바라는 점

사회복지관 외부의 시선으로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제언을 하였으며,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키워드를 가장 잘 드러낸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i) 사회복지관 : ‘결과보다 과정을 배우기’, ‘사업경험 공유로 관계 형성’, ‘장소 개방’, ‘관과 시민단체 사이의 매개자’, ‘관련단체의 활동 인정’, ‘사회복지사 행정력 활용’, ‘현장감 있는 주민 욕구 발굴’

“(우수사례 마을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태생을 볼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과정을 봐야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주민들간에 어떻게 관계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나고 모였고, 만나고 함께하고 밥먹고 술먹고 하는지 이런 과정들은 사실 공동체의 근간이잖아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은 **사업경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들을 만들어가면서 관계가 생기고, 이렇게 한번 협동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다른 사업이나 관계를 또 만들어가는 풀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부분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고 만드는 사업이 중요한 것 같구요.”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지역에 어떤 ‘곳’이라는 **장소의 개념들을 열어두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내가 뭔가를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뭔가 필요해서 회의장소나 하다못해서 우리끼리 다과를 하거나 카페를 갈 돈이 없어서 모임장소가 복지관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서울시 차원에서 공공 전달체계 차원에서 지금 공동체 얘기를 하고 있는거잖아요. 그 관계적으로 중간에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통역사. 통역사를 키우자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들었던 부분이 시민단체에서는 복지관이 너무 관에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마다 물론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복지관이 그래도 그렇게 공공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처럼 **통역의 역할.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회적 약자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동네에서 그분들(주민자치위원회)이 어깨를 으스대든 뭘 하든 사실은 지역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역할이나 자원봉사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하셨고. 오히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의 이해관계 안에서 활동을 했지, 사회적 약자에 눈을 많이 돌리지는 오히려 안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관련단체 그동안 활동이나 경험이 어느 부분에서는 끌어안고 갖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인맥이 있으신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한번만 봐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은 앉은지 30초만에 앉아서 이렇게 해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도움이 네트워킹이 되면 같은 사업을 만나는 주민이 같이하면서 **사회복지사님들의 행정력이 합해지면...**”

“복지관에서 지역복지를 하면서 하다못해 반찬배달 등을 하는 자원봉사들까지 하는 모든 정보를 계속 요구를 하는거예요. 나갈 때 뭐가 필요한지, 지역에 가장 필요한. 반찬배달나가는 그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방과후 교실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아이들을 물어보고 발굴해서... (중략) 실제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지역에서 필요한 조사가 되고, 그것들에 대응하는. 필요에 부응하는 지점이 바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

ii) 서울시복지재단 : ‘평가틀 개발’, ‘주민 교육’

“**평가틀** 자체가 생활공동체에 들어가는 것들을 평가하고 그러면 기관의 우선순위도 분명히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성과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체계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가 복지재단의 과제가 아닌가요?”

“마을공동체 주체역할을 할 마을리더나 활동가들을 **교육사업**들이 전무후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마을공동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끼리 해볼 수 있게 이런 것들. 많이 빼거덕 거리고 낫설어하시고...”

iii) 서울시 : ‘비경쟁 구조 만들기’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경쟁을 해야하느냐 그래서 전원 사업계획서를 같이 쓰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일상적으로 만들어가자라고 해서 제가 마을마다이라는 잔치를 또 만들었어요. 각단위의 마을의 단체들이 책임지고 하자라고 해서 지난주에 창립총회하고 그래서 단체들끼리 **경쟁을 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거...**”

4) 사회복지관 마을사업 참여주민

① 마을공동체 정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주민간의 화합’, ‘서로 알아가기’, ‘자연스러운 사람 사이의 소통’ 이었다.

“아파트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이웃 간에... 그 화합, 주민들 간에 화합.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죽어서 몇 일 동안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해서 관리소같이 와서 문 따고 들어가면 죽어있는 경우가 가끔씩 일어나요. 우리 단지에서...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단절되어 있다. 이웃이 너무 모르고 산다. 이런 것이 진짜 사람이 사는 데에서 옆집에 사람이 죽어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간에 화합이 잘 이루어져서 내 옆집 누가 산다라고 해서 서로 안부를 묻는 식으로 하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마을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관심을 갖는 것? 동네 일에 관심 갖고 이웃을 좀 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 그냥 동네일만 하라고 하면 지치는 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하면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 아이가 다시 와서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공동체가 아닌가라고 생

각이 들거든요. (중략) 지금의 마을만들기 사업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좋아지게 하는 거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우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마을이구요. 그러다보면 사람사이의 **소통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② 활동 동기

마을공동체는 주민과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 동기가 중요하다. ‘교육프로그램으로 시작’, ‘쉬운 일부터 시작’, ‘행사 기획’, ‘동대표 활동’ 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주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어요. (중략) 저도 처음해보는 일이고 나오는 주민들이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마을을 위해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인데... 그때만 해도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 **쉬운 것부터** 하자.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해서 청소부터 하자. 만들어진 것이 몇 개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자율방법 도는 것. 놀이터 우범 지역일 수 있잖아요. 횡단보도 정리하는 것...(중략)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어린이 날 행사. 원래 시민단체 모임들이 있었는데 **행사 기획하다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지금 oo넷에서 행사를 기획 주관하고 있구요. 민선 5기 당선되어서 구청 행사까지 같이 하고 있구요. 시작은 그렇게 같이 했구요.”

“관장님이 주민하고 소통할 길이 없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동대표하고 통장**하고 된거예요. 맨 처음에 그때 제가 동대표 총무였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어서 꾸준히 이끌어나가면서 주민과 관계,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서 발족을 한거예요. (중략) 그 씨앗이 계속 남아있는거예요. 과거에 통장했던 사람, 또 새로 영입한 사람, 부녀회 회원들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③ 사회복지관과의 관계

현재까지 사회복지관에서의 마을사업 안의 활동 주민으로써 복지관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고기잡는 법을 알려줌’, ‘교육’, ‘공간 빌려줌’ 으로 범주화가 가능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함이 강조되었으며, 사회복지관은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다.

“복지관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홉 개를 알면 열 개를 알게끔하세요. **고기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 회원들이 전부 다 합니다. 복지관이 이거하라 저거하라는 없어요. 아이템을 해서 하면 복지관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설을 쓰게 해주신다던가, 상하반기 연수를 갈 때 차편을 주시던가, 장소를 알려주신다든가 이런 것 하시고. 복지관이 돈도 조금 써주세요.”

“**보수교육**도 시켰어요. 집에만 있던 엄마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니깐. 일년동안 교육을 받긴 했지만 직접 아이들을 만나면서 인권같은거? 필요로 하는 보수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왔을 때도 교육을 네 차례정도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한 2년에서 3년? 지금은 거의 도움 안받고 있는데 활동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복지관에 연락은 해요. 든든한 백같이...”

“지금은 거의 도움 안받고, 1:1로 네트워크하는 관계예요. 그런지는 꽤 오래 됐어요. 2003년에 교육받고 2005년부터 공부방이 시작되었으면, 어린이날 행사할 때도 따로 우리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2007년 신문교육하는 것부터는 완전히 독립했어요. 하지만 그 양성과정은 **복지관 공간을 활용**한거죠.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일단 복지관에 연락해요.”

④ 활동 시 어려운 점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때, ‘회원모집의 어려움’,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복지관’, ‘주민들의 역량 약함’, ‘반복적인 담당자 변경’을 어려운 점으로 범주화되었다.

“**회원모집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반대떡을 부쳐서 돌렸는데도 호응이 없어요. 관심 이런 것이 없어요. 지인, 아는 사람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해서 섭외가 되지. 교육으로는 안되더라고요.”

“**너무 포장이나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함께 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같이 주민들과 함께 해서 끌여가는 것...”

“복지사 선생님들이 세팅하고 주민들이 이끌어갔는데.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주민들이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단지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000운동회(주민조직들의 모임)도 팀을 짜서 업무를 다 짜지만 주도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하지 주민들이 잘 안되더라고요. 복지관 선생님들이 이끌어 가더라고요. (중략) 젊은 층이 없는 데는 그것이 더 힘들어요.”

“답답한 점은 구, 관이랑 일 했을 때 답답한 점은 **담당자가 바뀌는 문제**. 공무원들이 인수인계를 잘 안하시더라구요. 그냥 가시고, 안되니까 저희같이 사업 같이 하는 단위들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해서 그 분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힘든 것 같아요.”

⑤ 사회복지관에 바라는 점

사회복지관이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제언을 한 주체는 사회복지관에 한 한정되었다. 주민들은 사회복지관에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이었으며, 바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공간 마련’, ‘주민들 참여유도’, ‘축매제와 거점역할’, ‘서류 행정적 핸들링’, ‘최소한의 서포터즈’로 범주화 되었다.

“**공간이 필요**해요. 주민들이 너도나도 가서 차한잔 마실 수 있고, 또 모임을 갖는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복지관은 시간이 되면 밤에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 제한 없이 정보공유를 할 때 모여서 차한잔 나누면서 할 수 있는 데 그런 장소가 없어요. 복지관은 시간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늦게까지는 사용을 못하고요.”

“역마다 다른 작은 문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풍물패 놀이를 한다든가 문화들을 좀 잘 찾아내서 발전시키면서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민속놀이도 그렇구요. 청소년이라든가 아이들한테도 그게 바람직하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유도를 해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옛날처럼 못살 때는 마을만들기가 필요하겠죠. 목적이 확실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생활의 불편함이 거의 없잖아요. 마을만들기에 대한 것이 취약하고. 학력도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개인주의가 강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엮을까. 주민조직은 그런 전문성은 없잖아요. 그런 전문성을 도와주는 부분에 **축매역할이나 거점역할**을 해주시는 부분이 많이 생겨나야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맞는 고민을 복지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저희보다는 고민이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류 행정적인 핸들링**이 주민들보다는 복지관에서 해주시는 것들이...”

“복지사들이 **최소한의 서포터즈**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갈 수 있게. 물론 연세들이 많다고 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야되지. 그것이 복지관 의지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복지관을 의지해요. (중략) 마을공동체 형성 주체의 역할은 나부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것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복지사들이 모지라다고 한다면 분야를 많이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예요. 다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쪽이 좋아요.”

5) 소결

지금까지 4개의 그룹에서 진행한 FGI 결과를 정리하여, 각 그룹별 특이성을 파악하였다. 각 그룹에서 진행된 질문과 도출된 키워드들을 나열하고 비교·대조하여 그룹 간에 동일한 점과 상이한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룹 간 질문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거의 모든 그룹에서 질문된 ‘마을공동체 정의’, ‘강점’, ‘어려움’, ‘바라는 점’을 기준으로 도출된 키워드들을 정리하였다.

<표4-4> FGI 결과 비교 · 대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외	
	①	②	③	④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공동체 ° 주민의 힘 ° 운동 지향 ° 주제 묶기 °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들이 모인 집 ° 지역사회 순화어 °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연결 ° 관계 맺는 것 ° 이웃들 관계 ° 지역성+공동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호혜성 ° 주민조직 키워드 ° 자발적 참여 방식 ° 목적없이 사람들이 오고가며 관계 맺음 ° 해결할 수 있는 것 동네 안에 있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간의 화합 ° 서로 알아가기 ° 자연스러운 사람 사이의 소통
강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소한 교류 많음 ° 복지관에 호의적 ° 관심사 수합 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력 강함 ° 복지관 대한 긍정적 인식 	-	-
어 려 움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부족 ° 공간개방 어려움 ° 선구상, 후조직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목적 상충 ° 잦은 이직 ° 장기적 투자 힘들 ° 행정가 마인드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잦은 이직 ° 사업 우선순위 ° 운동사업 접합 힘들 ° 복지관 소외 	<활동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모집의 어려움 °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복지관 ° 주민들 역량 약함 ° 반복적 담당자 변경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중요시 ° 일괄적 압박 ° 역할분담 부재 ° 행정기관 분할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로 인한 경쟁 ° 보여주기식 성과 ° 자생력 낮추는 구조 ° 사업중복구조 ° 척도 부재 ° 활동가 지원 부재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다운 공모사업형식 ° 서로 견제 상황 ° 걸리지 않는 사업 내리기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조직화 힘들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역사회 실망 	-	
	<주민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중심 ° 자발성 부족 	<주민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쏠림 ° 토착주민 관변화 	<주민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회 비건 강성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형식적 네트워크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와 실행력 차이 ° 지역주민 아님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입견과 편견 ° 소수 복지관 쏠림 ° 점점 호지부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관점 반감 ° 복지관 역할혼란 ° 교육부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배들 인계 부족 	

바 라 는 점	<사회복지관> ° 직원 간 동의 ° 기관 전체 일이라는 동의 ° 주민들 설득과 교육 ° 직접 나가 여쭙기 ° 주민조직 최소예산투 여 ° 기관장 마인드	<사회복지관> ° 장기적 관계 맺기 ° 장기적 투자 ° 공동체 욕구 조사 ° 주민 역량강화	<사회복지관> ° 결과보다 과정배우기 ° 사업경험 공유로 관 계 형성 ° 장소 개방 ° 관과 시민단체 사이 매개자 ° 관변단체 활동 인정 ° 사회복지사 행정력 활용 ° 현장감 있는 주민 욕 구 발굴	<사회복지관> ° 공간 마련 ° 주민들 참여유도 ° 촉매제와 거점역할 ° 서류 행정적 핸들링 ° 최소한의 서포터즈
	<서울시복지재단> ° 유사사업 정리로 혼 란 사전 방지	<서울시복지재단> ° 현실에 맞는 마을공 동체 정의 ° 기존사업 사례발굴 ° 주민 홍보	<서울시복지재단> ° 평가틀 개발 ° 주민 교육	
	<서울시> ° 인력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사 업진행	<서울시> ° 지역특성에 맞는 정 책 지원 ° 활동가(주민) 지원	<서울시> ° 비경쟁 구조 만들기	
	<자치구> ° 1:1파트너십	<자치구> ° 복지관과의 역할분담	-	

위의 표를 보면 마을공동체의 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의 실무자와 마을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유사했다. 주민을 강조하고, 소통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그 외 지역의 사회복지관 실무자와 유관기관 실무자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관계를 강조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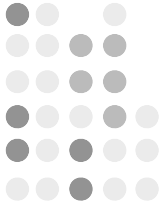
강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실무자에게만 물어봤는데, 그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의 경우 강점이 두드러졌다. 상대적으로 교류가 더 많고, 관심사 수합이 쉽다는 큰 장점이 있었으며, 그 외 지역의 사회복지관이 언급한 강점은 모든 사회복지관에 해당하는 사항이었다. 공통적으로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강점은 행정력이 강하다는 것이었으며, 복지관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방해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룹별로 상관없이 유사하였다. 이는 아직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형성의 정도가 상이하지 않

으며, 욕구 정도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실천 주체로 분류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 실무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민조직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았으며, 그 외 지역 사회복지관 실무자의 경우는 마을공동체 정의를 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사회복지관 실무자 외의 입장에서도 사회복지관 실무자와의 네트워크의 측면을 더 강조하여 매개자의 역할, 관계 형성의 경험을 강조하였다. 마을사업 참여주민의 경우는 사회복지관이 그들의 고유한 공간을 마련해주길 바랐으며, 서류처리 등 행정의 일과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의 역할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실무자주도가 아닌 주민주도로 가기 위해 최소한의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바라는 점은 사업정리와 마을공동체 정의 및 사례발굴, 평가를 개발, 주민 교육으로 거의 유사하였으며, 서울시에 바라는 점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과 인력지원을 바랐다. 마지막으로 자치구에 바라는 점은 민관거버넌스를 위한 1:1파트너십과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복지관과의 역할분담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설문조사, 현장조사, FGI결과들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거점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05 | 제언 및 결론 |



제5장 제언 및 결론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 및 필요성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FGI를 통해서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관련 실태와 욕구, 그리고 바라는 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거점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1. 사회복지관 거점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방안

복지분야에 있어서 마을공동체를 연결시켜 논한 초기의 연구인 홍현미라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복지마을만들기를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복지마을만들기란 교육이나 범죄, 의료와 같은 사회문제나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를 마을만들기 사업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마을만들기 사업 방식이란 낙후된 물리적 공간에 대한 공간재생 방식과 더불어 지역화된 빈곤문제 해결을 함께 도모하는 경제재생을 포함한다. 방식에 있어서는 생활환경에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참여방식을 결합한 실천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상헌 외(2012)는 복지마을이란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역사회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조직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경제를 토대로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자원개발 등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상호 연계, 협력하여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지역복지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방식을 강조한 지역사회 내의 문제해결과 욕구충족을 위한 과정과 결과물을 통칭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포함하여 기타 다양한 마을공동체 실천 단위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관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실태와 그들의 욕구 및 바라는 점

등을 실태조사와 인터뷰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파악된 내용들을 2장에서 상술한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 관련 개념들의 관계, 사회복지 관점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접합하여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도출하고자 한다.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 관련개념들을 다양하게 논의한 결과, 구성된 틀은 두 가지였다. 첫째,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단위주체’ 이다. 사회복지관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전체적인 관계망의 연결점 또는 중심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관과 이를 둘러싼 주체들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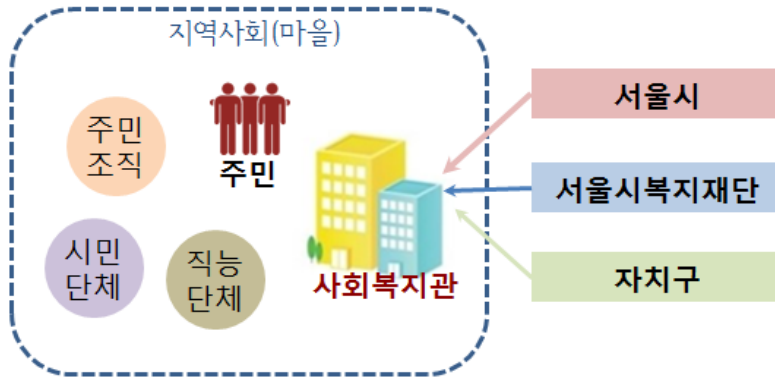
둘째,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실천전략’ 이다. 실천전략은 실천단위주체와 맞물리는데,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관 소재 지역특성별·마을공동체 발전단계별로 분류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1) 마을공동체 실천단위 주체별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마을) 범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활성화 전략을 살펴보았다. 마을의 범위는 첫째,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마을로 사회문제가 노정된 공간이거나 취약계층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리적 공간단위를 일차적인 범위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문제나 이슈 중심의 기능적 공간으로서 사회문제로 인한 이해관계나 관심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범위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이 인식하는 경계도 실질적인 마을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 거점 마을공동체를 논하고 있다. 실태조사와 인터뷰 결과, 사회복지관을 기준으로 기관의 관점에서 사업 및 서비스 제공 지역을 마을의 범위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인 인구 10만명 단위를 마을의 경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계는 닫힌 경계(closed boundary)가 아니라

열린 경계(open boundary)로 소통하는 각 주체단위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유동적인 마을경계를 만든다.



[그림5-1] 마을공동체 주체

사회복지관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생각한다면, 마을 경계 안에 주민과 주민조직(풀뿌리주민조직), 시민단체, 직능단체, 사회복지관이 존재하고, 마을 경계 밖에서 사회복지관 거점 마을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체는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이 있다.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지역사회 안의 주체는 사회복지관 외에도 다양하지만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활성화 전략을 논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민이나 주민조직, 시민단체, 직능단체 모두 사회복지관과의 관계 안에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모두가 사회복지관의 역할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을의 경계 밖에서 서울시나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은 사회복지관에 상호 영향을 주며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홍현미라 외(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 주체들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의 외부체계에서 첫째,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소관 담당과가 추진주체가 되고, 사회복지관이 마을 안에서 지역중심으로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기획 및 환경 조성을 담당한다. 이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

원단의 형태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존재한다. 둘째, 자치구는 다양한 소관부서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함께 지원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책정, 의회와의 공조체제 등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구 산하에 지역복지협의체가 존재하여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지역의 기관들의 복지 정보 공유 및 지역내 DB구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서울시복지재단은 전체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시나 자치구와 같은 행정기관, 사회복지관, 풀뿌리주민조직 등 마을공동체 각 주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사회복지관이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주체들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와 표준모델안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의 내부체계에서 사회복지관은 2장에서 언급했듯이 태생적으로 근린지역사회(neighborhood)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 회복과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며, 마을 내부자의 입장에서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여 일상적 사회적 접촉과 공적 신뢰 관계망을 만들어내며,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돕는다.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실태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역할	전략
(수집가, 분석가) 마을육구파악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나가 여쭙기 • 현장감 가진 육구 발굴
(조력자, 촉진자) 주민조직 형성 ·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설득과 교육 • 장소공유
(매개자) 관, 시민단체, 주민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공유로 관계 형성

조직문화 : 전 직원 마을공동체 정체성 공감과 확산

조직환경 : 탄력근무제 등 마을공동체 사업지향환경

제도 · 환경	서울시 복지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기관장, 공무원 등 마을공동체 교육 총괄 - 시민과 주민들 마을공동체 홍보 - 과정중심 마을공동체 평가 척도 구축 - 지역복지 관련 사업 통합
	서울시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전담인력 지원 - 마을공동체 예산지원 - 실적중심 → 과정중심 · 질적평가 - 공모방식지원 → 마을공동체 수준 · 특성별 지원 - 행정부서별 중복해소, 절차 통합 - 민관 파트너십 공조

관
점

주민주도성 / 장기적 시각

[그림5-2] 사회복지관 거점 마을공동체 활성화 체계

사회복지관이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을 위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 내외부의 모든 실천주체들의 기저에 흐르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주민주도성이다. 마을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관중심’의 관점보다는 ‘주민중심’의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주민들은 사회복지사나 행정기관들의 실무자와는 달리 마을공동체 활동에의 참여가 ‘과업’이 아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형성

을 위한 각 주체 사이에서 ‘관계형성’ 및 ‘신뢰구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특성상 ‘투입’ 대비 ‘산출’이 뚜렷하지 않으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으로 그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단위주체들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 전제된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서울시 · 자치구

상술한 두 가지 관점을 기저로 하여, 사회복지관이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을 둘러싼 제도 및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마을 경계의 외부에 존재하지만 마을 내부에서 사회복지관이 마을공동체 지향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운영은 시비와 구비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재정지원에 따른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심사와 사회복지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관 거점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첫째, 현장조사와 인터뷰 결과, 실무자가 언급한 어려움 중 가장 큰 부분은 담당 인력과 예산 부족이었다. 특히, 시간 소요가 많은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의 특성상 지역사회에 나가 주민들을 만나고 관계 형성을 할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2년 새로 개정된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상, 지역조직화기능은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외에 자원 개발 및 관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독립적인 예산지원은 더욱 필요하다. 둘째, 실적중심의 시각을 과정중심으로 바꾸고, 복지관 평가에 수치로 산출되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통 등 마을공동체 형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질적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예산지원 방식과도 관련된 것으로 공모방식의 지원보다는 각 마을공동체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서울시나 각 자치구의 지역복지 관련 소관 부서나 팀 등은 칸막이 행정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와 관련

된 업무를 다루는 행정부서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복을 해소하고 절차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하였으며, 자치구별 센터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과 행정기관들의 사이에서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민관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중간 매개 역할을 하기 위해 각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 하지만 현재 협의체는 그 기능이 미약한 경우가 많으며, 활용가능성에 비해 현 역할이 적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활성화 시키고 민관 파트너십의 공조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2)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자치구와 더불어 사회복지관이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역할도 중요하다. 첫째,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서울시복지재단의 교육의 역할이다.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상기한 서울시나 자치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별·마을공동체 발전 단계별로 설계되어야 하며, 마을공동체 사례집이나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등을 제작하고, 교육 커리큘럼 등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시민과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알리고, 시민과 주민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기존 시각을 변화시켜 사회복지관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관 평가를 위해 상기했던 사회복지관 평가에서의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는 사회복지관과 주민 등 모든 마을공동체 실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형성 정도 및 노력을 수치로서 측정할 수 있는 조작화된 척도를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수치화된 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관계 형성 및 사회적 자본 축적의 부분도 평가될 수 있도록 질적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자치구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기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존재했던 지역복지 사업들(예. 희망온돌, 디딤돌, e-폼앗이 등)을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이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이 환경을 조성을 한다면, 그 기초 토양 위에서 사회복지관은 마을공동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 조성과 함께 사회복지관 내에서도 조직환경과 조직문화가 마을공동체 지향으로 변해야 한다. 먼저, 탄력근무제 등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사가 마을에서 실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마을을 이루는 주민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간에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들의 퇴근 후가 사회복지사가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 조직환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복지 관련팀의 몇몇 사회복지사들만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사회복지관 전체가 마을공동체 지향으로 일해야 함이 조직문화에 확산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마을공동체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복지관 내의 전반적인 공감의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²³⁾이 있다. 첫째, 마을의 실질적인 욕구와 이슈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곧 수집가와 분석가의 역할을 의미하며, 사회복지관은 마을 내부에 존재하며 기관 내에서 일상적으로 주민을 만나기 때문에 현장감 있는 욕구를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주민조직을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조력자와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동아리, 자조모임, 봉사조직을 지역사회 안에서 욕구를 발견하고 이슈를 만들어내어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대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과 주민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할

23) 여기서의 전략은 실태조사와 인터뷰 결과 도출된 것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림5-2]에서 언급된 것 말고도 각 역할에 대한 전략은 다양하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본 고에서는 논하지 않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012년에 발간한 「복지관에서 마을지향으로 일하기」 실무도움서를 참고할 수 있다.

수 있다.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에 비하면 사회복지관이 서울시나 자치구에 가깝고, 서울시나 자치구에 비하면 사회복지관이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에 가깝다. 즉, 각 주체들의 사이에서 통역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 한번이라도 사업경험을 공유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을축제 등 여러 단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조율하는 전략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마을공동체 지역특성별·발전단계별 활성화 방안

이어서 지역특성별, 마을공동체 발전단계별로 분류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안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은 조사결과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사회복지관과 그 외 지역 사회복지관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발전수준은 사회복지관의 1단계(시작전단계), 2단계(기초토대구축단계), 3단계(성장발전단계), 4단계(강화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비전 및 방향설정에 관한 박현찬(2012)의 연구 결과, 마을공동체 형성단계를 씨앗마을, 새싹마을, 희망마을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으며, 경기도형 복지마을을 연구한 이상현 외(2012)는 개척형, 발아형, 성장형으로 나누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3단계로 접근한다.

<표5-1> 마을공동체 발전단계

단계	설문조사분류	마을공동체 구축 정도
I	시작전단계	- 복지욕구에 비해 자원이 매우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취약하며, 기존의 마을공동체 형성 노력들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성과가 부족함 - 활동가, 주민리더, 주민조직이 없고, 민관협력네트워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II	기초토대구축단계	- 복지욕구에 비해 자원이 어느 정도 있지만 누락이 발생하고 있음 - 공동 관심사로 주민간 유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주민조직 형성과 네트워크가 발아함
III	성장발전 강화단계	- 마을공동체에 대한 소기의 성과와 공유된 경험을 갖고 있음 -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조직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민관협력을 통해 구체적 사업을 시행함

상술한 지역특성별 발전단계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실태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이상헌 외(2012)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표5-2> 지역특성별 · 발전단계별 활성화 방안

특성 단계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그 외 지역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실태와 주민의식 및 자원조사 - 취약계층 욕구조사 -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다주체의 연계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에 대한 실태 및 의식, 자원조사 - 마을공동체 의제 개발을 위한 모임 개최 - 마을 내 다주체 연합사업 경험 공유 시작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단지 주민들 특성에 맞는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시스템 구축 - 의제별 주민조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도자 양성과 역량강화 - 기존 민관네트워크의 강화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조직 간 네트워크 및 지원 체계 확립 - 단지 내 갈등이나 분쟁조정, 관계증진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내 주민조직들 간의 네트워크와 지원 체계 확립 - 자립 가능한 기반 조성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거나 활성화하려고 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둘 간의 큰 차이는 없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민조직의 형태가 눈에 띄며, 그 외 지역은 네트워크의 형태가 많았다. 더욱 정밀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사회복지관 거점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성과 발전단계별 6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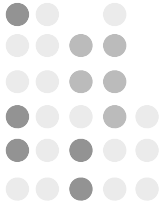
2.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실태와 욕구를 반영하여 복지영역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에 대해 사회복지관에서 협의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확립 및 관점을 정립

하였으며,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사회복지관 거점 마을공동체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상기하였듯이 주체별, 지역특성별·발전단계별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마을공동체 실천주체들로 언급된 사회복지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직접 마을공동체를 꾸려가는 주민, 직능단체, 시민단체, 풀뿌리주민조직 등과 함께 정기적인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복지영역에서의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곧 사회복지관 정체성 논란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마을공동체 거점의 기능을 하는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운영의 제1원칙인 ‘지역성’의 원칙에도 부응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으로 기존 지역사회 문제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거나 예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병덕(2012). 새로운 복지전략으로서의 마을만들기 -가능성과 한계-. 2012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구 · 우윤석 · 신재주 · 김남일(2007).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행정자치부.
- 김기호 · 김도년 · 김세용 · 김은희 · 박소현 · 박재길 · 안현찬 · 이영범 · 이윤석 · 장옥연 · 허윤주 · 황희연(2012). 「우리, 마을만들기」. 나무도시.
- 김보영(2012). 더불어 사는 세상: 도시에서 마을 만들기, 삶의 터로서의 마을. 도시문제, 47(521), 52-55.
- 김세진(2010). 지역공동체 회복운동으로서 지역사회복지관의 활동사례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종일(2012). 「지역사회복지론」. 청목출판사.
- 다무라 아키라(2008). 「마을 만들기 실천」. 장준호 · 김선직 옮김. 형설출판사.
- 라도삼 · 이정현(2012). 「마을문화만들기 사례와 전략 연구」. 서울연구원.
- 마을공동체풀뿌리 TFT(2012). 반가운 이웃, 함께 사는 마을, 살고 싶은 서울. 2차 설명회 자료집.
- 마을만들기전국대회조직위원회(2012). 「천개의 마을이야기 세상을 바꾸다」. 제5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자료집.
- 박현찬(2012)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서울시 마을공동체의 비전 및 방향설정. 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 서울연구원.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연구기획팀(2010). 「신명나는 지역복지 만들기」. 인간과복지.
- 배은석(2008).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의 주민조직화 활성화 방안.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2.3.15][서울특별시조례 제 5262호, 2012.3.15제정]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담당관)

- 서울시복지재단(2010).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하기(성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영 실무도움서 시리즈 5)」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2012).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원기관 주소록」
- 서울시청(2012).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1(2012~2014)」
- 서울연구원(2012).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SDI 2012년 자체연구 현황(내부자료)
- 서울연구원(2012).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안) 마을공동체위원회 자문회의 2012.5.31.
- 서울특별시(2012.9.26).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서태성(2002). 지역발전과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체제 구축방안. 국토, 252, 20-27.
- 송대원 · 정순주(2012). 서울 마을공동체만들기 기초조사 -지역풀뿌리 시민단체 설문 조사- 설문지. 서울마을공동체준비단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신주혜(2010). 마을만들기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오정수 · 류진석(2004).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유기웅 · 정종원 · 김영석 · 김한별(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 유명옥(2006).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실천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광모(2012). 지역복지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유교적 관점, 2012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이봉주(2005).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략과 모델: 사례관리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5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45-66.
- 이상현 · 최영 · 정관영 · 박혜경 · 김화진 · 이상무(2012). 경기도형 복지마을 모형개발과 추진전략 연구. 경기복지재단.
- 이인재(2004). 지역복지운동의 성과와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89-105.
- 전광현(2004). 지역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실천 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5, 119-137.

- 정석(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원.
- 정무성(2002).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인 지역사회조직화의 실천강화를 위한 복지관 평가 방안.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인 지역복지사업 실천방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정무성·김옥규·유영덕·신용규·고이경(2010). 사회복지관 기능정립연구사업 공청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정성훈(2012). 현대 도시에서 마을과 공동체의 긴장. 제8회 도시인문학 국내학술대회 자료집. 42-53.
- 제인 제이콥스(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그린비 크리티컬 컬렉션 11)」. 유강은 옮김. 그린비.
- 최영(2012). 경기도형 복지마을 모형과 추진방안. 복지마을 만들기 현황과 과제 복지마을포럼 자료집. 11-36.
- 현외성(2006). 「사회복지운동론」. 집문당.
- 호은지(2011). 공식적 네트워크 개입이 지역사회복지조직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 도봉구 시민사회단체 및 풀뿌리주민조직을 포함한 조직간 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홍현미라(2005). 지역사회 변화전략으로서의 자원개발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관점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홍현미라·김가을·민소영·이은정·심선경·이민영·윤민화(2010).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홍현미라·이현주·유동철·민소영·김형용·강병덕·최성미(2012).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보건복지부·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황성철(2003). 사회복지관의 정체성과 전문성. 사회복지관 정부보조금 현실화 및 정체성 사수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정부보조금현실화비상대책위원회.
- Hess, D. R.(1999). Community organizing, building, and developing: their relationship to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paper presented on

- COMM_ORG: The On-line Conference on Community Organizing and Development.
- Jacobs, Jane(1992).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Vintage Books..
- Rothman, Jack,(2007). Multi Modes of Intervention at the Macro Level.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5(4):11-40.
- Rubin, Herbert and Irene Rubin(2007). Community Organizing and Development,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Weil, Marie and D. Gamble,(2009). Community Practice Skills: Local to Global Perspect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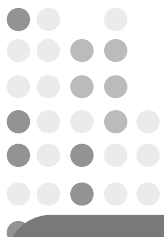
국가균형발전위원회 <http://balance.pa.go.kr/>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관. 「서울시복지재단 웹진 천만다행 vol.57 복지Today」
2012. 1월. <http://diowelfare.cafe24.com/>

서울시청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2012.5.4).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로 사람가치 회복’ 보도자료, 5월 4일자. <http://gov.seoul.go.kr/archives/6905>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http://www.seoulmaeul.org/>

세계도시정보 <http://ubin.krihs.re.kr/>



지역사회 역량강화 기초조사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은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사업 개발을 위해 복지관의 지역사회(마을) 역량강화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참여와 소통 등을 통해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조직화, 네트워크 구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복지관들의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관련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 처리되며, 조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협조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서울시복지재단 지역공동협력팀

담당자 : 기현주(02-2011-0453), 백명희(0431), 호은지(0443)

메일 : hoeunji@welfare.seoul.kr / Fax : 02-2011-0520

본 설문은

기관의 **‘최고중간관리자’(부장급) 또는 ‘중간관리자’(팀·과장급)**께서
기관을 대표하여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답기관	기관명 :	
	기관주소 :	
	TEL :	FAX :
	E-mail :	
	홈페이지 주소 :	
	지역 특성 : () ① 임대단지지역 ② 일반주택지역(비임대단지) ③ 혼합지역 (※ 기관의 위치나 사업에 성격에 따른 지역특성 구분)	
본사항	총 직원수 : () 명	
	총 사업비 : () 만원 (※ 인건비, 행정지원비 등 운영비 제외한 순수 사업비)	
응답일시 : 2012년 월 일		

귀 기관의 지역사회 역량강화 관련 사업 및 수행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 기관정보

1. 귀 기관의 미션이나 비전, 사업목표에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 ① 명시하고 있음
- ② 명시하고 있지 않음

2. 다음 사회복지관 사업구분을 참조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 참조

사업구분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 사업	자활사업
① 가족관계증진	⑤ 급식서비스	⑫ 주민조직화 및 교육	⑯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⑳ 직업기능 훈련
② 가족기능 보완	⑥ 보건의료서비스	⑬ 복지네트워크 구축	⑰ 성인 기능교실	㉑ 취업알선
③ 가정문제 해결·치료	⑦ 경제적 지원	⑭ 주민복지 증진	⑱ 노인 여가문화	㉒ 직업능력 개발
④ 부양가족지원	⑧ 일상생활 지원	⑮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 조직	⑲ 문화복지	㉓ 자활공동체 육성
	⑨ 정서서비스			
	⑩ 일시보호서비스			
	⑪ 재가복지봉사서비스			

2-1. 귀 기관의 2012년 전체사업 중, 중점순위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명(계획서 작성 단위), 사업구분※, 담당자수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는 상기한 답변범주를 참조하여 답해 주십시오.)

순위	세부사업명	※ 사업구분 (①~㉓)	담당자수
1위	ex. 빈곤 한부모 역량강화 사업	ex. ③	ex. 3명
2위			
3위			
4위			
5위			

2-2. 귀 기관의 2012년 지역사회 역량강화 관련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명(계획서 작성 단위), 사업구분※, 담당자수, 예산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는 상기한 답변범주를 참조하여 답해 주십시오.)

세부사업명	※ 사업구분(①~㉓)	담당자수	예산
ex. 지역이슈주민공청회	ex. ⑫, ⑭	ex. 2명	ex. 1백만원

(표가 모자라는 경우, 표를 편집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기관의 직원들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2009.1~2012.6)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교육(우수지역 현장방문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교육연월, 교육기관명, 교육명, 교육횟수, 참여자수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연월	교육기관명	교육명	횟수	참여자수
ex. 2009.3	ex.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ex. 주민지도력 형성	ex. 3 회	ex. 5 명

(표가 모자라는 경우, 표를 편집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 기관에서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직원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 ※ 중복응답 가능)

- ① 기관장 ② 최고중간관리자(부장급) ③ 중간관리자(과장·팀장급)
- ④ 사업담당자 ⑤ 담당자 외 타직원

5. 귀 기관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2009.1~2012.6) 외부(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공동모금회, 민간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없음
- ② 있음(사업명, 지원처, 사업내용, 예산지원액, 지원기간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 지역사회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예시는 부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사업명	지원처	사업내용	예산지원액	지원기간
ex. 서울품앗이	ex.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ex. 가상화폐, 품앗이로 마을공동체 형성	ex. 3천만원	ex. 2011.6~현재

(표가 모자라는 경우, 표를 편집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귀 기관이 속한 사회의 역량은 다음 중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작 전 단계	② 기초·토대 구축단계	③ 성장·발전단계	④ 강화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 주민리더, 주민조직 부재 - 민관 협력 네트워크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 주민리더, 주민조직 형성 시작 - 공동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상과 유대 형성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주민 및 조직간 상호작용과 활동 확대 -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경제적 연대성·자족성 확보 - 주민 중심 지역복지 정착

◎ 주민조직화

☞ 주민조직화란 지역사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참여과정입니다. 이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조직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7. 귀 기관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2011.1~2012.6) 운영한 주민조직(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집단, 주민단체, 자원봉사모임, 자조모임 등)의 조직명, 조직목적, 유지기간, 모임빈도, 고정참여인원, 인큐베이팅 여부(기관에서 독립하여 기관외부에 별도조직으로 구성)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조직명	조직목적	유지기간	모임빈도	고정 참여인원	인큐베이팅 여부
ex. 배우미	ex. 방과후 지역아동 학습자원봉사	ex. 2009.1~현재	월2 회	5 명	X

(표가 모자라는 경우, 표를 편집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트워크

☞ 네트워크란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욕구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상호작용하고 교환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원, 기술, 사회관계, 지식, 신뢰 등을 서로 공유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관계의 망(net), 유대(tie) 또는 연계(linkage)를 의미합니다.

8. 귀 기관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2011.1~2012.6) 타기관(단체, 조직, 풀뿌리단체 등)과 연계한 네트워크명, 네트워크 유형※, 참여적극성※, 기관내 타사업에의 도움정도※,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름과 기관종류※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는 다음 쪽의 답변범주를 참조하여 답해 주십시오.)

네트워크명	※ 네트워크 유형 (①~⑤) (중복응답가능)	※ 참여 적극성 (①~⑤)	※ 도움정도 (①~⑤)	참여기관명	※ 기관종류 (①~⑯)
ex. OO시민사회복지네트워크	ex. ①, ④, ⑤	ex. ④	ex. ③	ex. □□자활센터	ex. ⑤
				ex. △△노인복지관	ex. ⑥
				ex. ▼▼구청	ex. ⑫
				ex. ◆◆위원회	ex. ⑩
				ex. ◇◇장애인복지관	ex. ⑥

(표가 모자라는 경우, 표를 편집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8번 문항 관련)

네트워크 유형	① 정보교류 및 공유	④ 일회성 공동사업(마을축제 등)
	② 기금 지원	⑤ 정기적 공동사업(정기모임 등)
	③ 기금 외 자원공유(공간, 물품 등)	
참여 적극성	① 전혀 적극적이지 않음	④ 적극적인
	② 적극적이지 않음	⑤ 매우 적극적임
	③ 보통임	
도움정도	① 전혀 도움되지 않음	④ 어느 정도 도움이 됨
	② 거의 도움되지 않음	⑤ 매우 도움이 됨
	③ 별 영향이 없음	
참여기관 종류	① 지역풀뿌리기관	⑨ 종교시설 및 종교기관
	② 광역형 비영리민간기관	⑩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
	③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⑪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④ 생활협동조합·연합회	⑫ 자치구 행정부서 및 의회
	⑤ 지역자활센터	⑬ 서울시 행정부서 및 의회
	⑥ 사회복지시설·기관	⑭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등 교육기관
	⑦ 자원봉사센터	⑮ 일반 기업
	⑧ 공공 문화·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	⑯ 기타

◎ 사업진행

9. 귀 기관이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의 수준을 각각 √ 표시해 주시고, 문제수준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3항목을 선택해주시시오.

항목	문제 정도					문제 수준 높은 항목 (①~⑫중 택3)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주민참여와 주민 리더십의 문제						1위: _____
② 기관 인력 부족						
③ 기관의 사업추진 지식과 노하우 부족						
④ 지역사회에서 연대할 기관 및 단체 부족						
⑤ 지역사회 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보 부족						2위: _____
⑥ 행정과의 소통 부족						
⑦ 행정주도형 공모사업방식의 문제						3위: _____
⑧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거공동체 해체						
⑨ 기관장(단체장)의 의지 부족						
⑩ 사업추진 예산 부족						
⑪ 타사업의 업무과중 문제						
⑫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 _____)						

10. 귀 기관이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 항목에 따라 필요정도를 각각 √표시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순서대로 3항목을 선택해주십시오.

항목	개선 필요 정도					우선 개선 필요 (①~⑬중 택3)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가 늘어나야 함						1위: _____
② 각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함						
③ 각 기관 간 자료 개방 및 교환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함						
④ 공통의 전신망을 구축하여야 함						
⑤ 네트워크 활동 통합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야함						
⑥ 기관장(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가 필요함						2위: _____
⑦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						
⑧ 지역의회의 전체적인 자원량이 증가해야 함						3위: _____
⑨ 각 기관(단체) 직원들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함						
⑩ 각 직원의 기관(단체) 내 업무의 양이 적절하게 조절되 어야 함						
⑪ 민관이 대등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거버넌스 가 이루어져야 함						
⑫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⑬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 _____)						

11. 귀 기관에서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진행 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각각 √표시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순서대로 3항목을 선택해주시요.

항목	필요 정도					가장 필요한 역할 (①~⑬중 택3)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① 주민들에게 기관 활동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지원						1위: _____
②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별 기관 교육과 컨설팅, 연수를 통한 기관 및 실무자 역량강화						
③ 지역사회 역량강화 현황조사 및 연구를 통한 마을공동체 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모델보급						
④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3위: _____
⑤ 사업추진과정의 갈등 조정 및 중재						
⑥ 민관협력을 위해 공동워크숍, 정기회의를 통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⑬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 _____)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비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	
목표	주민의 관계망과 상호신뢰의 복원, 마을단위 자치구조 형성 “함께 살아갈만한 지역으로 회복” (소통과 관계망 회복+마을단위 자립+관민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마을단위 행정)

-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의지와 노력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커뮤니티 발전 정도에 따라 진행하며, 서울시에서 현재 4개 시책(토대구축, 복지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35개 사업을 계획, 진행 중입니다.

12.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 기관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의향 있음
- ② 의향 없음(이유: _____)

13. 귀 기관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신다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을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을 각각 선택하여 우선순위대로 3가지 조합을 선택해주시시오.

사업대상	사업내용	
<p>기타 (150% 초과) ← 가</p> <p>차상위층 (150% 이하) ← 나</p> <p>국민기초 생활수급층 (최저생계비 100% 이하) ← 다</p>	복지	①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서비스, 현금, 현물 제공) ② 상담사업(법률, 임대차, 가족문제 등) ③ 보건·의료지원사업 ④ 공동육아, 돌봄사업 ⑤ 노동 및 인권사업
	경제	⑥ 주민 일자리사업(주민 공동 재화 생산, 일자리 창출 등) ⑦ 신용 및 지역통화사업(폼앗이, 계, 마이크로크레딧, 지역통화 등)
	문화	⑧ 지역주민 주체로 운영되는 시민대학·작은도서관 등 평생교육사업 ⑨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예술사업
	환경 생태	⑩ 환경·에너지·재활용사업 ⑪ 도시 공동텃밭사업
	기타	⑫ 조사연구사업(자치구 의정 모니터링 등) ⑬ 지역주거 및 지역기반시설 관리운영사업(주택, 공원, 도서관 등) ⑭ 지역안전사업(자율방범, 재해예방 등) ⑮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 _____)
	1위 : _____ / 2위 : _____ / 3위 : _____ (ex. 가, ①)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역량강화 지원사업 예시

(※ 5번 문항 관련 예시)

중앙정부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처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미술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국토해양부
희망마을만들기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정안전부
에너지 절약마을(Green마을)	행정안전부
생생 문화재 사업	문화재청
:	:

서울시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처
서울품앗이 (서울 e-품앗이)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위탁사업)
취약계층 자활 공동체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저소득 노인지원 마을공동체	복지건강실 노인복지과
장애인지원 마을공동체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
건강친화마을 조성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마을 부모커뮤니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마을청소년 휴카페 조성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마을안전망 구축	행정국 행정과
주거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운영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

지자체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처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각 자치구
:	:

※ 상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일지라도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별도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역량강화 현장방문 인터뷰지

1. 귀 기관이 생각하시기에 []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을은 []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

“지역사회복지는 []다.”

“지역사회 역량강화는 []다.”

“주민조직화는 []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다.”

2. 귀 기관 활동지역의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3.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 구체적으로

4. 지역에서 귀 기관이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진행할 때, 이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체적으로

5.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6.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등을 비롯한 행정기관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7.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기타 제언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역량강화 현장방문 사례 요약

1. 중앙(관악)

- 1) 소망우체통 : 지역주민 소수의 욕구를 반영하여 욕구를 사회자본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사업으로 공동모금회 지원사업(2차년도)으로 진행
- 2) 아름다운 노년연구모임 : 서비스 이용대상 어르신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것, 노년에 하고 싶은 것 중심의 모임으로 사회복지사는 정보제공을 통한 자조모임 진행중
- 3) 환경 프로젝트 : 아동 청소년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인근 어린이집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현재 3차년도 사업
- 4) 마을영화만들기 : 지역내 작은 가게 살리기의 일환으로 UCC동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진행
- 5) 부모모임 : 인권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조직화의 기반을 마련(가족팀 사업)

2. 방아골(도봉)

- 1) 도봉시민단체협의회 : 97년도 북한동포돕기 및 쌀모으기 경험을 통해 풀뿌리단체간의 협력과 성취를 경험. 98년도에 도봉시민단체협의회가 결성되었고 복지기관이 도봉구에 생겨나면서 도봉사회복지협의회가 마련되었으며 필요와 사안에 따라 두 단체가 결합하기도 함
- 2) 도봉문화기획단 : 느슨한 네트워크로 도봉구 어린이날 축제를 위해 결합, 11년째 진행
- 3) 지역너머 사업 : 도봉구 내 활동가 교육지원으로 연계
- 4) 도봉구시민사회복지네트워크 : 도봉구내 자원이 많아지면서 자원의 연계와 배분조정역할이 필요.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사무국을 개소하고 3년간 진행됨. 이후 지속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지역재단을 고민하게 되고 그 일환으로 도봉사람들이 생겨남
- 5) 도봉아이사랑모임 : 방임아동교육을 통해 역량강화된 주민분들이 공부방 필요성을 제기하여 햇살교실을 건립하여 현재는 독립화된 상태임(신명나는지역복지만들기 도서 참조)
- 6) 인문학 강좌 : 도봉시민회와 연계하여 진행된 인문학 강좌로 분과별 소모임을 만들어 후속모임이 진행(2007~2009년). 2010년에는 마을목공실의 필요성으로 폐목공자재로 동네이야기를 담은 의자만들기가 진행. 2011년에는 공동모금회 문화자람프로그램으로 문화를 매개로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소모임을 진행

- 7) 도깨비 공원 재생위원회 결성 :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청의 협조를 받아 근처 유후지를 1년간 무상임대받아 공간을 꾸미고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활동가가 되어 주민워크숍(ex. 매실담그기)이 진행

3. 성산(마포)

- 1) 성산마을봉사단 : 임대아파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조직화 사업을 진행.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독립화 진행중
- 2) 행복나눔운동 : 성산2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내 저소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단위 모금사업, 교육, 기금지원이 진행
- 3) CI(Community Impact)사업 :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문화(시민단체)활동을 매개로 마포구 위기청소년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로 2년째 지원중
- 4) 지역너머사업 : 마포구 활동가 중심의 활동 네트워크 지원
- 5) 등지만들기 : 마포구 내 아동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및 주민활동가 양성 프로젝트로 마포구 기금으로 2년째 진행
- 6) e-품앗이 & 마포구 지역활동가 모임 : 2012년부터 진행

4. 가양5(강서)

- 1) 마을도서관인 마을소담터 도란도란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며 문화공간 창출하는 활동
- 2) 지역주민들과 살림장터를 상설하여 진행하는 활동
- 3) 지역내 단체와 연합하여 강서인문학커뮤니티(공동모금회 지원)를 통한 주민역량강화를 모색하는 활동

5. 신길(영등포)

- 1) 영등포구 CI사업 : 영등포 지역사회 아젠다를 방임아동 문제해결로 생각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였으나 1년간만 운영됨. 이후에 지역축제와 연관되어 축제를 위한 모임도 진행됨
- 2) 신길1동 자원봉사자 연합회 : 영등포구 16개동별로 자원봉사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신길복지관에서는 신길1동 자원봉사자 분들 대상으로 바자회 및 교육에 참여하여 활동끼리를 제공함. 하지만 제공할 수 있는 활동내용이 많지 않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활동수위가 낮아 어려움이 있음

- 3) 영등포구재가복지연합회(영재연) : 재가복지 실무자 모임으로 2005년 모임초기에는 복지관 중심으로 모이다가 현재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까지 함께 진행. 초기에는 관계형성 및 사례공유 중심으로 진행되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바뀌면서 예전과 다르게 사업 공유차원으로 바뀜

6. 동작(동작)

- 1) 공동모금회 CI사업(친환경 도시 텃밭을 활용한 생태마을지기 육성프로젝트)으로 주민과 함께 텃밭 가꾸기 사업을 준비중
- 2) 이외에도 나눔장터 참여, EM을 활용한 주민조직화사업, 나눔 이웃 사업(행복나눔동작나눔네트워크와 연대)을 준비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임

7. 녹번(은평)

- 1)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 2005년부터 은평구내 지역단체 18개가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함. 2006~2007년에 걸쳐 비전을 세우고 활동을 진행해오며 2012년에는 영역별(아젠다 설정)로 나누어서 진행. 지역사회 공동 아젠다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지역내 NGO·NPO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두 번째는 골목마다 도서관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의 대안인 지역화폐를 진행해 보는 것임. 전체적으로 수평적인 구조로 운영되며, 과업중심의 네트워크가 아닌 관계중심의 네트워크로 개방구조이며 1달에 1회이상의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재정은 단체별로 회비로 충당함. 이 외에도 마을축제(어린이축제)를 함께 기획하고, 은평구청과 연계하여 은평주민축제등을 함께 운영. 하지만 지역활동을 이어갈 청년활동가 수급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일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8. 서울시립대(중랑)

- 1) 반갑수다 우리마을 : 좋은 이웃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인사하고 여쭙고 권하여 나는 사업으로 마을사랑학교, 달인선발대회(4개의 달인활동중), 주민 나눔 위원회 활동, 이웃마을 방문 등이 있음.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되며, 2차년도 사업임
- 2) 안전한 마을 만들기 :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방법대 사업 진행으로 안전한 마을을 위한 지킴이 사업으로 조직화되어 운영되다 현재는 동대표와 통장님과의 이권다툼으로 어려운 상황임

- 3) 공청회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

9. 동대문(동대문)

- 1) 기관 연합회 :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노인복지관, 장안복지관, 푸른복지시민연대와 함께 네트워크 모임을 조직 운영하고 있음. 아직은 태동하는 단계로 실무자교육과 회의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아젠다를 설정해가는 과정임(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진행)
- 2) 주민조직화 :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지역내 아버지들이 기관에 찾아와 조직화활동을 진행. 아이들상담, 부모상담 등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관에서는 위기청소년들의 활동처(ex. 당구장, 헬스클럽)를 제공하고자 함
- 3) 그 외 가족복지팀에서 진행하는 교육복지협력네트워크가 있음

10. 평화(노원)

- 1) 사랑샘 공동체 : 서울시주택과 공모사업으로 2차년도 진행중이며, 임대단지내 품앗이를 통해 내부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목적임.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 나눔마켓, 사랑샘 나눔방, 나눔잔치, 나눔학교등이 진행. 사업 과정 속에서 주민 스스로 하계끔 지원은 최소화하였고, 실제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
- 2) 남북통합사업 : 지역적 특성상 많은 북한이탈주민(노원구 전체 1,100세대 중 500명 거주)과 남한주민과의 사회통합사업을 자조적으로 진행

11. 삼전(송파)

- 1) 주민사회복지대학 : 주부의 사회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역량 강화를 하고, 이후 사후모임을 통해 주민활동의 기반을 마련. 1년 단위의 교육이 진행되며, 지역내 활동가(명칭;송사리)로 활동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 2000년부터 진행되었으며, 40~60대 주부들이 주된 참여 대상자임
- 2) 동사모(동화를 사랑하는 모임) : 도서관을 매개로 활동하는 주민조직, 평균 3~4년간의 활동을 하며, 책과 관련된 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을 주로 진행
- 3) 주민지킴이 : 2007년부터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학교·학부모가 모여서 활동하고 2008년부터는 학부모 중심으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주로 진행. 정기회의 및 관련교육을 주로 진행

- 4) 송파주민네트워크 : 삼전복지관의 3개의 주민조직을 합하여 비전워크숍을 토대로 함께 비전을 설정하고, 일반주민들까지 아우르는 지역축제를 진행
- ※ 이외에도 2012년부터는 지역을 알아가자는 의미로 주민만나기로 연초 새해에 북소리 나 뉘드리기 행사를 진행하였고, 지속적인 주민만나기를 진행

12. 수서명화(강남)

- 1)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진행된 조직화사업으로 초등학교 앞 유해환경을 개선하고자 파출소와 연계해서 진행되었으며, 복지관은 주로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
- 2) 장애인 역량강화 : Beautiful Life란 사업으로 주 1회 주민교육을 통해 손으로 만드는 종이공예를 배우고 교육수료후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주민동아리를 마련
- 3)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 수서초와 수서중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과 함께 한달에 1회씩 회의를 통해 사례공유와 네트워크가 진행
- 4) 강남구청소년복지협의회 : 2000년 초반의 약물청소년복지협의회가 전신으로 이후 강남구 내 사회복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축제나 공동사업 중심으로 네트워크 진행

13. 가양4(강서)

- 1) 나눔누리회 : 가양2동 저소득 가정 아동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복지관-학교-나눔누리회 조직이 연대하여 진행. 1일 찾집을 통해 수익금을 배분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본 사업은 강서지역으로 파급되기도 함. 45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하며 2006년 이후로 매일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2) 주·사·위 : 가양4단지 생태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해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전 세대에게 홍보하여 진행
- 3) 리틀 주·사·위 : 가양4단지 어르신 생신잔치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조직화사업
- 4) 꿈틀꿈틀 학교 : 가양2동 보육환경 개선 캠페인 활동을 위해 조직된 사업
- 5) 마중물 아카데미 : 주민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맞춤형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 6) 광복운동본부 네트워크 : 2006년부터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의 실무자와 함께 관계를 형성하며, 각각 진행하던 주민축제를 함께 진행하게 됨. 현재 10개 단체(주민조직+새마을부녀회+동대표 등)가 함께하는 주민축제로 진행됨

14. 이대(서대문)

- 1) 안산골 공동체 자립역량강화 프로젝트 : 서대문구의 5개동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림아가 데미(주민참여형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살림실천단을 모집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임. 현재는 3개동에서 실천단 활동(아동학습지원, 지역명소안내 등)이 진행
- 2) 찾아가는 간담회 :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 대상층인 북아현동이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아웃리치를 통한 주민과의 접점을 통한 찾아가는 간담회가 진행됨.
- 3) 서대문구아동청소년연합회
- 4) 서대문재가복지연합회가 활발하게 진행

15. 화원(구로)

- 1) CI사업(아이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 구로구 내 위기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학교, 지역아동센터,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 달에 2회 가량 주민(혹은 지역단체,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노는 문화 활동을 진행
 - 2) 구로아동청소년네트워크 : 시민단체와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총 37개 기관이 ‘함께’ 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아동청소년 관련 실무자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
 - 3) 그 외 연합사업 : 구로 e-품앗이(자문위원으로 참여), 교육복지운영센터(멘토링으로 연계), 디딤돌사업(2011년 대표거점기관으로 1,200만원 지정 기탁 받음)
- ※ 회원복지관의 경우 네트워크나 연합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작은 단체들의 역량을 키워서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 을 주요하게 생각함. 따라서 모든 사업을 회원복지관이 주관하기 보다는 지역 내 단체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진행

16. 성내(강동)

- 1) 네트워크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네트워크 활동(교육청, 지역아동센터, 학교와 연계)으로 저소득 청소년 방과후 수업을 지원. 하지만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그 외 복지인력간담회라 하여 성내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반장분들과 함께 사례 발굴 및 회의를 진행
- 2) 일촌 맺기 : 독거어르신과 어머님조직(강동구 내 초중고 학부모로 구성), 그 자녀들과 연계를 통해 관계망 지원

- 3) 관련 신규사업 기획 :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하는 활동기획. 주민조직 안에 분과를 조성하여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주체자로 세우며 지역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다른 재원을 알아보고 있음

17. 중곡(광진)

- 1) 독서지도전문가양성과정 : 지역내 사랑의도서관에 참여하시는 주민만나기를 통해 도서관운영 및 이용에 관한 어려움을 듣고 열린도서관을 증축하게 됨. 열린도서관 운영진 구성을 위한 관련교육과 회의가 진행중
- 2) 별빛봉사단 : 귀가지도 봉사대로서 복지관에서 나이트케어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귀가지원하는 봉사조직. 분기별 1회씩 교육과 간담회지원
- 3) 가족봉사단 조직화 : 사업초기에는 지역봉사대로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가족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게이트 키퍼로써 노인어르신과의 연계를 통한 말벗 상담 지원 연계
- 4) 광진복지네트워크 : 복지기관(3개기관), 광진주민연대, 광진시민연대와 함께 지역너머 교육훈련사업 및 마을공동체사업(e-품앗이)을 추진
- 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네트워크 : 각 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 3개복지관, 정신보건센터, 광진주민연대가 함께 모여서 통합사례관리 및 실무자교육 진행
- 6) 희망운동 및 나눔이웃 사업을 네트워크로 진행

18. 반포(서초)

- 1) well-starting : 퇴직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전문분야 자원봉사 진행으로 주민 대상의 무료교육 지원
 - 2) 그 외 각 동아리활동 및 사업별 자조모임이 진행
- ※ 반포복지관이 위치한 서초구는 지역적 특성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보다는 중산층이 많아서 지역주민의 욕구가 문화생활을 영위 혹은 배움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으로, 지역사회역량강화 사업은 재능기부 혹은 자원봉사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음

19. 구세군강북(강북)

- 1)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모임 : 마을내 아동과 관련된 실무자들이 모여서 네트워킹과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3년간 진행. 2011년도부터는 포럼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냄. '품' 과 연계하여 1년에 1번씩 축제를 진행

- 2) 해뜨는 방법단 : 정신지체 2급 장애인들이 아파트내 방법단 역할을 담당
 - 3) 아동청소년(미아·수유지역)협의회 : 15개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진행. 실무자 연수 및 자원지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2012년 삼성꿈장 학재단에서 지원신청받음
 - 4) 강북마을만들기 : 강북내 공동체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모토로 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연초 업무의 계획한 사업이 아니어서 적극성이 부족함
 - 5) 그 외 6~7개의 사업별 자조모임 진행
- ※ 강북구 내 다양한 시민단체와 함께 교육을 받기도 하고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으나, 서울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네트워크 모임에는 복지단체가 배제된 상황임

20. 길음(성북)

- 1) 참-길음 사업단 : 12명의 어르신들의 노인택배사업단으로 활동하며, 임대아파트 주민 자립능력향상 프로그램 및 길음문화학교 등을 운영. 복지관 외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임차인연합회, 나눔과미래 등 다양한 단체와 협업으로 진행되며, 택배사업단은 마을기업으로 선정
 - 2) 길음문화축제 : 행복한 마을 길음뉴타운 마을축제를 진행. 길음뉴타운입주자협의회와 함께 복지, 문화, 놀이, 나눔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과 함께 기획 진행
 - 3) 성북아동청소년행복지원센터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기관-학교-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전문사례관리를 진행
 - 4) 디딤돌 나눔의 거리 조성 :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원
- ※ 복지관 주변의 뉴타운단지가 2009년에 마무리되면서 지역적상황이 변함. 그전에 비해 복지관의 인지도 및 홍보가 낮아서 2년간 매월 1,500부의 소식지를 통장, 동협의회, 자치위원단, 상가들에게 배포하였음. 주민에게 복지관을 알리고 만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복지관의 역할을 알려주고 지역사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함

21. 가산(금천)

- 1) 희망온돌사업 : 지역내 통장단과 연계하여 사각지대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희망온돌 사

업을 통해 홀몸어르신과 통장단 및 지역주민과의 연계로 홀몸어르신에게는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이웃의 관심을 지속화하는 지역활동을 기획하고 이를 토대로 모금회 CI사업 공모신청을 하였음

- 2) CI사업 「가산동 지역 홀몸어르신과 이웃이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 이심전심 “행복동네”」 : 금1004량 「행복총론」 금천택리지사업을 진행. 살기좋은 지역(금천구)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주민들에게 만나고, 여쭙는 것으로 시작. 특히 풀뿌리자치연구회 및 지역단체와 함께 진행함
- ※ 기관장님이 비공식적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독서모임을 1년간 진행하면서 지역내 풀뿌리자치연구회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후 CI사업과 연계할 때 도움이 됨. 풀뿌리자치연구회 내에 협동조합, 마을신문, 교육네트워크 등 다양한 조직이 함께 있어서 기관 내 다양한 사업과 연계활용

22. 신월(양천)

- 1) 우리아이지킴이 사업 : 아동 통학로 지키기 운동으로 3개 학교의 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하여 교통지도 활동지원. 모범운전자분들과 함께 진행
 - 2) 워킹스쿨버스 :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초등학교 1~2학년 희망자 대상으로 하교지도를 함
 -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신목 e-폼앗이가 관 주도형 지역화폐운동으로 실질적 효과는 미흡한 상황임. 주거분과의 경우 신월복지관의 부속기관인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임대료지원이 진행
- ※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신월6동은 재개발지역으로 복지관도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현재는 근처에서 임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규사업개발이나 사업의 확대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지역적 특성상 네트워크 연대보다는 개별기관의 사업 및 관 주도 중심의 사업진행이 특징임

23. 옥수(성동)

- 1) 성동지역복지실천모임 : 성동복지관, 옥수복지관, 성동평화의 집의 3개 기관지역복지 담당 실무자들이 모여서 공동사업을 추진함. 임대아파트 주민 스스로 임대아파트 주민을 돕는 활동을 하면서 월 1회 정기 모임과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의 공동교육을 받고, 분기에 1회씩 공동사업을 진행. 바자회를 통한 예산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인큐베이팅

된 단체가 성동주민회로 신협을 도와 공부방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 2) 재능나눔동아리 : 교육 및 재능나눔을 통해 지역내 아동청소년 수학을 지도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재활용비누 및 EM무료배포 등의 활동이 진행
- 3) 임대아파트 단지내 공간 활용사업 : 임대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1~2시간동안의 나홀로 아동을 위한 지역공부방으로 활용하며, 현재 운영주체는 노인일자리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주민이 운영
- 4) 성동교육복지네트워크(아이두레)

24. 신림(관악)

- 1) 어르신 봉사단(하얀푸르미) : 2001년도부터 10년넘게 꾸준히 진행, 30명정도로 운영되는 도시락배달봉사단으로써 오랜기간 도시락을 받으시는 재가어르신들과 관계가 돈독하고 자긍심도 높은 편임
 - 2) 신림 1004 : 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진행. 관련 교육을 통해 조직화로 발전하였으며, 지역의 문제(이슈 및 생활상의 불편함)를 찾아내어 여러 방면으로 해결. 예를 들어 복지관 앞 신호체계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언론 및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 3) 사랑나눔회 : 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 위한 조직활동이 진행. 준사례관리자 역할을 하고 계시고 희망온돌 사업진행시 사각지대 대상자를 추천하는 활동을 하기도 함
 - 4) 자조모임 : 가족복지영역에서 3개의 주민자조모임(빈곤소의 가족상담을 위한 조손세대, 한어머님 모임과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의 자조모임)이 운영
 - 5) 난곡넷 : 난곡지역실무자 모임으로 난지협 활동가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어울마당이라는 주민축제를 기획하여 3년째 진행
 - 6)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 난곡지역 아동청소년실무자모임으로 신림복지관이 주도적으로 결성에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각 기관이 돌아가면서 대표기관을 담당
- ※ 신림 1004와 사랑나눔회의 경우 자체회비로 진행되며, 회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 운영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다만 복지관에서는 보수교육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세 조직을 함께 '희망드림' 로 조직하여서 나눔장터를 함께 지원 참여하고 있음

25. 신당(중구)

- 1) 꿈터가게 : 아나바다 형식의 녹색가게로 운영되다가 2011년부터 의류업체의 물품후원을

통해 기금을 조성함. 기금을 지역사회 문화·복지·NGO단체 등에 공모신청을 접수받아 지역사회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2012년에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동화구연 단체가 지원받아 동화책 만들기, 북콘서트 등이 진행

- 2) 이웃사람들 : 아파트 부녀회 및 관리소장과 연계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모금활동. EM비누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아파트 단지내 홍보(4,000세대, 연4회 진행)를 통해 복지관 인식향상 유도함

※ 신당복지관이 위치한 중구는 인구13만에 상권이 발달한 지역으로 Bed town형식의 도심권으로써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나, 일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대상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서울시복지재단-2012-34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발행일 : 2012년 12월

발행처 : 서울시복지재단

발행인 : 임 성 규

편집인 : 김 남 식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신문로2가 1-43)

전 화 : 02-2011-0400

팩 스 : 02-2011-0500

www.welfare.seoul.kr

ISBN 978-89-6298-225-1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